

A Study of Population Change in Goyang-si

고양시 인구 변화 분석

문정화
유선치
KANG CHAE RYUN



현안연구보고서 2018-006

A Study of Population Change in Goyang-si

고양시 인구 변화 분석

연구 책임자

문정화(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선치(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KANG CHAE RYUN(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저자 문정화, 유선치, KANG CHAE RYUN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인쇄처 디자인·편집·인쇄 전문기업 북인북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SBN 979-11-89636-12-8

목 차

| | |
|--------------------------------------|-----------|
| 요 약 | i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5 |
| 제2장 고양시와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구조 비교 | 9 |
| 제1절 총인구 구조 및 변화 | 11 |
| 제2절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구조 및 변화 | 15 |
| 제3장 고양시 인구구조 및 변화 분석 | 29 |
| 제1절 고양시 인구구조 분석 | 31 |
| 제2절 고양시 인구변화 분석 | 49 |
| 제3절 고양시 인구이동 분석 | 62 |
| 제4장 고양시 인구변화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 79 |
| 제1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사점 | 81 |
| 제2절 인구이동에 따른 시사점 | 87 |
| 제5장 요약 및 결론 | 95 |
| 제1절 연구요약 | 97 |
| 제2절 결론 | 100 |

| | |
|----------------|-----|
| 참고문헌 | 101 |
| Abstract | 102 |

표 목차

| | |
|--|----|
| [표 1-1] 연구범위 | 7 |
| [표 2-1]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 12 |
| [표 2-2] 전국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20세 단위) | 13 |
| [표 2-3] 남북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 14 |
| [표 2-4]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2018.8. 기준) | 15 |
| [표 2-5]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총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2018년) | 16 |
| [표 2-6]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합계출산율 | 16 |
| [표 2-7]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경제활동인구(2018년) | 17 |
| [표 2-8]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연도별 인구 현황 및 인구성장을 | 19 |
| [표 2-9]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추계 인구 및 인구성장을 | 20 |
| [표 2-10]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성별 구성비 | 21 |
| [표 2-11]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연령 비율 변화 | 23 |
| [표 2-12]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중위연령 | 24 |
| [표 2-13]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인구대비 종사자수 비율 | 24 |
| [표 2-14] 경기지역 100만도시 시도간 전입·전출 인구수(2000~2017년) | 26 |
| [표 2-15] 경기지역 100만도시 경기도내-시군구간 전입·전출 인구수(2000~2017년) | 27 |
| [표 2-16] 경기지역 100만도시 순이동 인구(2000~2017년) | 28 |
| [표 3-1] 고양시 구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2018.8. 기준) | 31 |
| [표 3-2] 고양시 행정구역 현황(2018.7. 기준) | 33 |
| [표 3-3] 고양시 구별 면적 및 인구수(2018.8. 기준) | 34 |
| [표 3-4] 고양시 행정동별 면적 및 인구수(2018.8. 기준) | 35 |
| [표 3-5] 고양시 구별 남녀 구성비(2018.8. 기준) | 37 |
| [표 3-6] 고양시 구별 평균 연령(2018.8. 기준) | 37 |
| [표 3-7] 고양시 연령별-성별 인구 현황(2018.8. 기준) | 39 |

고양시 인구 변화 분석

| | |
|---|----|
| [표 3-8] 고양시 구단위 연령별·성별 인구수(2018.8. 기준) | 40 |
| [표 3-9] 고양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6년 기준) | 41 |
| [표 3-10] 고양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6년 기준) | 43 |
| [표 3-11] 고양시 학교별 학생수 및 학교수(2017.4.1. 기준) | 44 |
| [표 3-12] 고양시 의료시설 및 의료인수(2016.12.31. 기준) | 45 |
| [표 3-13] 고양시 공무원수(2016.12.31. 기준) | 46 |
| [표 3-14] 고양시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 46 |
| [표 3-15] 고양시 외국인 등록 인구(2016년 기준) | 47 |
| [표 3-16] 고양시 사회보장 관련 인구(2016년 기준) | 48 |
| [표 3-17]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2000~2035) | 49 |
| [표 3-18] 고양시 연도별 인구 변화 및 인구성장률(2002~2035) | 51 |
| [표 3-19] 고양시 5세 단위 연령별 인구 변화(2000~2035) | 52 |
| [표 3-20] 고양시 구별 인구 변화 및 인구성장률(2005~2018.8.) | 54 |
| [표 3-21] 고양시 행정동별 인구 변화 | 56 |
| [표 3-22] 고양시 구별 1인 가구 증가 추이(2005~2017) | 57 |
| [표 3-23] 고양시 여성가구주 현황(2010, 2015년) | 58 |
| [표 3-24] 고양시 구별 출생·사망자수(2017년) | 60 |
| [표 3-25] 고양시 연도별 출생·사망자수(2012~2017년) | 60 |
| [표 3-26] 고양시 연도별 전입·전출 인구수(2012~2017년) | 61 |
| [표 3-27] 고양시 총전입·전출 인구수(2000~2017년) | 62 |
| [표 3-28] 고양시 시도간·시군구간 인구이동(2000~2017년) | 64 |
| [표 3-29] 고양시 전입·전출지별 인구이동(2012~2016년, 5개년 합계) | 69 |
| [표 3-30] 고양시 연령대별 순이동 인구수(2000~2017년) | 72 |
| [표 3-31] 고양시 주요 개발사업 현황 | 77 |
| [표 3-32]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주요 추진 사업(2018년 현재) | 78 |
| [표 4-1]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주요 지표) | 83 |
| [표 5-1]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2000~2035) | 99 |

그림 목차

| | |
|---|----|
| [그림 2-1] 전국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2000~2035) | 13 |
| [그림 2-2]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 변화 추이(2000~2035) | 18 |
| [그림 2-3] 경기지역 100만 도시 연령 비율 변화(2000~2035) | 22 |
| [그림 3-1] 고양시 구별 개요(2018.8.기준) | 32 |
| [그림 3-2] 고양시 전체 연령별-성별 인구 현황(2018.8.기준) | 36 |
| [그림 3-3] 고양시 구별 연령별 인구 비율(2018.8.기준) | 38 |
| [그림 3-4] 고양시 구별-산업별 종사자 비율 | 42 |
| [그림 3-5] 고양시 인구 증가 추이(2000~2035) | 50 |
| [그림 3-6] 고양시 20세 단위 연령 비율 변화(2000~2035) | 51 |
| [그림 3-7] 고양시 구별 인구 증가 추이(2005~2018.8.) | 53 |
| [그림 3-8] 고양시 자연적 증감 추이(2000~2017년) | 59 |
| [그림 3-9] 고양시 순이동(총전입-총전출) 변동 추이(2000~2017년) | 62 |
| [그림 3-10] 고양시 시도간-시군구간 인구이동 변동 추이(2000~2017년) | 63 |
| [그림 3-11] 고양시 시도간-시군구간 전입·전출 비중(2000~2016년) | 66 |
| [그림 3-12] 고양시 전입·전출지별 인구이동 분포(2016년) | 67 |
| [그림 3-13] 고양시 연령대별 인구이동(2016년) | 70 |
| [그림 3-14] 고양시 성별 순이동 인구 변화(2000~2017년) | 71 |
| [그림 5-1] 고양시 인구 증가 추이(2000~2035) | 97 |
| [그림 5-2] 고양시 시도간-시군구간 인구이동 변동 추이(2000~2017년) | 98 |

요약

1. 서론

-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고양시 장기발전 계획이 잘 수립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현황파악과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등 고양시에 대한 지역이해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
- 특히 미래 인구구조와 변화를 예측하는 인구 추계는 향후 도래할 사회문제에 관해 정책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 및 각종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고양시의 인구 구조 및 인구 이동 등 인구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인구현황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2018.8. 기준)>

(단위 : 명, %)

| 구분 | | 경기도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용인시 |
|------|--------------------|------------------|-----------------|-----------------|-----------------|-----------------|
| 인구구조 | 총인구 | 13,012,486 | 1,043,406 | 1,203,089 | 958,670 | 1,022,653 |
| | 유소년인구 (0~14세) | 인구수 1,860,544 | 137,153 13.1 | 169,998 14.1 | 120,591 12.6 | 167,295 16.4 |
| | 생산가능인구 (15~64세) | 인구수 9,627,304 | 781,692 74.9 | 917,542 76.3 | 719,309 75.0 | 733,233 71.7 |
| | | 비율(%) 74.0 | | | | |
| | 고령인구 (65세 이상) | 인구수 1,524,638 | 124,561 11.9 | 115,549 9.6 | 118,770 12.4 | 122,125 11.9 |
| | | 비율(%) 11.7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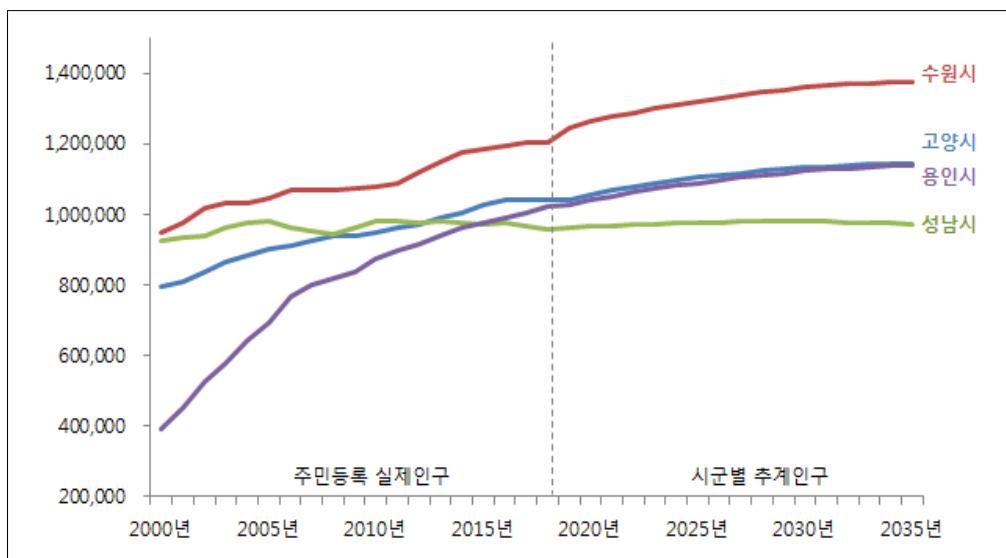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3. 인구변화

□ 인구변화 추이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 변화 추이(2000~2035)〉

(단위 :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사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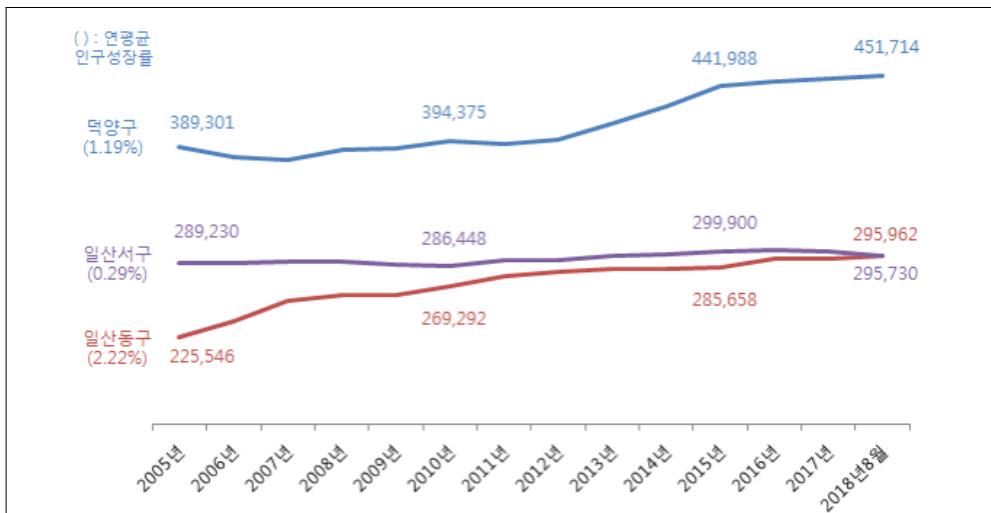
2000~2017년은 주민등록인구, 2019년~2035년은 추계인구임.

- 2000년~2017년 연평균 인구성장률 : 경기도 1.98%, 고양시 1.58%, 수원시 1.41%, 성남시 0.27%, 용인시 5.69%임
- 2019년~2035년 추계 연평균 인구성장률 : 경기도 0.41%, 고양시 0.59%, 수원시 0.62%, 성남시 0.06%, 용인시 0.65%임
- 인구성장률은 감소 추세이나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는 플러스성장이므로 2035년까지 인구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여성비율(50.9%)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성남시 50.5%, 용인시 50.3%임, 수원시 49.6%임

-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35년까지 고양시의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높을 것(51.1%)으로 전망됨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중장년 비율이 35.7%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15년에 40~59세 연령층이 35.8%로 최고치를 보인 후 2035년 까지 28.9%로 서서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 인구가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중위연령은 42.2세로(평균연령은 40.8세)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2035년 고양시의 중위연령은 49.8세로 50세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고양시 구별 인구 증가 추이(2005~2018.8.)〉

(단위 :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2005년~2017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일산동구 2.22%, 덕양구 1.19%, 일산서구 0.29% 순으로 타 구에 비해 일산동구의 인구증가폭이 큰 편임

□ 고양시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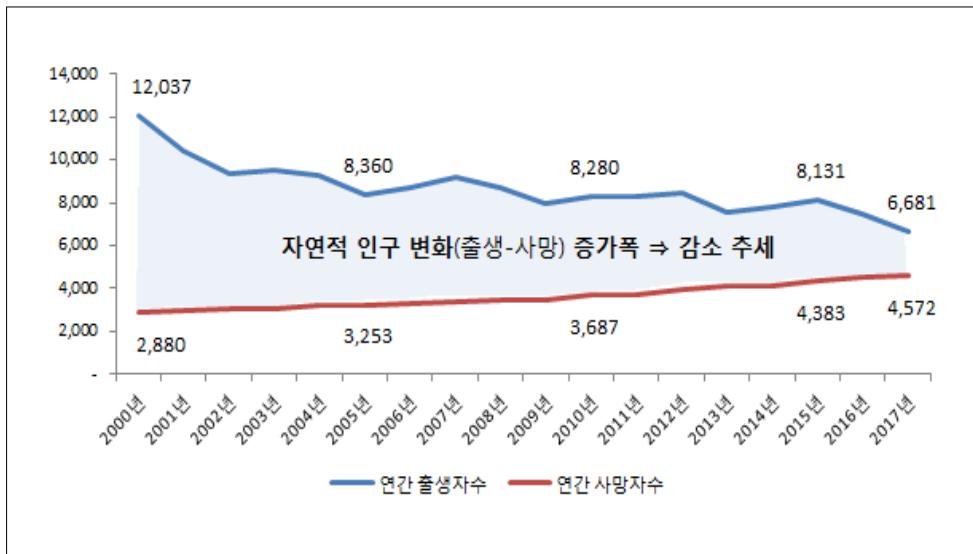
| 구분 | 2000년 | 현재 | 2035년 | 현재시점 |
|--------------------------|---------|-----------|-----------|---------|
| 전체 인구(명) | 797,597 | 1,043,406 | 1,145,093 | 2018.8. |
| 유소년인구(0~14세)비율(%) | 25.9 | 13.1 | 11.7 | 2018.8. |
| 생산가능인구(15~64세)비율(%) | 68.4 | 74.9 | 61.6 | 2018.8. |
| 고령인구(65세이상)비율(%) | 5.7 | 11.9 | 26.7 | 2018.8. |
|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37.8 | 17.5 | 19.0 | 2018.8. |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8.4 | 15.9 | 43.3 | 2018.8. |
| 중위연령(세) | 32.1 | 42.2 | 49.8 | 2017 |
| 합계출산율(명) | 1.541 | 0.960 | . | 2017 |
| 출생아수(명) | 12,037 | 6,768 | . | 2017 |
| 사망자수(명) | 2,880 | 4,547 | . | 2017 |
| 외국인등록인구(명) | 2,700 | 12,286 | . | 2016 |
| 전체 가구수(가구) | 223,604 | 364,356 | . | 2017 |
| 1인가구비율(%) | 10.0 | 22.2 | . | 2017 |
| 경제활동참가율(%) | 61.7 | 58.7 | . | 2018 |
| 고용률(%) | 59.3 | 56.5 | . | 2018 |
| 실업률(%) | 3.7 | 3.7 | . | 2018 |
| 면적(km ²) | 267.33 | 268.05 | . | 2018 |
| 인구밀도(명/km ²) | 2,984 | 3,893 | . | 2018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KOSIS(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 자연적 인구 증감 추이

<고양시 자연적 증감 추이(2000~2017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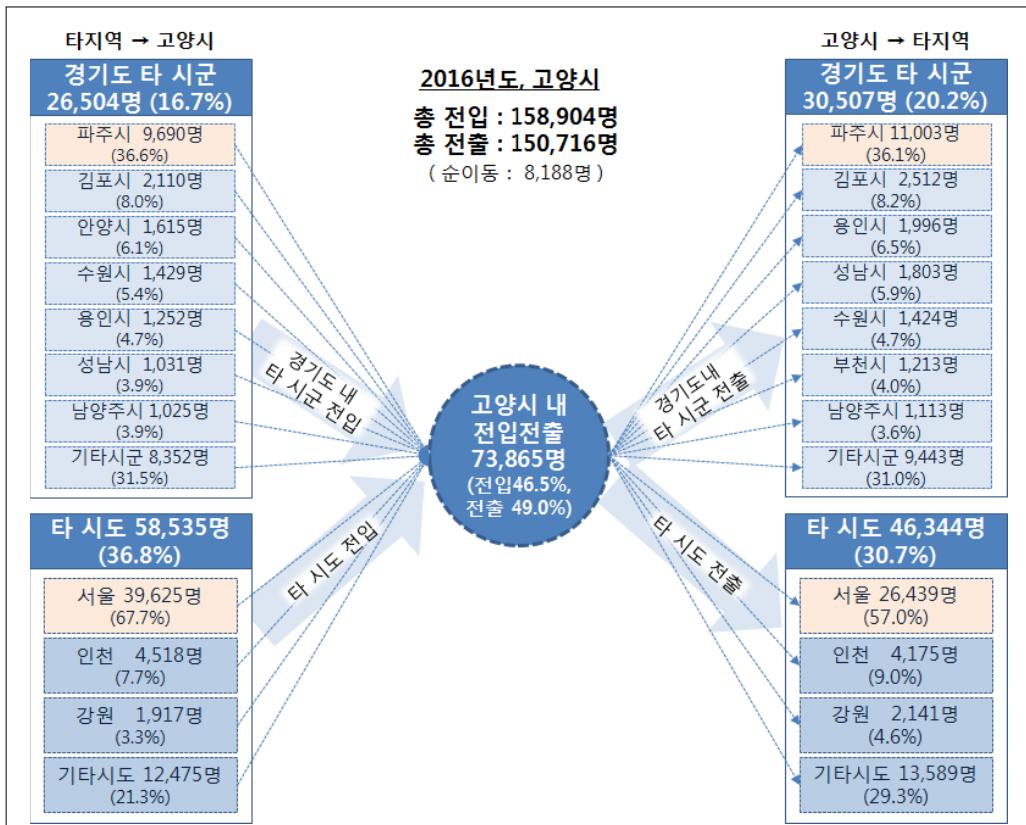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출생등록자수 및 사망말소자수와 수치의 차이가 존재함

- 2000년 이후 고양시 전체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출생자는 감소 추세이고, 사망자는 소폭 증가. 이에 따라 자연적 변화(출생-사망)에 의한 인구는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시도간-시군구간 인구이동

<고양시 시도간-시군구간 이동>



- 시도간 인구이동(고양시↔타 시도) : 시도간 인구이동을 보면 서울, 인천 지역과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하며, 서울 지역의 많은 인구가 고양시로 유입되고 있음
- 경기도내 시군구간 인구이동(고양시↔타 시군) : 시군구간 이동을 보면 인접 지역인 파주, 김포시와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함. 고양시의 많은 인구가 파주, 김포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인구이동으로 순이동 인구 증가 :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음
- 2000년대 : 젊은층(20~30대)의 인구 유입 비중 높음
- 2010년 전후 : 40대와 자녀 세대인 10대의 전출 인구가 많음
- 2010년대 :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인구 유입
- 남성보다 여성 인구의 유입 비중 높음 : 여성(54.3%), 남성(45.7%)
- 서울과의 통근 유출입 인구가 많음 : 고양시 내(36.0%),
고양시↔서울(35.4%)
- 고양시 전입이유는 주택(45%), 가족(25%), 직업(17%) 순 : 2016년

4. 인구변화에 따른 시사점

- 출산지원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중장년 지원 정책 마련 및 확대
-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확보 및 지원체계 마련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시스템 마련
-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포용정책 마련
- 인구이동에 따른 시민 일체감 형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필요
- 유아동·청소년이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필요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편의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대

제 1 장

서론

연구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2절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020고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2012년) 수립 후 급격히 변화된 도시여건 및 시정현황을 반영하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도래함
 - 이에 민선 7기 시정비전을 구체화시키고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장기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고양시의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장기발전 계획이 잘 수립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 현황파악과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등 고양시에 대한 지역이해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
- 특히 미래 인구구조와 변화를 예측하는 인구 추계는 향후 도래할 사회문제에 관해 정책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
 - 고양시는 2014년도에 인구 1,006,154명으로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함
 - 2018년 8월 현재 1,043,406명인 고양시 인구는 2035년 1,145,093명으로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할 전망임(경기도 장래인구 추계 2015~2035)
 - 인구는 지방재정 및 시정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 변수이며, 인구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 달성, 효율성 향상, 고용기회의 창출 등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됨
-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17년 만인 2017년 8월 기준 고령사회에 진입함.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aging)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aged)사회가 됨. 프랑스는 이 진행기간이 115년, 스웨덴은 85년, 영국은 47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림(국민연금연구원, 2018)

- 세계적으로 저출산 추세도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명(통계청, 2017)으로 세계의 합계출산율(2010~2015년 평균) 2.52명(UN, 2017.7.)보다 현저히 낮음
 -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등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정책수립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고령화 진행 과정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지출 및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재량지출 비중의 지자체간 편차와 재정운용의 불형평화를 심화시킴(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p2.)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장기발전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통계 및 각종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고양시의 인구 구조 및 인구이동 등 인구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고양시의 인구구조 현황 및 변화 분석, 인구이동 분석 등을 통하여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인구변화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총인구 구조 및 변화
 -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구조 및 변화
 - 고양시 인구구조 분석
 - 고양시 인구변화 분석
 - 고양시 인구이동 분석
-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통계자료, 행정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함
 - 문헌연구는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이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고양시의 인구 현황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인구 현황 및 경기지역 인구 100만 또는 근접 도시인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의 인구 현황을 비교 분석함

2.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00년~ 2035년
- 공간적 범위: 고양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인구구조 현황 및 추이 분석
 - 인구이동 현황 및 추이 분석
 - 성별 인구 추계
 - 연령별 인구 추계
- 본 연구내용 분석에 있어 주요 분석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인구변화 관련 주요 지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 100대 지표 중 선정함
 - 현재 인구 현황 분석 시점은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함. 주요 분석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을 기준 자료로 하며, 기준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래가구 추계,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를 분석함
 - 고양시 전체 인구 변화 추이는 2000년부터 2035년까지를 분석함. 과거의 추이는 200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제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분석하고, 미래의 전망은 2019년부터 2035년까지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함
 - 고양시는 2005년 5월, 현재의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구별 변동 추이 분석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를 분석함. 구별 장래인구 추계 자료는 생성되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전체 인구이동 변화 추이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를 분석함. 시군간 이동 자료는 고양 통계연보 DB에 수록되어 있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함
 - 경기도 통계자료는 경기통계연보(2017),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 보고서(2017), 고양통계연보(2017), 고양시사회조사(2017) 등의 자료를 분석함

[표 1-1] 연구범위

| 구분 | 주요연구범위 |
|--|---|
| 인구총괄 (경기지역 인구 100만 도시 인구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의 인구 변화(2000~2035년) - 경기도 내 100만 이상 또는 균접도시(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의 연도별 인구현황, 인구 유출입 현황 - 계층별(유소년, 생산가능, 고령)인구,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 - 성별, 연령별 인구 변화(2000~2035년) |
|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 현재시점현황 (2018년8월기준) / 과거변동추이 (2000년~2017년) / 장래인구추계 (2015~203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 각 구별, 동별 면적 및 주민등록인구 현황(2018년8월) - 연령별(5세단위) 인구 및 성별 인구 현황(2018년8월) - 세대 구성 현황(2018년8월) - 산업별 인구현황(2016년) - 고양시 인구 증가 추이 및 인구성장을(2000~2035년) - 각 구별 인구 증가 추이 및 인구성장을(2005~2018년8월) - 각 동별 인구 규모 변화(2005년, 2018년8월) - 인구 변화 요인 : 자연적 증감(출생, 사망), 사회적 이동(전입, 전출) - 인구이동(전입,전출) 변화 추이(2000~2017년) - 성별 연령대별 인구이동(2000~2017년) - 전입·전출지별 인구이동(2012~2016년) - 인구 이동 특성 |

제 2 장

고양시와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구조 비교

총인구 구조 및 변화 제1절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구조 비교 제2절

제1절 총인구 구조 및 변화

1. 총인구 구조 및 변화

- 고양시의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전국 총인구의 구조 및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경기지역 인구 100만 또는 근접 도시인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의 인구 변화를 비교 분석함

1)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 2018년 8월 기준 한국의 총인구는 51,812,153명임. 유소년인구(0~14세) 12.9%, 생산가능인구(15~64세) 72.5%, 고령인구(65세 이상) 14.6%의 고령사회¹⁾임
 - 저출산·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35년 유소년인구는 11.3%, 생산가능인구는 60.0%로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28.7%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대수명 역시 2000년 76세(남성 72.3세, 여성 79.7세)에서 2020년 83.2세(남성 80.3세, 여성 86.2세), 2035년 86.1세(남성 83.7세, 여성 88.5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1) UN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고령화사회), 14% 이상(고령사회), 20% 이상(초고령사회)으로 구분함.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7%), 2017년 8월 고령사회(14%)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표 2-1]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단위 : 명, %)

| 구분 | | 2000년 | 2018년8월 | 2035년 |
|----------|--------------------|-------|------------|------------|
| 인구 구조 | 총인구 | 인구수 | 47,732,558 | 51,812,153 |
| | 유소년인구 (0~14세) | 인구수 | 9,958,802 | 6,686,016 |
| | | 비율(%) | 20.9 | 12.9 |
| | 생산가능인구 (15~64세) | 인구수 | 34,418,140 | 37,569,428 |
| | | 비율(%) | 72.1 | 72.5 |
| | 고령인구 (65세 이상) | 인구수 | 3,355,614 | 7,556,709 |
| | | 비율(%) | 7.0 | 14.6 |
| | | 비고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 | | | | 초고령사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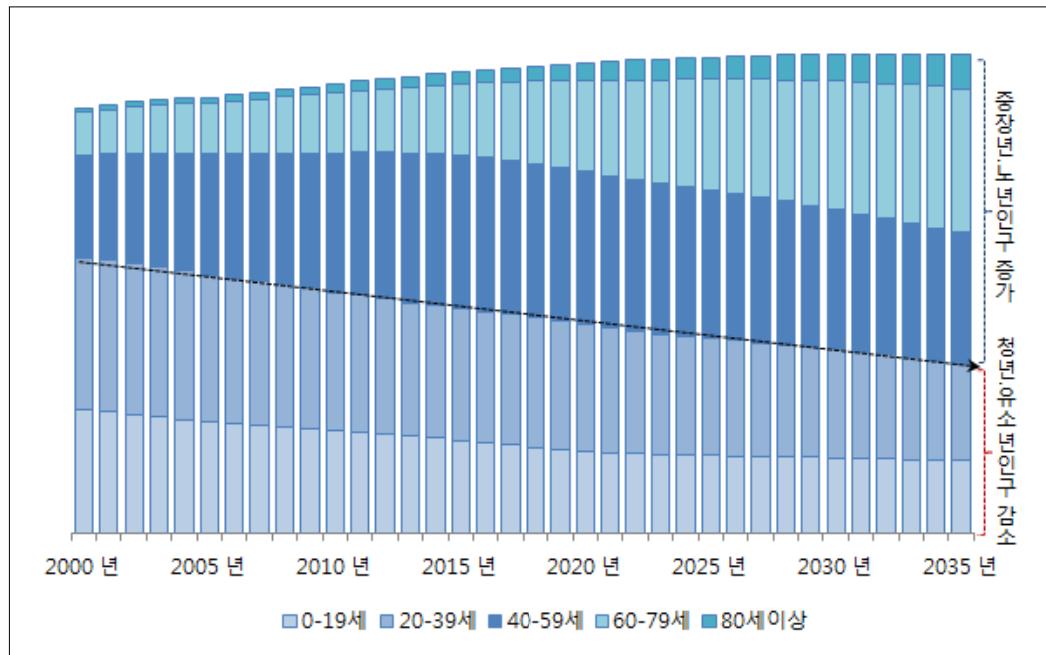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35년)

2) 인구 변화 추이

- 2018년 8월 현재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51,812천명이며,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35년에 52,834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저연령층은 감소하고 고연령층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가 예측됨
 - 20세 단위 연령별 인구 변화(2000년 → 2035년)를 살펴보면 유소년(0~19세)은 28.7%에서 15.2%로 감소, 청년층(20~39세)은 36.1%에서 20.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같은 기간 중장년층(40~59세)은 24.4%에서 27.7%로 증가, 노년층(60세~79세)은 9.8%에서 29.7%로 증가, 고령층(80세 이상)은 1.1%에서 7.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 전국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2000~2035)

(단위 :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8.8.)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35년)

[표 2-2] 전국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20세 단위)

(단위 : 천명, %)

| 구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20년 | 2025년 | 2030년 | 2035년 |
|--------|------------------|------------------|------------------|------------------|------------------|------------------|------------------|------------------|
| 총계 | 47,732 | 48,782 | 50,516 | 51,529 | 51,974 | 52,610 | 52,941 | 52,834 |
| 0~19세 | 13,690 (28.7) | 12,389 (25.4) | 11,584 (22.9) | 10,319 (20.0) | 9,067 (17.4) | 8,592 (16.3) | 8,376 (15.8) | 8,012 (15.2) |
| 20~39세 | 17,241 (36.1) | 16,448 (33.7) | 15,238 (30.2) | 14,370 (27.9) | 14,100 (27.1) | 12,913 (24.5) | 11,991 (22.6) | 10,698 (20.2) |
| 40~59세 | 11,633 (24.4) | 13,635 (28.0) | 15,911 (31.5) | 17,184 (33.3) | 16,860 (32.4) | 16,419 (31.2) | 15,368 (29.0) | 14,637 (27.7) |
| 60~79세 | 4,660 (9.8) | 5,635 (11.6) | 6,810 (13.5) | 8,250 (16.0) | 10,062 (19.4) | 12,231 (23.2) | 14,214 (26.8) | 15,702 (29.7) |
| 80세 이상 | 507 (1.1) | 675 (1.4) | 973 (1.9) | 1,407 (2.7) | 1,885 (3.6) | 2,456 (4.7) | 2,992 (5.7) | 3,785 (7.2)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5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35년)

2000~2015년은 주민등록인구, 2020~2030년은 추계인구임.

2. 남북한 인구 비교

- 최근 국제 이슈인 ‘9.19 평양 공동선언(2018년)’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인구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남한의 총인구는 50,617천명, 북한의 총인구는 25,155명임
 - 2015년 남한의 유소년인구는 13.9%, 생산가능인구 73.0%, 고령인구 13.1%이며, 북한의 유소년인구는 21.2%, 생산가능인구 69.3%, 고령인구 9.5%로 북한의 유소년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저출산·고령화로 남한의 2030년 생산가능인구는 63.1%로 줄어들 전망이며, 고령인구는 24.3%로 대폭 늘어날 전망임
 - 북한도 2030년 유소년인구는 19.7%로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12.2%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남한에 비해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표 2-3] 남북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단위 : 천명, %)

| 구분 | | 2015년 | 2030년 | 2060년 |
|----------|-----------------------|--------|--------|--------|
| 인구 구조 | 총인구 | 남한 | 50,617 | 52,160 |
| | 북한 | 25,155 | 26,719 | 26,837 |
| | 유소년인구%((0~14세)) | 남한 | 13.9 | 12.6 |
| | | 북한 | 21.2 | 19.7 |
| | 생산가능인구%((15~64세)) | 남한 | 73.0 | 63.1 |
| | | 북한 | 69.3 | 68.1 |
| | 고령인구%((65세 이상)) | 남한 | 13.1 | 24.3 |
| | | 북한 | 9.5 | 12.2 |

* 자료 :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15.7.8.

제2절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구조 및 변화

1.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1) 계층별 인구 - 유소년, 생산가능, 고령 인구

- 2018년 8월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012,486명임. 유소년인구(0~14세) 14.3%, 생산가능인구(15~64세) 74.0%, 고령인구(65세 이상) 11.7%의 고령화 사회임
 - 고양시는 유소년인구 13.1%, 생산가능인구 74.9%, 고령인구 11.9%로 경기도 전체 인구구조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수원시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76.3%)이 상대적으로 높고, 용인시는 유소년인구의 비율(16.4%)이 상대적으로 높음. 성남시는 고령인구의 비율(12.4%)이 4개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4]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2018.8. 기준)

(단위 : 명, %)

| 구분 | | 경기도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용인시 |
|------|--------------------|-------|-----------|-----------|---------|-----------|
| 인구구조 | 총인구 | 인구수 | 1,043,406 | 1,203,089 | 958,670 | 1,022,653 |
| | 유소년인구 (0~14세) | 인구수 | 1,860,544 | 137,153 | 169,998 | 120,591 |
| | | 비율(%) | 14.3 | 13.1 | 14.1 | 12.6 |
| | 생산가능인구 (15~64세) | 인구수 | 9,627,304 | 781,692 | 917,542 | 719,309 |
| | | 비율(%) | 74.0 | 74.9 | 76.3 | 75.0 |
| | 고령인구 (65세 이상) | 인구수 | 1,524,638 | 124,561 | 115,549 | 118,770 |
| | | 비율(%) | 11.7 | 11.9 | 9.6 | 12.4 |
| | | | | | | 11.9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비를 나타내는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는 2018년 기준 전국 37.4, 경기도 34.8, 고양시 34.3이며,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전국 110.5, 경기도 81.3, 고양시 90.5임
 - 고양시의 총부양비는 경기도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지만 노령화지수는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수원시의 경우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가 타 시도보다 낮은 비교적 젊은 도시임

[표 2-5]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총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2018년)

| 구분 | 경기도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용인시 |
|----------------------|------|------|------|------|------|
| 총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34.8 | 34.3 | 31.0 | 33.3 | 39.2 |
|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19.2 | 18.0 | 18.6 | 16.8 | 22.5 |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15.6 | 16.3 | 12.4 | 16.5 | 16.7 |
| 노령화지수 (유소년인구 1백명당) | 81.3 | 90.5 | 66.5 | 98.0 | 73.9 |

* 자료 : 경기도, 경기도청년통계
 전체부양비 :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의 합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100)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이상) 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고령인구/생산가능인구*100)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이상)의 비(=고령인구/유소년인구*100)

-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28명에서 2017년 1.069명으로 0.559명 감소함
 - 합계출산율 역시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경기지역 100만 도시 모두 감소함.
 - 특히 2017년 기준 고양시의 합계출산율은 0.960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함
 - 이러한 합계출산율 감소는 유소년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짐

[표 2-6]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합계출산율

(단위 : 명)

| 구분 | 2000년 | 2005년 | 2010년 | 2015년 | 2017년 |
|-----|-------|-------|-------|-------|-------|
| 경기도 | 1.628 | 1.183 | 1.309 | 1.272 | 1.069 |
| 고양시 | 1.541 | 1.084 | 1.165 | 1.161 | 0.960 |
| 수원시 | 1.663 | 1.143 | 1.226 | 1.292 | 1.044 |
| 성남시 | 1.438 | 1.061 | 1.170 | 1.159 | 1.005 |
| 용인시 | 1.777 | 1.270 | 1.331 | 1.316 | 1.039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실업자

- 경기도의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는 7,099천명, 경제활동참가율(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4.6%임
 - 고양시의 경제활동인구는 50만명, 경제활동참가율은 58.7%임
 -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6%, 성남시는 60.8%, 용인시는 57.9%로 수원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용인시가 상대적으로 낮음

- 경기도의 취업자는 6,805천명, 고용률(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62.0%, 실업률(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4.1%임
 - 고양시의 취업자는 48만2천명, 고용률 56.5%, 실업률 3.7%임
 -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원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타 도시에 비해 높음(고용률은 수원시 58.7%, 성남시 57.9%, 용인시 55.8%이며, 실업률은 수원시 4.8%, 성남시 4.7%, 용인시 3.6%임)

[표 2-7]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경제활동인구(2018년)

(단위 : 천명, %)

| 구분 | 경기도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용인시 |
|------------|-------|------|------|------|------|
| 경제활동인구(천명) | 7,099 | 500 | 635 | 490 | 481 |
| 경제활동참가율(%) | 64.6 | 58.7 | 61.6 | 60.8 | 57.9 |
| 취업자(천명) | 6,805 | 482 | 604 | 467 | 464 |
| 고용률(%) | 62.0 | 56.5 | 58.7 | 57.9 | 55.8 |
| 실업자(천명) | 294 | 19 | 31 | 23 | 17 |
| 실업률(%) | 4.1 | 3.7 | 4.8 | 4.7 | 3.6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는 2018년8월 기준, 경기지역 인구 100만 도시는 2018년 상반기 기준 수치임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 = (취업자 / 만 15세이상 인구) × 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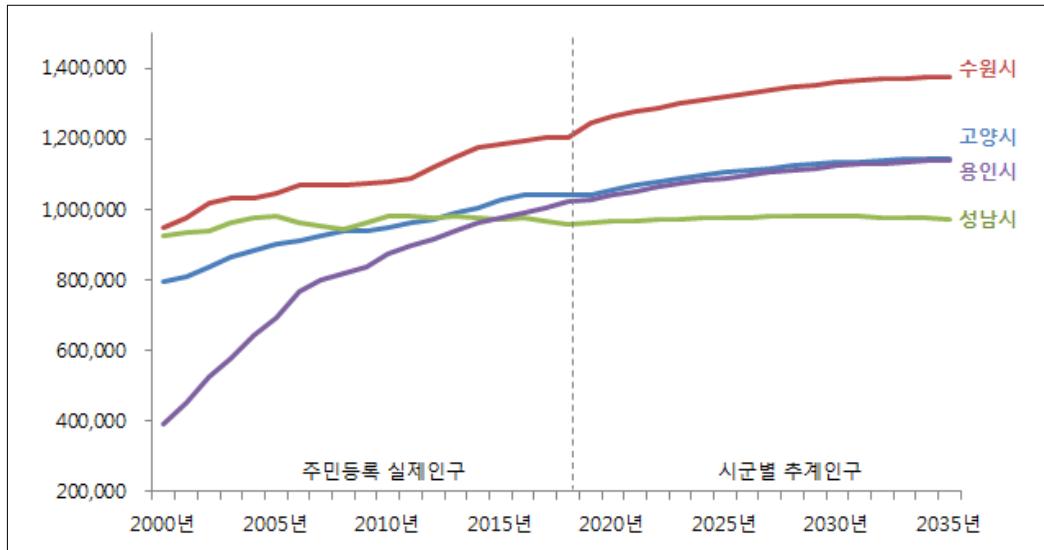
2. 인구 변화

1) 인구 변화 추이 및 인구성장을

- 고양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의 인구 100만 이상 또는 근접도 시인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의 인구 변화 추이를 분석함
 - 고양시와 수원시 인구는 각각 연평균 1.58%, 1.41%의 성장률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지만 2035년까지 비슷한 추세(추계 : 고양시 0.59%, 수원시 0.62%)로 증가할 예정임
 - 용인시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인구가 증가했으며(연평균 5.69%) 2017년 인구 100만 도시 진입 후 2035년까지 완만하게(추계 연평균 0.65%) 증가할 예정임
 - 성남시는 4개 도시 중 인구성장률(연평균 0.27%)이 가장 낮은 도시로 2003년 이후 연 95만명 이상의 인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하지 못함. 이러한 추세는 2035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추계 연평균 0.06%)으로 보임

[그림 2-2]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 변화 추이(2000~2035)

(단위 :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사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2000~2017년은 주민등록인구, 2019년~2035년은 추계인구임.

- 2000년~2017년 연평균 인구성장을 : 경기도 1.98%, 고양시 1.58%, 수원시 1.41%, 성남시 0.27%, 용인시 5.69%임
 - 수원시는 2002년(1,019,711명)에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했으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고양시는 2014년(1,006,154명)에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했으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용인시는 2000년 인구 392,133명의 소도시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여 2017년(1,004,081명)에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함
 - 성남시는 2000년 인구 924,390명으로 인구 100만 도시에 근접하고 있으나 4개 도시 중 인구성장률이 가장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계속 90만명대 인구를 유지함

[표 2-8]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연도별 인구 현황 및 인구성장을

(단위 : 명, %)

| 구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7 |
|-------------------|-----------|----------------------|----------------------|----------------------|----------------------|
| 경기도 (연평균 1.98) | 9,219,343 | 10,697,215 (2.19) | 11,786,622 (2.77) | 12,522,606 (1.32) | 12,873,895 (1.22) |
| 고양시 (연평균 1.58) | 797,597 | 904,077 (2.00) | 950,115 (1.19) | 1,027,546 (2.08) | 1,041,983 (0.22) |
| 수원시 (연평균 1.41) | 948,065 | 1,045,587 (1.12) | 1,077,535 (0.41) | 1,184,624 (0.88) | 1,202,628 (0.71) |
| 성남시 (연평균 0.27) | 924,390 | 983,075 (0.60) | 980,190 (1.78) | 971,424 (0.33) | 967,510 (0.73) |
| 용인시 (연평균 5.69) | 392,133 | 693,660 (7.67) | 876,550 (4.26) | 975,746 (1.51) | 1,004,081 (1.29)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괄호 안은 전년 대비 해당 연도 인구성장률임. 연평균은 2000~2017년 연평균인구성장률임.

- 2019년~2035년 추계 연평균 인구성장률 : 경기도 0.41%, 고양시 0.59%, 수원시 0.62%, 성남시 0.06%, 용인시 0.65%임
 - 경기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34년 13,972천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35년 (13,970천명, 인구성장률 -0.01)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의 인구증가율 역시 점차 감소하여 2035년에 각각 0.11%, 0.14%, -0.21%, 0.15%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모든 시도의 인구성장률은 감소 추세이나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는 플러스성장이므로 2035년까지 인구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2-9]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추계 인구 및 인구성장을

(단위 : 명, %)

| 구분 | 2019 | 2023 | 2027 | 2031 | 2035 |
|-------------------|----------------------|----------------------|----------------------|----------------------|-----------------------|
| 경기도 (연평균 0.41) | 13,092,979 (1.06) | 13,495,659 (0.63) | 13,767,805 (0.43) | 13,929,839 (0.21) | 13,970,453 (-0.01) |
| 고양시 (연평균 0.59) | 1,042,523 (1.53) | 1,088,382 (0.87) | 1,117,889 (0.56) | 1,136,300 (0.32) | 1,145,093 (0.11) |
| 수원시 (연평균 0.62) | 1,247,133 (1.35) | 1,300,307 (0.90) | 1,339,180 (0.64) | 1,364,911 (0.38) | 1,377,451 (0.14) |
| 성남시 (연평균 0.06) | 963,057 (0.43) | 973,641 (0.21) | 979,433 (0.10) | 978,994 (-0.08) | 972,584 (-0.21) |
| 용인시 (연평균 0.65) | 1,027,223 (1.48) | 1,072,219 (0.90) | 1,104,624 (0.66) | 1,127,562 (0.42) | 1,139,229 (0.15) |

※ 자료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괄호 안은 전년 대비 해당 연도 인구성장률임. 연평균은 2019~2035년 연평균추계인구성장을임.

2) 성별 인구 변화

- 근소한 차이지만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여성비율(50.9%)이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성남시 50.5%, 용인시 50.3%임, 수원시 49.6%임
 -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는 여성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35년까지 고양시의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높을 것(51.1%)으로 전망됨. 이는 고양시의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긴 여성 고령인구가 많아짐을

의미함(2035년, 80세 이상 남성 2.8%, 여성 4.1%)

- 경기도 전체 성별은 2035년 기준 남성 50.4%, 여성 49.6%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35년까지 고양시, 성남시는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용인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수원시는 타 도시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됨

[표 2-10]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성별 구성비

(단위 : %)

| 구분 | 경기도 | | 고양시 | | 수원시 | | 성남시 | | 용인시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0년 | 50.5 | 49.5 | 49.8 | 50.2 | 50.3 | 49.7 | 50.3 | 49.7 | 50.7 | 49.3 |
| 2005년 | 50.4 | 49.6 | 49.5 | 50.5 | 50.2 | 49.8 | 50.1 | 49.9 | 50.1 | 49.9 |
| 2010년 | 50.4 | 49.6 | 49.4 | 50.6 | 50.4 | 49.6 | 49.9 | 50.1 | 49.8 | 50.2 |
| 2015년 | 50.3 | 49.7 | 49.2 | 50.8 | 50.4 | 49.6 | 49.7 | 50.3 | 49.7 | 50.3 |
| 2017년 | 50.3 | 49.7 | 49.1 | 50.9 | 50.4 | 49.6 | 49.5 | 50.5 | 49.7 | 50.3 |
| 2020년 | 50.5 | 49.5 | 49.1 | 50.9 | 50.6 | 49.4 | 49.5 | 50.5 | 49.9 | 50.1 |
| 2025년 | 50.5 | 49.5 | 49.0 | 51.0 | 50.5 | 49.5 | 49.4 | 50.6 | 49.8 | 50.2 |
| 2030년 | 50.4 | 49.6 | 48.9 | 51.1 | 50.5 | 49.5 | 49.4 | 50.6 | 49.7 | 50.3 |
| 2035년 | 50.4 | 49.6 | 48.9 | 51.1 | 50.3 | 49.7 | 49.3 | 50.7 | 49.8 | 50.2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2017년 이전은 주민등록인구, 2020년~2035년은 추계인구임.

3) 연령별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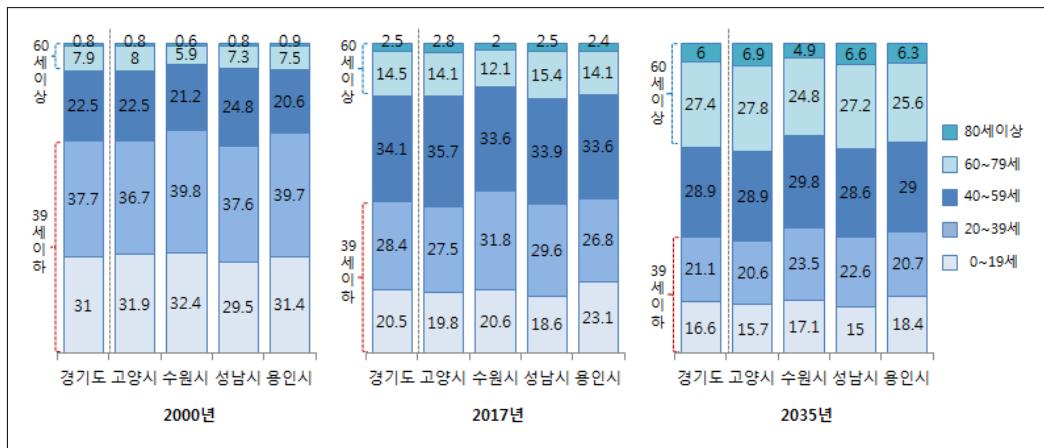
- 전국적으로 유소년·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중장년·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7년 기준 경기도 인구 중 40~59세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음. 2035년에는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년인구에 진입하면서 60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000년부터 2017년도까지 경기도 전체 인구변화를 보면 0~19세 이하 연령층은 31.0%에서 20.5%(10.5%↓), 20~39세 연령층은 37.7%에서 28.4%(9.3%↓)로

감소함. 반면 40~59세 연령층은 22.5%에서 34.1%(11.6%↑), 60세 이상 연령층은 7.9%에서 14.5%(6.6%↑)로 증가함

-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35년 0~19세 16.6%, 20~39세 21.1%, 40~59세 28.9%, 60세 이상 33.4%로 고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2-3] 경기지역 100만 도시 연령 비율 변화(2000~2035)

(단위 :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사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2000~2017년은 주민등록인구, 2019년~2035년은 추계인구임.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중장년 비율이 35.7%로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며, 수원시는 청년 비율이 31.8%로 가장 높음
- 고양시는 2015년에 40~59세 연령층이 35.8%로 최고치를 보인 후 2035년까지 28.9%로 서서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 인구가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도 및 타 도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고양시의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임

[표 2-11]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연령 비율 변화

(단위 : 명, %)

| 지역 | 연령비율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2025 | 2030 | 2035 |
|-------------|--------|------|------|------|------|------|------|------|------|
| 경 기 도 | 0~19세 | 31.0 | 27.7 | 25.0 | 21.8 | 18.9 | 17.7 | 17.2 | 16.6 |
| | 20~39세 | 37.7 | 35.0 | 31.2 | 28.9 | 27.9 | 25.4 | 23.6 | 21.1 |
| | 40~59세 | 22.5 | 27.0 | 31.4 | 34.1 | 33.7 | 32.4 | 30.2 | 28.9 |
| | 60~79세 | 7.9 | 9.3 | 10.8 | 13.1 | 16.6 | 20.7 | 24.4 | 27.4 |
| | 80세이상 | 0.8 | 1.1 | 1.5 | 2.1 | 2.9 | 3.8 | 4.7 | 6.0 |
| 고 양 시 | 0~19세 | 31.9 | 29.3 | 25.8 | 21.4 | 18.2 | 16.8 | 16.3 | 15.7 |
| | 20~39세 | 36.7 | 32.8 | 29.0 | 27.8 | 26.8 | 24.9 | 23.0 | 20.6 |
| | 40~59세 | 22.5 | 27.5 | 32.9 | 35.8 | 35.0 | 33.0 | 30.4 | 28.9 |
| | 60~79세 | 8.0 | 9.3 | 10.7 | 12.6 | 16.6 | 20.8 | 24.7 | 27.8 |
| | 80세이상 | 0.8 | 1.1 | 1.6 | 2.4 | 3.5 | 4.5 | 5.5 | 6.9 |
| 수 원 시 | 0~19세 | 32.4 | 29.1 | 25.8 | 22.1 | 19.0 | 18.0 | 17.7 | 17.1 |
| | 20~39세 | 39.8 | 36.7 | 33.2 | 32.0 | 31.2 | 28.5 | 26.3 | 23.5 |
| | 40~59세 | 21.2 | 26.1 | 30.8 | 33.3 | 33.3 | 32.4 | 30.6 | 29.8 |
| | 60~79세 | 5.9 | 7.2 | 8.8 | 10.8 | 14.2 | 18.2 | 21.8 | 24.8 |
| | 80세이상 | 0.6 | 0.8 | 1.3 | 1.7 | 2.2 | 3.0 | 3.7 | 4.9 |
| 성 남 시 | 0~19세 | 29.5 | 25.4 | 22.9 | 19.7 | 17.0 | 15.9 | 15.5 | 15.0 |
| | 20~39세 | 37.6 | 36.6 | 32.4 | 30.2 | 29.0 | 27.0 | 25.2 | 22.6 |
| | 40~59세 | 24.8 | 28.0 | 32.1 | 34.1 | 33.2 | 31.7 | 29.6 | 28.6 |
| | 60~79세 | 7.3 | 9.0 | 11.1 | 13.8 | 17.8 | 21.4 | 24.6 | 27.2 |
| | 80세이상 | 0.8 | 1.0 | 1.5 | 2.2 | 3.0 | 4.0 | 5.1 | 6.6 |
| 용 인 시 | 0~19세 | 31.4 | 28.3 | 26.3 | 24.6 | 21.2 | 19.7 | 19.0 | 18.4 |
| | 20~39세 | 39.7 | 36.2 | 31.6 | 27.6 | 27.1 | 24.8 | 23.2 | 20.7 |
| | 40~59세 | 20.6 | 24.8 | 28.2 | 32.8 | 33.1 | 32.4 | 30.3 | 29.0 |
| | 60~79세 | 7.5 | 9.5 | 11.9 | 13.0 | 15.7 | 19.0 | 22.5 | 25.6 |
| | 80세이상 | 0.9 | 1.1 | 2.0 | 2.0 | 2.9 | 4.0 | 5.0 | 6.3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2000~2015년은 주민등록인구, 2020~2030년은 추계인구임.

- 이와 같은 연령별 인구변화에 따라 경기도의 중위연령은 2000년 31.2세에서 2017년 40.5세로 9.3세 높아졌으며, 고양시는 32.1세에서 42.2세로 10.1세 높아짐
 - 같은 기간 수원시는 29.7세에서 38.7세(9.0세↑), 용인시는 30.6세에서 39.7세(9.1↑), 성남시는 31.2세에서 41.6세(10.4세↑)로 높아짐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중위연령은 42.2세로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수원시가 38.7세로 가장 젊은 편임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35년 고양시의 중위연령은 49.8세로 50세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타 시도 역시 고령화 추세에 따라 40대 중후반의 중위연령을 보일 것으로 보임

[표 2-12]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중위연령

(단위 : 세)

| 구분 | 2000 | 2005 | 2010 | 2015 | 2017 | 2020 | 2025 | 2030 | 2035 |
|-----|------|------|------|------|------|------|------|------|------|
| 경기도 | 31.2 | 33.8 | 36.6 | 39.5 | 40.5 | 41.9 | 44.5 | 46.9 | 48.7 |
| 고양시 | 32.1 | 34.6 | 37.7 | 41.0 | 42.2 | 43.3 | 45.5 | 47.9 | 49.8 |
| 수원시 | 29.7 | 32.2 | 34.9 | 37.7 | 38.7 | 39.9 | 42.3 | 44.3 | 46.1 |
| 성남시 | 31.2 | 33.9 | 37.2 | 40.5 | 41.6 | 42.5 | 44.7 | 46.9 | 48.7 |
| 용인시 | 30.6 | 33.8 | 36.1 | 38.6 | 39.7 | 40.9 | 43.4 | 45.5 | 47.1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

4) 종사자 인구 변화

- 경기도의 인구대비 종사자수 비율은 2010년 32.9%에서 2016년 36.5%로 3.5% 증가하였으며, 고양시의 종사자비율은 26.2%에서 28.9%로 2.7% 증가함
- 같은 기간 수원시는 31.1%에서 33.3%로 2.2% 증가하였고, 용인시는 27.9%에서 30.4%로 2.5% 증가함. 성남시는 32.7%에서 44.3%로 11.6% 증가하여 2010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남

[표 2-13] 경기지역 100만 도시의 인구대비 종사자수 비율

(단위 : 명, %)

| 구분 | 2010년 | | | 2016년 | | | 증감폭 |
|-----|------------|-----------|-------|------------|-----------|-------|------|
| | 인구 | 종사자 | 종사자비율 | 인구 | 종사자 | 종사자비율 | |
| 경기도 | 11,379,459 | 3,749,152 | 32.9 | 12,671,956 | 4,621,473 | 36.5 | 3.5 |
| 고양시 | 905,076 | 237,190 | 26.2 | 999,098 | 288,957 | 28.9 | 2.7 |
| 수원시 | 1,071,913 | 333,219 | 31.1 | 1,207,032 | 401,883 | 33.3 | 2.2 |
| 성남시 | 949,964 | 310,514 | 32.7 | 951,518 | 421,334 | 44.3 | 11.6 |
| 용인시 | 856,765 | 238,713 | 27.9 | 982,590 | 298,524 | 30.4 | 2.5 |

※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3편', 2017.12.

(원자료 : 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 종사자는 경제총조사)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수와 차이가 존재함

3. 인구 유출입 현황

- 2010년 이후 신규 주택단지 등이 조성된 수도권과 수도권에 인접한 시도로 서울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확산됨.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로부터 가장 많은 수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경기도는 2015년 모든 연령층의 유출보다 유입인구가 많은 순유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경기연구원, 2016. p23.)
- 이는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파주시, 성남시, 용인시로 새롭게 조성된 경기도 내 주택단지로 서울시 인구가 이동하는 경향 때문임(최석현 외, 2016; 문정화 외, 2017 재인용)
- 경기지역 100만 도시 중 고양시와 성남시의 시도간 이동 비중이 높은 편임

1) 시도간 이동

- 시도간 이동(2000~2017년) : 경기도 외 타 지역(서울 등)과의 시도간 이동으로 경기지역 100만 도시 인구가 모두 증가함
 - 2000년~2017년까지 18년간 용인시(309,183명 증가)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 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양시(296,818명 증가), 성남시(222,844명 증가), 수원시 (205,486명 증가) 순으로 인구가 증가함
 -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인구는 고양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순임. 경기지역 100만 도시에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시도간 전출 인구 역시 고양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순임
 -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주로 이주하는 곳은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파주시, 성남시로 확인되고 있음. 노인인구의 이동패턴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 강남구의 노인들이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에 새롭게 조성된 주택단지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경기연구원, 2016. p25.)
 - 서울시민들이 경기도로 이동하는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 지리, 집값 등의 이유로 유출 규모는 유입 규모에 비해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음
 - 2010년대 들어서 2000년대에 비해 경기지역 100만도시의 시도간 전출입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양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가장 많음

[표 2-14] 경기지역 100만도시 시도간 전입·전출 인구수(2000~2017년)

(단위 : 명)

| 시도간 이동 | 고양시 | | 수원시 | | 성남시 | | 용인시 | |
|-----------|--------|--------|--------|--------|--------|--------|--------|--------|
| | 전입 | 전출 | 전입 | 전출 | 전입 | 전출 | 전입 | 전출 |
| 2000년 | 86,148 | 64,260 | 59,955 | 40,280 | 73,307 | 56,897 | 39,285 | 21,392 |
| 2001년 | 90,439 | 63,167 | 60,223 | 41,167 | 80,929 | 54,892 | 54,961 | 25,362 |
| 2002년 | 90,512 | 62,387 | 69,495 | 40,510 | 79,001 | 48,599 | 66,776 | 27,108 |
| 2003년 | 85,983 | 61,716 | 61,318 | 46,103 | 75,996 | 49,030 | 58,682 | 32,472 |
| 2004년 | 76,833 | 56,433 | 55,759 | 41,994 | 65,535 | 43,111 | 63,837 | 31,719 |
| 2005년 | 77,964 | 59,341 | 57,423 | 43,551 | 62,104 | 48,573 | 64,750 | 37,846 |
| 2006년 | 81,664 | 66,142 | 60,528 | 46,224 | 64,457 | 59,047 | 72,933 | 43,542 |
| 2007년 | 76,700 | 62,334 | 56,443 | 47,041 | 62,352 | 57,908 | 59,196 | 44,918 |
| 2008년 | 73,313 | 60,767 | 51,985 | 43,965 | 53,578 | 54,134 | 53,246 | 46,021 |
| 2009년 | 63,020 | 59,644 | 56,601 | 46,024 | 68,739 | 53,083 | 54,362 | 45,815 |
| 2010년 | 66,790 | 54,669 | 49,330 | 44,168 | 61,391 | 49,984 | 58,366 | 43,177 |
| 2011년 | 66,304 | 51,803 | 47,401 | 43,527 | 56,566 | 49,462 | 52,581 | 45,439 |
| 2012년 | 60,553 | 48,016 | 49,445 | 40,582 | 52,548 | 44,775 | 51,767 | 42,103 |
| 2013년 | 64,203 | 46,641 | 47,298 | 39,370 | 51,181 | 43,902 | 50,139 | 39,967 |
| 2014년 | 62,231 | 46,663 | 48,969 | 43,237 | 47,511 | 45,295 | 49,991 | 43,026 |
| 2015년 | 66,375 | 47,364 | 48,292 | 42,520 | 50,703 | 44,053 | 52,638 | 43,888 |
| 2016년 | 58,535 | 46,344 | 46,634 | 39,709 | 55,502 | 42,515 | 50,789 | 40,503 |
| 2017년 | 51,952 | 45,010 | 46,620 | 38,261 | 49,075 | 42,371 | 48,549 | 39,367 |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시도간 이동은 경기도 외 지역(서울 및 타 시도)과의 인구이동(전입·전출)을 의미함

2) 시군구간 이동

○ 경기도 내-시군구간 이동(2000~2017년) : 경기도 내 시군구간 이동으로 경기지역 100만 도시 중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인구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용인시는 시군구간 이동으로 인구가 증가함

- 2000년~2017년까지 18년간 성남시(293,095명 감소)의 인구가 시군구간 이동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양시(117,224명 감소), 수원시(72,018명

감소) 순으로 감소함. 유일하게 용인시만 시군구간 이동으로 233,720명 증가함
 – 경기지역 100만 도시 중 고양시는 시도간 전출입 비중이 높고, 시군간 전출입 비중
 이 낮은 편임. 성남시는 시도간 전출입 비중이 높지만 시군간 전입 인구가 상대적
 으로 적고, 시군간 전출 인구가 많아서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감소함. 수원시는 시
 군구간 전출이 많은 편이며, 용인시는 시도간 이동과 시군구간 이동의 비중이 비
 슷함

[표 2-15] 경기지역 100만도시 경기도내-시군구간 전입·전출 인구수(2000~2017년)

(단위 : 명)

| 시군구간 이동 | 고양시 | | 수원시 | | 성남시 | | 용인시 | |
|------------|--------|--------|--------|--------|--------|--------|--------|--------|
| | 전입 | 전출 | 전입 | 전출 | 전입 | 전출 | 전입 | 전출 |
| 2000년 | 24,833 | 30,124 | 54,915 | 49,618 | 30,652 | 52,782 | 40,669 | 28,420 |
| 2001년 | 27,412 | 46,483 | 57,507 | 59,210 | 35,787 | 59,715 | 56,535 | 30,908 |
| 2002년 | 30,790 | 38,655 | 69,534 | 62,470 | 36,527 | 64,346 | 65,018 | 34,715 |
| 2003년 | 32,969 | 32,804 | 50,923 | 60,658 | 39,339 | 50,476 | 55,508 | 35,962 |
| 2004년 | 28,947 | 32,539 | 45,425 | 67,017 | 32,463 | 46,525 | 62,340 | 33,670 |
| 2005년 | 30,916 | 35,424 | 53,057 | 63,003 | 34,756 | 48,008 | 61,011 | 39,617 |
| 2006년 | 33,456 | 47,230 | 62,516 | 62,045 | 37,382 | 66,715 | 81,788 | 43,884 |
| 2007년 | 30,611 | 36,056 | 54,051 | 74,573 | 35,243 | 57,778 | 58,494 | 46,348 |
| 2008년 | 29,566 | 33,331 | 51,093 | 68,903 | 32,204 | 49,657 | 48,944 | 46,591 |
| 2009년 | 27,910 | 35,467 | 55,478 | 67,871 | 46,478 | 47,286 | 57,209 | 49,416 |
| 2010년 | 29,657 | 42,650 | 46,784 | 64,646 | 38,451 | 49,065 | 57,409 | 45,914 |
| 2011년 | 30,392 | 38,141 | 53,152 | 53,061 | 35,541 | 49,248 | 51,784 | 46,165 |
| 2012년 | 28,076 | 36,051 | 60,301 | 44,916 | 32,353 | 46,475 | 49,595 | 46,154 |
| 2013년 | 29,746 | 30,472 | 58,012 | 45,654 | 34,276 | 46,092 | 52,355 | 43,132 |
| 2014년 | 28,659 | 32,407 | 58,787 | 46,261 | 32,715 | 45,091 | 50,580 | 44,094 |
| 2015년 | 29,708 | 31,973 | 53,042 | 56,952 | 32,353 | 48,073 | 49,396 | 49,994 |
| 2016년 | 26,504 | 30,507 | 47,232 | 51,922 | 34,671 | 49,740 | 46,678 | 46,980 |
| 2017년 | 23,908 | 30,970 | 49,412 | 54,459 | 31,816 | 49,030 | 46,039 | 45,668 |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시군구간 이동은 경기도 내 지역(타 시군구)과의 인구이동(전입·전출)을 의미함

3) 순이동

- 경기지역 100만 도시는 인구 유입도 많고 유출도 많은 전반적으로 인구이동이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음
- 순이동 인구 변화를 보면 2000년대 초반 고양시와 용인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 함. 서울시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0년대에도 고양 시, 수원시, 용인시는 순이동 인구가 정(+)의 형태를 보이면서 인구이동으로 인구 가 증가하고 있음. 다만 성남시는 시군간 전입 인구는 적고, 전출 인구는 많은 상황 이 지속되면서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감소함

[표 2-16] 경기지역 100만도시 순이동 인구(2000~2017년)

(단위 : 명)

| 순이동 | 경기도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용인시 |
|-------|---------|--------|---------|---------|--------|
| 2000년 | 184,026 | 16,597 | 24,972 | -5,720 | 30,142 |
| 2001년 | 248,947 | 8,201 | 17,353 | 2,109 | 55,226 |
| 2002년 | 315,782 | 20,260 | 36,049 | 2,583 | 69,971 |
| 2003년 | 222,043 | 24,432 | 5,480 | 15,829 | 45,756 |
| 2004년 | 188,875 | 16,808 | -7,827 | 8,362 | 60,788 |
| 2005년 | 168,851 | 14,115 | 3,926 | 279 | 48,298 |
| 2006년 | 138,633 | 1,748 | 14,775 | -23,923 | 67,295 |
| 2007년 | 113,100 | 8,921 | -11,120 | -18,091 | 26,424 |
| 2008년 | 100,597 | 8,781 | -9,790 | -18,009 | 9,578 |
| 2009년 | 94,153 | -4,181 | -1,816 | 14,848 | 16,340 |
| 2010년 | 142,437 | -872 | -12,700 | 793 | 26,684 |
| 2011년 | 75,799 | 6,752 | 3,965 | -6,603 | 12,761 |
| 2012년 | 82,753 | 4,562 | 24,248 | -6,349 | 13,105 |
| 2013년 | 74,131 | 16,836 | 20,286 | -4,537 | 19,395 |
| 2014년 | 57,396 | 11,820 | 18,258 | -10,160 | 13,451 |
| 2015년 | 94,768 | 16,746 | 1,862 | -9,070 | 8,152 |
| 2016년 | 133,617 | 8,188 | 2,235 | -2,082 | 9,984 |
| 2017년 | 116,162 | -120 | 3,312 | -10,510 | 9,553 |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순이동 인구(총전입 인구-총전출 인구)는 사회적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증감 인구를 의미함

제 3 장

고양시 인구구조 및 변화 분석

고양시 인구구조 분석 제1절

고양시 인구변화 분석 제2절

고양시 인구이동 분석 제3절

제1절 고양시 인구구조 분석

1. 고양시 전체 인구 현황

1)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

- 2018년 8월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는 1,043,406명임. 유소년인구(0~14세) 13.1%, 생산가능인구(15~64세) 74.9%, 고령인구(65세 이상) 11.9%의 고령화 사회임
 - 덕양구 인구는 451,714명, 일산동구 295,962명, 일산서구 295,730명으로 덕양구의 인구가 가장 많음
- 덕양구는 고령인구 비율(13.2%)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산동구는 생산가능인구 비율(76.6%), 일산서구는 유소년인구 비율(13.9%)이 상대적으로 높음
 - 덕양구는 유소년인구 13.1%, 생산가능인구 73.7%, 고령인구 13.2%임
 - 일산동구는 유소년인구 12.5%, 생산가능인구 76.6%, 고령인구 10.9%임
 - 일산서구는 유소년인구 13.9%, 생산가능인구 75.1%, 고령인구 11.1%임

[표 3-1] 고양시 구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2018.8. 기준)

(단위 : 명, %)

| 구분 | | 고양시 | 덕양구 | 일산동구 | 일산서구 |
|------|--------------------|------|-----------|---------|---------|
| 총인구 | | 인구수 | 1,043,406 | 451,714 | 295,962 |
| 인구구조 | 유소년인구 (0~14세) | 인구수 | 137,153 | 59,183 | 36,944 |
| | 비율(%) | 13.1 | 13.1 | 12.5 | 13.9 |
| | 생산가능인구 (15~64세) | 인구수 | 781,692 | 332,983 | 226,697 |
| | 비율(%) | 74.9 | 73.7 | 76.6 | 75.1 |
| | 고령인구 (65세 이상) | 인구수 | 124,561 | 59,548 | 32,321 |
| | 비율(%) | 11.9 | 13.2 | 10.9 | 11.1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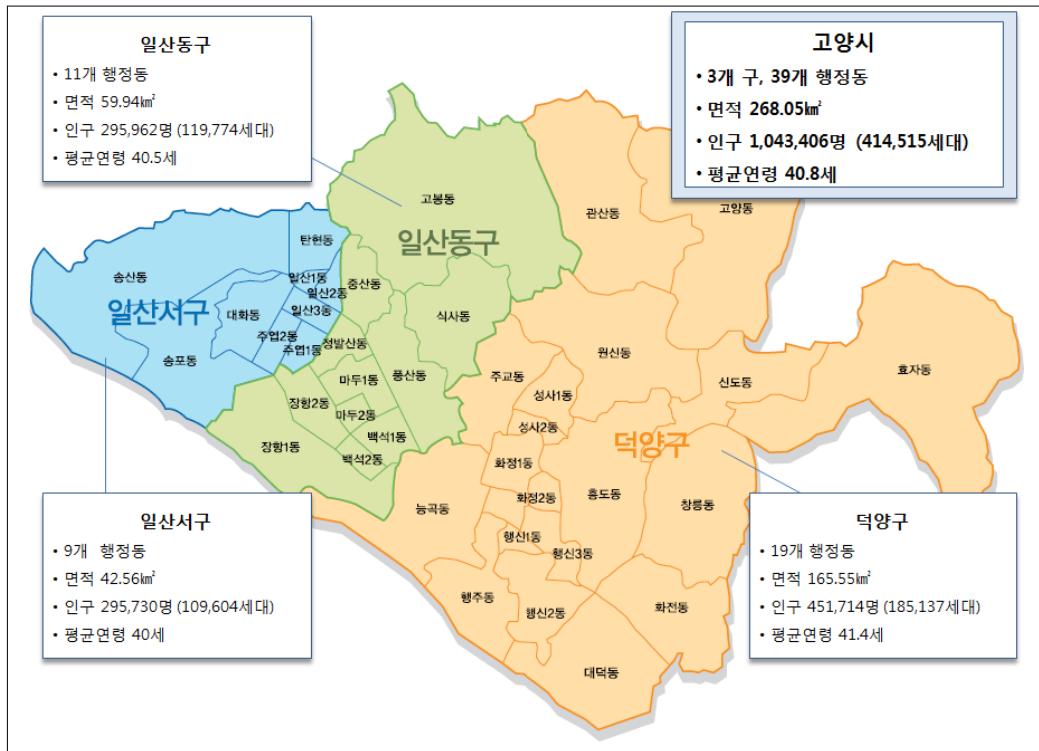
2. 행정구역별 면적 및 인구밀도

1) 고양시 행정구역 현황

- 고양시는 총면적 268.05km², 인구 1,043,406명(414,515세대, 평균연령 40.8세)으로 인구밀도 3,893(명/km²)의 대도시임
- 2018년 8월 현재 총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9개동(975통, 6,068반)의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고 있음
- 1992년 시로 승격된 고양시는 1996년 3월 덕양구와 일산구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5월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리하면서 현재의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체계를 갖춤

[그림 3-1] 고양시 구별 개요(2018.8. 기준)

(단위 :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고양통계연보 2017

- 각 구별 행정구역 현황을 보면 덕양구는 19개 행정동과 457통, 일산동구는 11개 행정동과 276통, 일산서구는 9개 행정동과 244통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3-2] 고양시 행정구역 현황(2018.7. 기준)

(단위 : 개)

| 구분 | 구 | 행정동 | 법정동 | 통 | 반 |
|--------|---|-----|-----|-----|-------|
| 고양시 전체 | 3 | 39 | 53 | 977 | 6,094 |
| 덕양구 | 1 | 19 | 32 | 457 | 2,779 |
| 일산동구 | 1 | 11 | 13 | 276 | 1,756 |
| 일산서구 | 1 | 9 | 8 | 244 | 1,559 |

※ 자료 : 고양시청, 행정구역안내(<http://www.goyang.go.kr/intro/sub01/07/>), 2018.7. 기준

2) 고양시 각 구별 면적 및 인구수

- 고양시 전체 면적은 268.05km²로 덕양구 165.55km²(61.7%), 일산동구 59.94km²(22.4%), 일산서구 42.56km²(15.9%) 순임
 - 고양시 전체 인구는 1,043,406명이며, 덕양구 451,714명(43.3%), 일산동구 295,962명(28.4%), 일산서구 295,730명(28.3%)임(2018년8월 기준)
- 고양시의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2000년 2,994명/km²에서 2010년 3,598명/km²(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2016), 2018년8월 3,893명/km²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
 - 구별 면적 대비 인구수(1km²당)를 보면 덕양구 2,729명/km², 일산동구 4,938명/km², 일산서구 6,949명/km²으로 일산서구의 인구밀도가 높음
 - 이는 일산서구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함(2015년 기준, 고양시 전체 아파트 비율 80.2%, 덕양구 73.7%, 일산동구 78.8%, 일산서구 91.0%임)

[표 3-3] 고양시 구별 면적 및 인구수(2018.8. 기준)

| 구분 | 인구수(명) | 인구비율(%) | 면적(km ²) | 면적비율(%) | 면적 1km ² 당 인구수(명) |
|--------|-----------|---------|----------------------|---------|------------------------------|
| 고양시 전체 | 1,043,406 | 100.0 | 268.05 | 100.0 | 3,893 |
| 덕양구 | 451,714 | 43.3 | 165.55 | 61.8 | 2,729 |
| 일산동구 | 295,962 | 28.4 | 59.94 | 22.4 | 4,938 |
| 일산서구 | 295,730 | 28.3 | 42.56 | 15.9 | 6,949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고양통계연보 2017(전체 면적은 2017.12.기준 수치임).

3) 고양시 각 행정동별 면적 및 인구수

- 행정동별 인구분포를 보면 도시개발과 주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일산서구의 송산동, 탄현동, 행신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덕양구의 행신3동, 하늘마을단지 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일산동구의 중산동 등에 인구가 집중하여 분포함
 - 일산서구 송산동(49,954명), 탄현동(49,035명), 덕양구 행신3동(48,534명), 일산동구 중산동(47,789명)에 45,000명 이상의 인구가 분포함
 - 덕양구 효자동(2,468명), 대덕동(2,415명), 일산동구 장항1동(3,019명)은 2018년 8월 현재 5,000명 미만의 인구가 분포함. 그러나 이 지역은 지축·향동·덕은지구의 택지 개발과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 등으로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동별 면적 대비 인구수(1km²당)를 보면 일산서구 일산1동(45,015명/km²), 일산3동 (33,516명/km²), 주엽2동(32,261명/km²), 주엽1동(30,198명/km²)과 덕양구 행신1동 (34,268명/km²)의 인구밀도가 높음
 -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5,000명 미만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효자동(97명/km²), 대덕동(224명/km²), 장항1동(294명/km²)임

[표 3-4] 고양시 행정동별 면적 및 인구수(2018.8. 기준)

| 구 | 행정동 | 인구수 (명) | 인구비율 (%) | 면적 (km ²) | 면적비율 (%) | 면적 1km ² 당 인구수(명) |
|------|------|------------|-------------|--------------------------|-------------|---------------------------------|
| 덕양구 | 주교동 | 16,628 | 1.6 | 5.62 | 2.1 | 2,959 |
| | 원신동 | 24,139 | 2.3 | 12.69 | 4.7 | 1,902 |
| | 홍도동 | 41,470 | 4.0 | 11.32 | 4.2 | 3,663 |
| | 성사1동 | 24,064 | 2.3 | 2.19 | 0.8 | 10,988 |
| | 성사2동 | 12,071 | 1.2 | 0.92 | 0.3 | 13,121 |
| | 효자동 | 2,468 | 0.2 | 25.35 | 9.5 | 97 |
| | 신도동 | 19,639 | 1.9 | 6.76 | 2.5 | 2,905 |
| | 창릉동 | 14,520 | 1.4 | 11.57 | 4.3 | 1,255 |
| | 고양동 | 32,137 | 3.1 | 25.04 | 9.3 | 1,283 |
| | 관산동 | 36,354 | 3.5 | 15.05 | 5.6 | 2,416 |
| | 능곡동 | 17,813 | 1.7 | 13.78 | 5.1 | 1,293 |
| | 화정1동 | 40,122 | 3.8 | 2.31 | 0.9 | 17,369 |
| | 화정2동 | 34,623 | 3.3 | 1.94 | 0.7 | 17,847 |
| | 행주동 | 21,098 | 2.0 | 6.01 | 2.2 | 3,510 |
| | 행신1동 | 23,645 | 2.3 | 0.69 | 0.3 | 34,268 |
| | 행신2동 | 34,139 | 3.3 | 4.28 | 1.6 | 7,976 |
| | 행신3동 | 48,534 | 4.7 | 1.94 | 0.7 | 25,018 |
| | 화전동 | 5,835 | 0.6 | 7.3 | 2.7 | 799 |
| | 대덕동 | 2,415 | 0.2 | 10.79 | 4.0 | 224 |
| 일산동구 | 식사동 | 34,029 | 3.3 | 6.82 | 2.5 | 4,990 |
| | 중산동 | 47,789 | 4.6 | 2.84 | 1.1 | 16,827 |
| | 정발산동 | 25,824 | 2.5 | 1.53 | 0.6 | 16,878 |
| | 풍산동 | 39,779 | 3.8 | 5.67 | 2.1 | 7,016 |
| | 백석1동 | 32,556 | 3.1 | 1.77 | 0.7 | 18,393 |
| | 백석2동 | 21,697 | 2.1 | 0.8 | 0.3 | 27,121 |
| | 마두1동 | 25,743 | 2.5 | 2.21 | 0.8 | 11,648 |
| | 마두2동 | 17,111 | 1.6 | 0.63 | 0.2 | 27,160 |
| | 장항1동 | 3,019 | 0.3 | 10.28 | 3.8 | 294 |
| | 장항2동 | 26,791 | 2.6 | 2.41 | 0.9 | 11,117 |
| 일산서구 | 고봉동 | 21,624 | 2.1 | 24.98 | 9.3 | 866 |
| | 일산1동 | 29,260 | 2.8 | 0.65 | 0.2 | 45,015 |
| | 일산2동 | 20,157 | 1.9 | 0.82 | 0.3 | 24,582 |
| | 일산3동 | 37,538 | 3.6 | 1.12 | 0.4 | 33,516 |
| | 탄현동 | 49,035 | 4.7 | 2.19 | 0.8 | 22,390 |
| | 주엽1동 | 29,292 | 2.8 | 0.97 | 0.4 | 30,198 |
| | 주엽2동 | 30,971 | 3.0 | 0.96 | 0.4 | 32,261 |
| | 대화동 | 31,647 | 3.0 | 3.52 | 1.3 | 8,991 |
| | 송포동 | 17,876 | 1.7 | 13.17 | 4.9 | 1,357 |
| | 송산동 | 49,954 | 4.8 | 19.16 | 7.1 | 2,607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고양통계연보 2017(면적은 2016.12.기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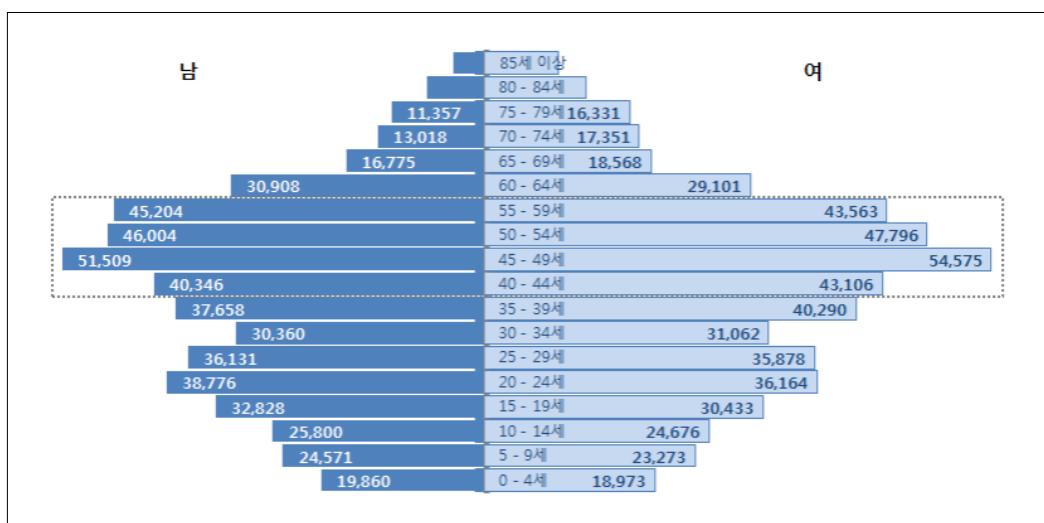
3. 연령별·성별 구성 현황

1) 고양시 전체 연령별·성별 구성 현황

- 고양시 전체 연령별 구성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19.2%), 20~39세(27.4%), 40~59세(35.7%), 60~79세(14.7%), 80세 이상(3.0%)로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음
 - 한국은 UN기준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이미 진입했으나 고양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1.9%인 고령화사회임
- 고양시 전체 성별 구성은 남성(49.1%)보다 여성(50.9%)의 비율이 약간 높음
 - 29세 이하 연령층은 남성(51.1%)의 비율이 여성(48.9%)보다 높음
 - 30~54세 연령층은 여성(51.3%)의 비율이 남성(48.7%)보다 높음
 - 55~64세 연령층은 남성(51.2%)의 비율이 여성(48.8%)보다 높음
 - 65세이상 연령층은 고연령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매우 높음

[그림 3-2] 고양시 전체 연령별·성별 인구 현황(2018.8. 기준)

(단위 :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2) 고양시 각 구별 성별 현황

- 고양시 전체의 성별 구성은 남성 49.1%(511,866명), 여성 50.9%(531,540명)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음
 - 구별 남녀 구성비는 근소한 차이지만 덕양구(50.4%)에 비해 일산동구(51.3%)와 일산서구(51.4%)의 여성 비율이 약간 높은 편임

[표 3-5] 고양시 구별 남녀 구성비(2018.8. 기준)

(단위 : 명, %)

| 구분 | 계 | 남자 | | 여자 | |
|--------|-----------|---------|------|---------|------|
| | | 인구수 | 비율 | 인구수 | 비율 |
| 고양시 전체 | 1,043,406 | 511,866 | 49.1 | 531,540 | 50.9 |
| 덕양구 | 451,714 | 223,960 | 49.6 | 227,754 | 50.4 |
| 일산동구 | 295,962 | 144,232 | 48.7 | 151,730 | 51.3 |
| 일산서구 | 295,730 | 143,674 | 48.6 | 152,056 | 51.4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3) 고양시 각 구별 연령별 현황

(1) 고양시 각 구별 평균연령

- 2018년 8월 기준 고양시 전체의 평균연령은 40.8세로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경기 지역 100만 도시 중 가장 높음
 - 구별로 보면 덕양구 41.4세, 일산동구 40.5세, 일산서구 40.0세로 덕양구의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6] 고양시 구별 평균 연령(2018.8.기준)

(단위 : 세)

| 구분 | 평균연령 | | |
|------|------|------|------|
| | 전체 | 남 | 여 |
| 고양시 | 40.8 | 39.8 | 41.7 |
| 덕양구 | 41.4 | 40.4 | 42.4 |
| 일산동구 | 40.5 | 39.6 | 41.3 |
| 일산서구 | 40.0 | 39.0 | 41.0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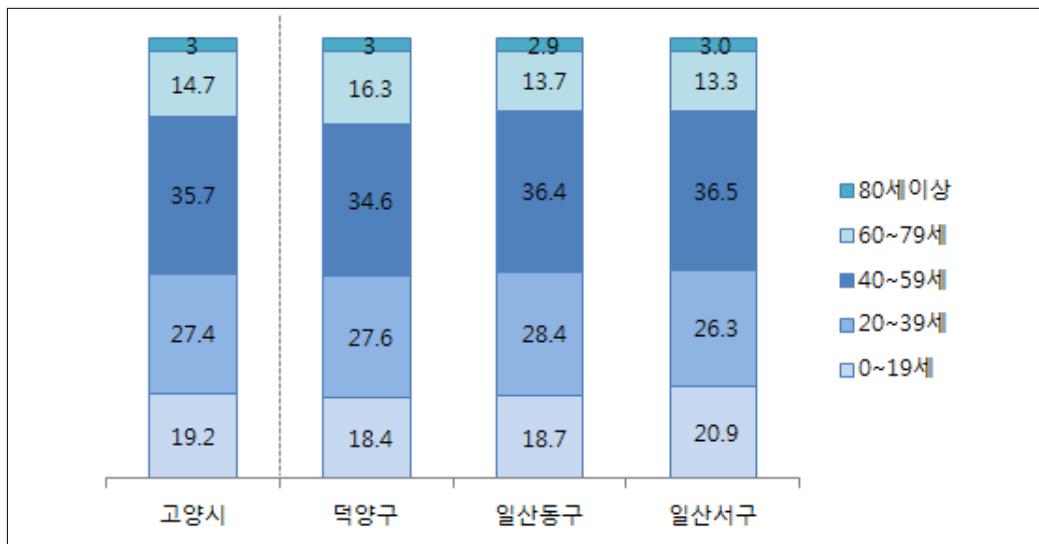
통계청, 인구총조사 : 2017년 기준 고양시 평균연령 40.6세, 중위연령 42.3세임

(2) 고양시 각 구별 연령별 인구분포

- 고양시 각 구별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0~59세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음. 일산서구 36.5%, 일산동구 36.4%, 덕양구 34.6%임
 - 덕양구는 60세 이상 노년인구(19.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일산동구는 16.6%, 일산서구는 16.3%임
 - 일산동구는 20~39세 청년인구(28.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덕양구는 27.6%, 일산서구는 26.3%임
 - 일산서구는 19세 이하 유아동·청소년인구(20.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일산동구는 18.7%, 덕양구는 18.4%임

[그림 3-3] 고양시 구별 연령별 인구 비율(2018.8. 기준)

(단위 :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표 3-7] 고양시 연령별-성별 인구 현황(2018.8. 기준)

(단위 : 명, %)

| 구분 | 계 | | 남성 | | 여성 | |
|--------|-----------|-------|---------|-------|---------|-------|
| | 인구수 | 연령구성비 | 인구수 | 성별구성비 | 인구수 | 성별구성비 |
| 계 | 1,043,406 | 100.0 | 511,866 | 49.1 | 531,540 | 50.9 |
| 0~4세 | 38,833 | 3.7 | 19,860 | 51.1 | 18,973 | 48.9 |
| 5~9세 | 47,844 | 4.6 | 24,571 | 51.4 | 23,273 | 48.6 |
| 10~14세 | 50,476 | 4.8 | 25,800 | 51.1 | 24,676 | 48.9 |
| 15~19세 | 63,261 | 6.1 | 32,828 | 51.9 | 30,433 | 48.1 |
| 유아동청소년 | 200,414 | 19.2 | 103,059 | 51.4 | 97,355 | 48.6 |
| 20~24세 | 74,940 | 7.2 | 38,776 | 51.7 | 36,164 | 48.3 |
| 25~29세 | 72,009 | 6.9 | 36,131 | 50.2 | 35,878 | 49.8 |
| 30~34세 | 61,422 | 5.9 | 30,360 | 49.4 | 31,062 | 50.6 |
| 35~39세 | 77,948 | 7.5 | 37,658 | 48.3 | 40,290 | 51.7 |
| 청년 | 286,319 | 27.4 | 142,925 | 49.9 | 143,394 | 50.1 |
| 40~44세 | 83,452 | 8.0 | 40,346 | 48.3 | 43,106 | 51.7 |
| 45~49세 | 106,084 | 10.2 | 51,509 | 48.6 | 54,575 | 51.4 |
| 50~54세 | 93,800 | 9.0 | 46,004 | 49.0 | 47,796 | 51.0 |
| 55~59세 | 88,767 | 8.5 | 45,204 | 50.9 | 43,563 | 49.1 |
| 중장년 | 372,103 | 35.7 | 183,063 | 49.2 | 189,040 | 50.8 |
| 60~64세 | 60,009 | 5.8 | 30,908 | 51.5 | 29,101 | 48.5 |
| 65~69세 | 35,343 | 3.4 | 16,775 | 47.5 | 18,568 | 52.5 |
| 70~74세 | 30,369 | 2.9 | 13,018 | 42.9 | 17,351 | 57.1 |
| 75~79세 | 27,688 | 2.7 | 11,357 | 41.0 | 16,331 | 59.0 |
| 노년 | 153,409 | 14.7 | 72,058 | 47.0 | 81,351 | 53.0 |
| 80~84세 | 18,703 | 1.8 | 7,003 | 37.4 | 11,700 | 62.6 |
| 85~89세 | 8,625 | 0.8 | 2,763 | 32.0 | 5,862 | 68.0 |
| 90~94세 | 2,816 | 0.3 | 705 | 25.0 | 2,111 | 75.0 |
| 95~99세 | 752 | 0.1 | 220 | 29.3 | 532 | 70.7 |
| 100세이상 | 265 | 0.03 | 70 | 26.4 | 195 | 73.6 |
| 고령층 | 31,161 | 3.0 | 10,761 | 34.5 | 20,400 | 65.5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표 3-8] 고양시 구단위 연령별-성별 인구수(2018.8. 기준)

(단위 : 명, %)

| 구분 | 덕양구 | | | 일산동구 | | | 일산서구 |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계 | 451,714 | 223,960 | 227,754 | 295,962 | 144,232 | 151,730 | 295,730 | 143,674 | 152,056 |
| 0~4세 | 18,339 | 9,383 | 8,956 | 9,975 | 5,098 | 4,877 | 10,519 | 5,379 | 5,140 |
| 5~9세 | 21,050 | 10,836 | 10,214 | 12,700 | 6,545 | 6,155 | 14,094 | 7,190 | 6,904 |
| 10~14세 | 19,794 | 10,087 | 9,707 | 14,269 | 7,306 | 6,963 | 16,413 | 8,407 | 8,006 |
| 15~19세 | 24,065 | 12,558 | 11,507 | 18,454 | 9,610 | 8,844 | 20,742 | 10,660 | 10,082 |
| 유아동 청소년 | 83,248 (18.4) | 42,864 (19.1) | 40,384 (17.7) | 55,398 (18.7) | 28,559 (19.8) | 26,839 (17.7) | 61,768 (20.9) | 31,636 (22.0) | 30,132 (19.8) |
| 20~24세 | 30,167 | 15,709 | 14,458 | 22,347 | 11,400 | 10,947 | 22,426 | 11,667 | 10,759 |
| 25~29세 | 30,303 | 15,410 | 14,893 | 22,087 | 10,850 | 11,237 | 19,619 | 9,871 | 9,748 |
| 30~34세 | 27,995 | 14,075 | 13,920 | 17,867 | 8,752 | 9,115 | 15,560 | 7,533 | 8,027 |
| 35~39세 | 36,042 | 17,955 | 18,087 | 21,645 | 10,220 | 11,425 | 20,261 | 9,483 | 10,778 |
| 청년 | 124,507 (27.6) | 63,149 (28.2) | 61,358 (26.9) | 83,946 (28.4) | 41,222 (28.6) | 42,724 (28.2) | 77,866 (26.3) | 38,554 (26.8) | 39,312 (25.9) |
| 40~44세 | 36,074 | 18,241 | 17,833 | 23,638 | 11,146 | 12,492 | 23,740 | 10,959 | 12,781 |
| 45~49세 | 42,650 | 21,381 | 21,269 | 31,381 | 14,975 | 16,406 | 32,053 | 15,153 | 16,900 |
| 50~54세 | 38,887 | 19,281 | 19,606 | 27,267 | 13,282 | 13,985 | 27,646 | 13,441 | 14,205 |
| 55~59세 | 38,903 | 19,834 | 19,069 | 25,412 | 12,867 | 12,545 | 24,452 | 12,503 | 11,949 |
| 중장년 | 156,514 (34.6) | 78,737 (35.2) | 77,777 (34.1) | 107,698 (36.4) | 52,270 (36.2) | 55,428 (36.5) | 107,891 (36.5) | 52,056 (36.2) | 55,835 (36.7) |
| 60~64세 | 27,897 | 14,152 | 13,745 | 16,599 | 8,645 | 7,954 | 15,513 | 8,111 | 7,402 |
| 65~69세 | 17,467 | 8,253 | 9,214 | 9,175 | 4,444 | 4,731 | 8,701 | 4,078 | 4,623 |
| 70~74세 | 15,090 | 6,550 | 8,540 | 7,653 | 3,313 | 4,340 | 7,626 | 3,155 | 4,471 |
| 75~79세 | 13,230 | 5,560 | 7,670 | 6,972 | 2,830 | 4,142 | 7,486 | 2,967 | 4,519 |
| 노년 | 73,684 (16.3) | 34,515 (15.4) | 39,169 (17.2) | 40,399 (13.7) | 19,232 (13.3) | 21,167 (14.0) | 39,326 (13.3) | 18,311 (12.7) | 21,015 (13.8) |
| 80~84세 | 8,304 | 3,112 | 5,192 | 5,004 | 1,866 | 3,138 | 5,395 | 2,025 | 3,370 |
| 85~89세 | 3,677 | 1,143 | 2,534 | 2,441 | 788 | 1,653 | 2,507 | 832 | 1,675 |
| 90~94세 | 1,276 | 306 | 970 | 795 | 211 | 584 | 745 | 188 | 557 |
| 95~99세 | 330 | 93 | 237 | 232 | 66 | 166 | 190 | 61 | 129 |
| 100세이상 | 174 | 41 | 133 | 49 | 18 | 31 | 42 | 11 | 31 |
| 고령층 | 13,761 (3.0) | 4,695 (2.1) | 9,066 (4.0) | 8,521 (2.9) | 2,949 (2.0) | 5,572 (3.7) | 8,879 (3.0) | 3,117 (2.2) | 5,762 (3.8)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4. 고양시 산업별 인구구조

-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와 인구수 간의 상관계수는 0.985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경기개발연구원, 2008. p24)
 - 이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고양시 역시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수와 인구수 간의 상관관계가 0.9773, 종사자수와 인구수 간의 상관관계가 0.9450로 높아서 사업체수 증가가 인구 증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높음
 - 고양시 산업별 인구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살펴봄

1) 고양시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수

- 2016년 기준 고양시 전체 사업체수는 63,642개로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는 61.2 개(2016년 인구 1,039,684명)임. 사업체 종사자는 305,875명임
 - 덕양구 99,662명, 일산동구 138,673명, 일산서구 67,540명의 분포로 일산동구의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3-9] 고양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6년 기준)

(단위 : 개, 명)

| 구분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
|--------|--------|---------|---------|---------|
| | | 계 | 남자 | 여자 |
| 고양시 전체 | 63,642 | 305,875 | 161,254 | 144,621 |
| 덕양구 | 22,794 | 99,662 | 52,624 | 47,038 |
| 일산동구 | 25,574 | 138,673 | 75,698 | 62,975 |
| 일산서구 | 15,274 | 67,540 | 32,932 | 34,608 |

※ 자료 : 고양시 사업기초통계조사보고서

2) 고양시 각 구별 산업별 종사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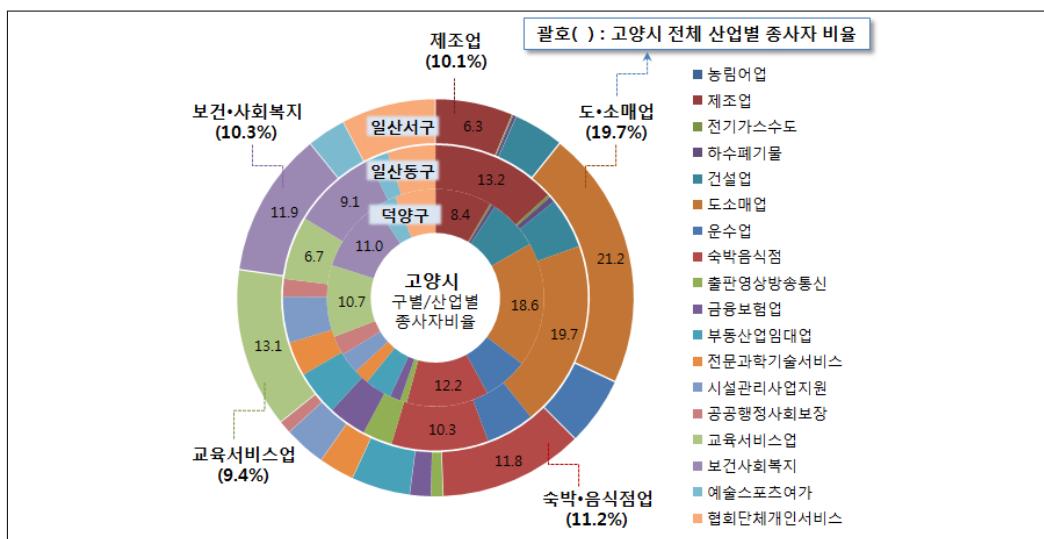
- 2016년 기준 고양시 산업별 사업체수 분포를 보면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전체 40%를 넘어섬

- 도매 및 소매업 27.2%, 숙박 및 음식점업 15.6%,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8%, 제조업 8.6%의 비율임

- 고양시 전체의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도매 및 소매업 19.7%, 숙박 및 음식점업 1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3%, 제조업 10.1%의 비율을 보임
- 구별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모든 구에서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 순으로 일산서구는 교육서비스업, 일산동구는 제조업, 덕양구는 숙박·음식점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산서구는 도·소매업(21.2%), 교육서비스업(13.1%)의 비중이 높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1.9%, 숙박·음식점업은 11.8%임
- 일산동구는 도·소매업(19.7%), 제조업(13.2%)의 종사자 비율이 높음. 숙박·음식점업은 10.3%,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9.1%임
- 덕양구는 도·소매업(18.6%), 숙박·음식점업(12.2%)의 종사자 비율이 높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1.0%, 교육서비스업은 10.7%임

[그림 3-4] 고양시 구별·산업별 종사자 비율

(단위 : %)



※ 자료 : 고양시 사업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17 (2016년 기준)

*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시각화 한 것으로 원의 면적이 해당 구의 종사자 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표 3-10] 고양시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6년 기준)

(단위 : 개소, 명, %)

| 연도 | 고양시 | | 덕양구 | | 일산동구 | | 일산서구 |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계 | 63,642 | 305,875 | 22,794 | 99,662 | 25,574 | 138,673 | 15,274 | 67,540 |
| 농림어업 | 6 (0.01) | 39 (0.01) | 1 (0.004) | 19 (0.02) | 3 (0.01) | 13 (0.01) | 2 (0.01) | 7 (0.01) |
| 제조업 | 5,453 (8.6) | 30,993 (10.1) | 1,401 (6.1) | 8,365 (8.4) | 3,120 (12.2) | 18,358 (13.2) | 932 (6.1) | 4,270 (6.3) |
| 전기가스수도 | 17 (0.03) | 705 (0.2) | 4 (0.02) | 242 (0.2) | 7 (0.03) | 395 (0.3) | 6 (0.04) | 68 (0.1) |
| 하수폐기물 | 98 (0.2) | 1,581 (0.5) | 47 (0.2) | 551 (0.6) | 38 (0.1) | 866 (0.6) | 13 (0.1) | 164 (0.2) |
| 건설업 | 2,079 (3.3) | 17,737 (5.8) | 875 (3.8) | 7,550 (7.6) | 812 (7.2) | 7,436 (5.4) | 392 (2.6) | 2,751 (4.1) |
| 도소매업 | 17,289 (27.2) | 60,212 (19.7) | 5,770 (25.3) | 18,515 (18.6) | 7,248 (28.3) | 27,355 (19.7) | 4,271 (28.0) | 14,342 (21.2) |
| 운수업 | 5,898 (9.3) | 17,566 (5.7) | 2,502 (11.0) | 6,676 (6.7) | 1,906 (7.5) | 7,132 (5.1) | 1,490 (9.8) | 3,758 (5.6) |
| 숙박·음식점업 | 9,949 (15.6) | 34,408 (11.2) | 3,888 (17.1) | 12,168 (12.2) | 3,748 (14.7) | 14,238 (10.3) | 2,313 (15.1) | 8,002 (11.8) |
| 출판영상· 방송통신 | 860 (1.4) | 6,025 (2.0) | 192 (0.8) | 1,011 (1.0) | 564 (2.2) | 4,366 (3.1) | 104 (0.7) | 648 (1.0) |
| 금융보험업 | 573 (0.9) | 8,360 (2.7) | 138 (0.6) | 1,583 (1.6) | 337 (1.3) | 5,620 (4.1) | 98 (0.6) | 1,157 (1.7) |
| 부동산·임대업 | 3,317 (5.2) | 13,830 (4.5) | 1,217 (5.3) | 3,977 (4.0) | 1,267 (5.0) | 6,606 (4.8) | 833 (5.5) | 3,247 (4.8)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 1,663 (2.6) | 9,241 (3.0) | 448 (2.0) | 2,265 (2.3) | 991 (3.9) | 5,019 (3.6) | 224 (1.5) | 1,957 (2.9) |
| 시설관리· 사업지원 | 815 (1.3) | 12,197 (4.0) | 251 (1.1) | 3,127 (3.1) | 380 (1.5) | 6,759 (4.9) | 184 (1.2) | 2,311 (3.4) |
| 공공행정· 사회보장 | 106 (0.2) | 6,143 (2.0) | 52 (0.2) | 2,867 (2.9) | 39 (0.2) | 2,592 (1.9) | 15 (0.1) | 684 (1.0) |
| 교육서비스 | 4,058 (6.4) | 28,797 (9.4) | 1,429 (6.3) | 10,677 (10.7) | 1,286 (5.0) | 9,296 (6.7) | 1,343 (8.8) | 8,824 (13.1) |
| 보건·사회복지 | 2,548 (4.0) | 31,607 (10.3) | 1,028 (4.5) | 10,945 (11.0) | 754 (2.9) | 12,638 (9.1) | 766 (5.0) | 8,024 (11.9) |
| 예술·스포츠· 여가 | 2,065 (3.2) | 8,185 (2.7) | 807 (3.5) | 3,129 (3.1) | 762 (3.0) | 2,946 (2.1) | 496 (3.2) | 2,110 (3.1) |
| 협회단체·개인 서비스 | 6,848 (10.8) | 18,249 (6.0) | 2,744 (12.0) | 5,995 (6.0) | 2,312 (9.0) | 7,038 (5.1) | 1,792 (11.7) | 5,216 (7.7) |

※ 자료 : 고양시 사업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17 (2016년 기준)

5. 기타 고양시 인구 특성

1) 학교별 학생수

- 고양시내 전체 학교수는 354개, 재학중인 학생수는 150,214명임(2017.4.1.기준)
 - 학교수는 2006년 288개에서 2017년 354개로 증가하였으나 학생수는 2006년 188,387명에서 2017년 150,214명으로 감소함.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고양시 전체 인구수(1,041,983명) 대비 학생수(150,214명)는 14.4%의 비중을 차지함. 2006년은 전체 인구수 대비 학생수 비중이 20.7%임
 - 유치원생 15,028명(10.0%), 초등학생 54,567명(36.3%), 중학생 30,157명(20.1%), 고등학생 36,775명(24.5%)의 분포를 보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명임

[표 3-11] 고양시 학교별 학생수 및 학교수(2017.4.1. 기준)

(단위 : 개, 명, %)

| 구분 | 학교 | | 학생 | |
|------|--------|-------|---------|-------|
| | 학교수(개) | 비율(%) | 학생수(명) | 비율(%) |
| 계 | 354 | 100.0 | 150,214 | 100.0 |
| 유치원 | 175 | 49.4 | 15,028 | 10.0 |
| 초등학교 | 83 | 23.4 | 54,567 | 36.3 |
| 중학교 | 41 | 11.6 | 30,157 | 20.1 |
| 고등학교 | 36 | 10.2 | 36,775 | 24.5 |
| 전문대학 | 1 | 0.3 | 556 | 0.4 |
| 대학교 | 3 | 0.8 | 10,827 | 7.2 |
| 대학원 | 9 | 2.5 | 1,543 | 1.0 |
| 기타학교 | 6 | 1.7 | 861 | 0.6 |

※ 자료 : 고양시, '2017 고양통계연보' (2016.12.31.기준. 단, 교육에 관한 사항은 2017.4.1.기준)

2) 의료시설 및 의료인수

- 고양시내 전체 의료기관은 1,134개소, 의료인수는 12,499명임(2016.12.31.기준)
 - 고양시 전체 의료인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의사 1인당 476명, 치과의사 1인당 2,285명, 한의사 1인당 2,818명, 간호사(조무사포함) 1인당 151명의 인구를 의료함
 - 구 별로 보면 일산동구에 종합병원 3개(병상수 1,932개), 병원 11개(병상수 1,126개)가 분포하고 있어서 전체 의료인의 절반가량인 6,104명이 일산동구에 종사함. 덕양구와 일산서구에는 종합병원이 각각 1개씩 있으며, 덕양구는 3,335명, 일산서구는 3,060명의 의료인이 종사함

[표 3-12] 고양시 의료시설 및 의료인수(2016.12.31. 기준)

(단위 : 개소, 명, %)

| 구분 | 의료시설 | | 구분 | 의료인 | |
|---|----------|-------|----------|---------|-------|
| | 의료시설(개소) | 비율(%) | | 의료인수(명) | 비율(%) |
| 계 | 1,134 | 100.0 | 계 | 12,499 | 100.0 |
| 종합병원 | 5 | 0.4 | 의사 | 2,186 | 17.5 |
| 병원 | 20 | 1.8 | 간호사, 조무사 | 6,895 | 55.2 |
| 의원 | 519 | 45.8 | 의료기사 | 2,327 | 18.6 |
| 치과병(의)원 | 304 | 26.8 | 치과의사 | 455 | 3.6 |
| 한방병(의)원 | 2 | 0.2 | 한의사 | 369 | 3.0 |
| 기타 | 284 | 25.0 | 조산사 | 19 | 0.2 |
| ※ 자료 : 고양시, '2017 고양통계연보' (2016.12.31.기준) | | | | | |

3) 주요 관공서 및 공무원수

- 고양시내 공무원 정원은 총 2,564명(2016.12.31.기준)
 - 공무원 1인당 인구는 405명, 소방대원 1인당 인구는 2,511명임

[표 3-13] 고양시 공무원수(2016.12.31. 기준)

(단위 : 개소, 명, %)

| 구분 | 관공서 및 주요기관 | | 구분 | 공무원 | |
|---------|------------|-------|------|---------|-------|
| | 기관수(개소) | 비율(%) | | 공무원수(명) | 비율(%) |
| 계 | 135 | 100.0 | 계 | 2,564 | 100.0 |
| 지방행정관서 | 54 | 40.0 | 본청 | 750 | 29.3 |
| 경찰관서 | 19 | 14.1 | 구 | 744 | 29.0 |
| 소방관서 | 12 | 8.9 | 동 | 471 | 18.4 |
| 법원·검찰관서 | 3 | 2.2 | 사업소 | 393 | 15.3 |
| 교육청 | 1 | 0.7 | 직속기관 | 170 | 6.6 |
| 우체국관서 | 31 | 23.0 | 의회 | 36 | 1.4 |
| 기타 | 15 | 11.1 | | | |

※ 자료 : 고양시, '2017 고양통계연보' (2016.12.31. 기준)

4)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 고양시 15세 이상 인구 중 혼인상태별 인구 현황을 보면 유배우 비율은 57.8%, 미혼 31.0%, 사별 6.0%, 이혼 5.1%의 비중을 보임(2015년 기준)
 - 이는 2005년에 비해 유배우 비율은 6.3% 감소, 미혼 비율은 3.6% 증가, 이혼 비율은 2.4% 증가한 수치임

[표 3-14] 고양시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단위 : 명, %)

| 구분 | 총계 | 유배우 | 사별 | 이혼 | 미혼 |
|------|--------------------|-------------------|-----------------|-----------------|-------------------|
| 2005 | 667,467 (100.0) | 428,080 (64.1) | 38,596 (5.8) | 17,988 (2.7) | 182,803 (27.4) |
| 2010 | 736,149 (100.0) | 439,935 (59.8) | 43,344 (5.9) | 29,402 (4.0) | 223,468 (30.4) |
| 2015 | 828,920 (100.0) | 479,466 (57.8) | 49,824 (6.0) | 42,454 (5.1) | 257,176 (31.0) |

※ 자료 : 고양시, '2017 고양통계연보' (원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 외국인 등록 인구

- 고양시의 외국인 등록 인구는 2006년 9,159명에서 2016년 12,286명으로 증가함
 - 고양시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2006년 1.01%, 2016년 1.18%임
 - 각 구별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는 일산동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5] 고양시 외국인 등록 인구(2016년 기준)

(단위 : 명)

| 구분 | 계 | 외국인 등록 인구 | |
|--------|--------|-----------|-------|
| | | 남자 | 여자 |
| 고양시 전체 | 12,286 | 6,288 | 5,998 |
| 덕양구 | 4,824 | 2,286 | 2,538 |
| 일산동구 | 4,159 | 2,366 | 1,793 |
| 일산서구 | 3,303 | 1,636 | 1,667 |

※ 자료 : 고양시, '2017 고양통계연보' (2016.12.31.기준)

6) 사회보장 관련 인구

- 2016년 기준 고양시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328,735명(국민연금 수급자 65,596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967명임
 - 고양시의 국민연금 총가입자수는 2006년 234,298명에서 2016년 328,735명으로 증가함.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2006년 23,587명에서 2016년 65,596명으로 증가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총수급자는 2006년 13,023명에서 2016년 20,967명으로 증가함(2015년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 전환으로 수급자 수 증가)
 -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은 2006년 3,202명(1,225가구)에서 2016년 8,573명(3,508가구)으로 증가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는 2006년 1,260명(478가구)에서 2016년 4,095명(1,193가구)으로 증가함
 - 국가보훈대상자는 2006년 5,202명에서 2016년 7,474명으로 증가함

- 등록 장애인은 2006년 27,184명에서 2016년 38,21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임(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p383)
- 등록 자원봉사자는 2006년 26,102명에서 2016년 187,431명으로 대폭 증가함

[표 3-16] 고양시 사회보장 관련 인구(2016년 기준)

(단위 : 명, %)

| 구분 | 2006년 | 2016년 | 10년간 증가 인원수 |
|--------------|------------------|------------------|-------------|
| 국민연금 수급자 | 23,587 (2.59) | 65,596 (6.31) | 42,009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3,023 (1.43) | 20,967 (2.02) | 7,944 |
|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 1,260 (0.14) | 4,095 (0.39) | 2,835 |
| 국가보훈대상자 | 5,202 (0.57) | 7,474 (0.72) | 2,272 |
| 등록 장애인 | 27,184 (2.99) | 38,215 (3.68) | 11,031 |

* 자료 : 고양시, '2017 고양통계연보' (2016.12.31.기준) / '2014 고양통계연보' (2012.12.31. 기준)
괄호() 안 수치는 해당 연도 전체 인구 대비 비율임

제2절 고양시 인구변화 분석

1. 고양시 인구 변화 – 과거 추이 및 장래 추계

1) 인구구조 변화

- 2018년 8월, 고양시 전체 인구는 1,043,406명임. 유소년인구(0~14세) 13.1%, 생산가능인구(15~64세) 74.9%, 고령인구(65세 이상) 11.9%의 고령화사회임
- 2000년 고양시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 25.9%, 생산가능인구 68.4%, 고령인구 5.7%의 짚은 도시였음.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증가하여 2018년 현재 유소년인구 비율은 약 절반 정도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함
- 2035년까지 고양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는 노년부양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짐
-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35년 고양시는 유소년인구 11.7%, 생산가능인구 61.6%, 고령인구 26.7%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3-17]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2000~2035)

(단위 : 명, %)

| 구분 | | 2000 | 2010 | 2018.8. | 2020 | 2030 | 2035 | |
|------|--------------------|------|---------|---------|-----------|-----------|-----------|-----------|
| 인구구조 | 총인구 | 인구수 | 797,597 | 950,115 | 1,043,406 | 1,056,987 | 1,132,639 | 1,145,093 |
| | 유소년인구 (0~14세) | 인구수 | 206,320 | 166,752 | 137,153 | 136,612 | 133,909 | 133,798 |
| | 생산가능인구 (15~64세) | 인구수 | 545,652 | 697,897 | 781,692 | 779,023 | 746,128 | 705,608 |
| | 고령인구 (65세 이상) | 인구수 | 45,625 | 85,466 | 124,561 | 141,352 | 252,602 | 305,687 |
| | | 비율 | 5.7 | 9.0 | 11.9 | 13.4 | 22.3 | 2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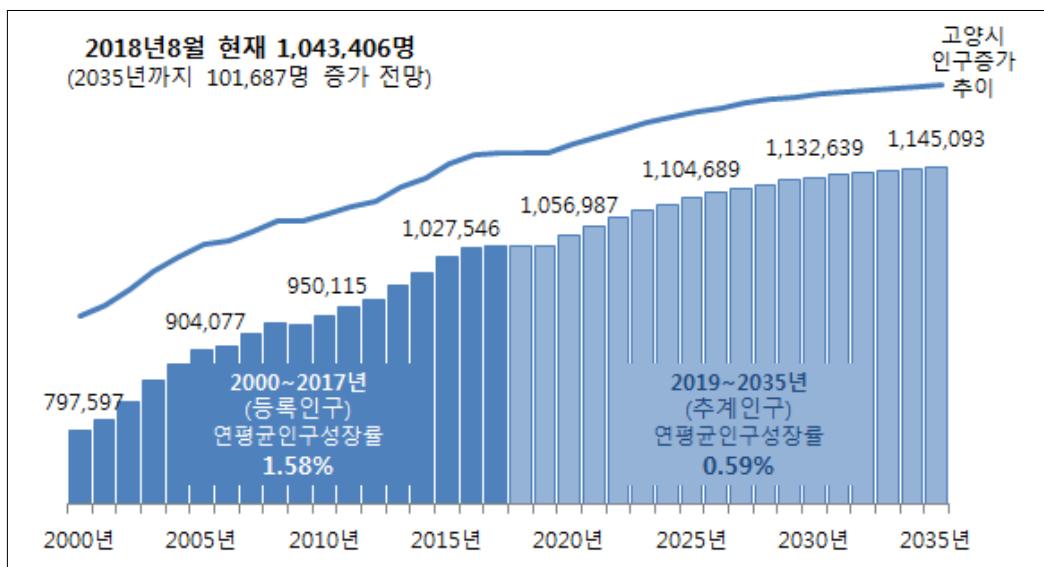
2) 인구 증가 추이 및 인구성장률

(1) 고양시 전체 인구 증가 추이 및 인구성장률

- 2018년 8월 현재 1,043,406명인 고양시 인구는 2035년 1,145,093명으로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할 전망임(경기도 장래인구 추계 2015~2035)
 - 1992년 시로 승격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14년도에 1,006,154명으로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함
 - 인구성장률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플러스 성장(2019~2035년 연평균 0.59%)이므로 2035년까지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5] 고양시 인구 증가 추이(2000~2035)

(단위 :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 20세 단위로 연령을 구분하여 볼 때, 2000년 0~39세 젊은층의 비율이 71.6%였던 것에 비해 2015년 49.2%로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2035년 36.3%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추세는 타 시도 비슷하지만 고양시의 비율 저하가 가장 큼

[표 3-18] 고양시 연도별 인구 변화 및 인구성장률(2002~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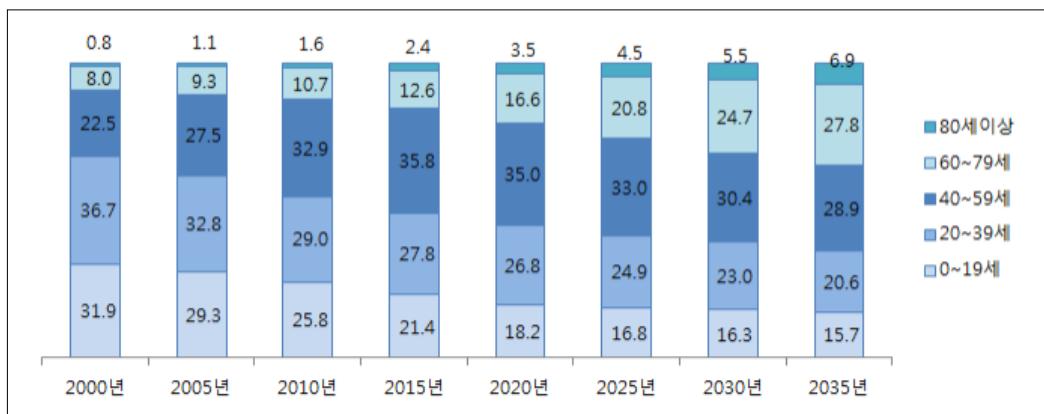
(단위 : 명, %)

| 연도 | 주민등록인구 | 인구성장률 | 연도 | 추계인구 | 인구성장률 |
|---------|-----------|-------|-------|-----------|-------|
| 2000년 | 797,597 | - | 2019년 | 1,042,523 | 1.53 |
| 2001년 | 811,467 | 1.71 | 2020년 | 1,056,987 | 1.38 |
| 2002년 | 836,664 | 3.01 | 2021년 | 1,068,491 | 1.08 |
| 2003년 | 865,077 | 3.28 | 2022년 | 1,078,927 | 0.97 |
| 2004년 | 886,000 | 2.36 | 2023년 | 1,088,382 | 0.87 |
| 2005년 | 904,077 | 2.00 | 2024년 | 1,096,949 | 0.78 |
| 2006년 | 910,206 | 0.67 | 2025년 | 1,104,689 | 0.70 |
| 2007년 | 924,839 | 1.58 | 2026년 | 1,111,646 | 0.63 |
| 2008년 | 938,831 | 1.49 | 2027년 | 1,117,889 | 0.56 |
| 2009년 | 938,784 | -0.01 | 2028년 | 1,123,448 | 0.50 |
| 2010년 | 950,115 | 1.19 | 2029년 | 1,128,345 | 0.43 |
| 2011년 | 961,239 | 1.16 | 2030년 | 1,132,639 | 0.38 |
| 2012년 | 969,916 | 0.89 | 2031년 | 1,136,300 | 0.32 |
| 2013년 | 990,571 | 2.09 | 2032년 | 1,139,388 | 0.27 |
| 2014년 | 1,006,154 | 1.55 | 2033년 | 1,141,894 | 0.22 |
| 2015년 | 1,027,546 | 2.08 | 2034년 | 1,143,803 | 0.17 |
| 2016년 | 1,039,684 | 1.17 | 2035년 | 1,145,093 | 0.11 |
| 2017년 | 1,041,983 | 0.22 | | | |
| 2018년8월 | 1,043,406 | 0.14 | | |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그림 3-6] 고양시 20세 단위 연령 비율 변화(2000~2035)

(단위 :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2015~2035)

2000~2015년은 주민등록인구, 2020~2035년은 추계인구임.

[표 3-19] 고양시 5세 단위 연령별 인구 변화(2000~2035)

(단위 : 명, %)

| 구분 | 2000년 | 2010년 | 2018.8. | 2020년 | 2030년 | 2035년 |
|------------|--------------------|--------------------|----------------------|----------------------|----------------------|----------------------|
| 계 | 797,597 (100.0) | 950,115 (100.0) | 1,043,406 (100.0) | 1,056,987 (100.0) | 1,132,639 (100.0) | 1,145,093 (100.0) |
| 0~4세 | 65,933 | 43,212 | 38,833 | 40,515 | 43,937 | 41,851 |
| 5~9세 | 79,140 | 51,430 | 47,844 | 47,639 | 44,713 | 45,835 |
| 10~14세 | 61,247 | 72,110 | 50,476 | 48,458 | 45,259 | 46,112 |
| 15~19세 | 48,208 | 78,753 | 63,261 | 55,280 | 50,655 | 45,840 |
| 유아동 청소년 | 254,528 (31.9) | 245,505 (25.8) | 200,414 (19.2) | 191,892 (18.2) | 184,564 (16.3) | 179,638 (15.7) |
| 20~24세 | 41,703 | 59,059 | 74,940 | 69,493 | 51,075 | 51,715 |
| 25~29세 | 65,704 | 58,384 | 72,009 | 72,455 | 58,247 | 52,079 |
| 30~34세 | 89,228 | 66,445 | 61,422 | 64,252 | 72,772 | 57,163 |
| 35~39세 | 96,358 | 91,338 | 77,948 | 76,739 | 78,919 | 75,501 |
| 청년 | 292,993 (36.7) | 275,226 (29.0) | 286,319 (27.4) | 282,939 (26.8) | 261,013 (23.0) | 236,458 (20.6) |
| 40~44세 | 78,881 | 100,425 | 83,452 | 81,344 | 73,976 | 83,094 |
| 45~49세 | 42,932 | 94,604 | 106,084 | 100,374 | 87,099 | 76,361 |
| 50~54세 | 30,252 | 74,889 | 93,800 | 98,183 | 86,455 | 87,740 |
| 55~59세 | 27,447 | 42,550 | 88,767 | 90,000 | 97,241 | 84,256 |
| 중장년 | 179,512 (22.5) | 312,468 (32.9) | 372,103 (35.7) | 369,901 (35.0) | 344,771 (30.4) | 331,451 (28.9) |
| 60~64세 | 24,939 | 31,450 | 60,009 | 70,903 | 89,689 | 91,859 |
| 65~69세 | 18,894 | 28,527 | 35,343 | 42,601 | 80,832 | 84,206 |
| 70~74세 | 12,224 | 25,009 | 30,369 | 33,104 | 67,006 | 77,825 |
| 75~79세 | 7,778 | 16,949 | 27,688 | 28,683 | 42,552 | 64,736 |
| 노년 | 63,835 (8.0) | 101,935 (10.7) | 153,409 (14.7) | 175,291 (16.6) | 280,079 (24.7) | 318,626 (27.8) |
| 80~84세 | 4,114 | 9,069 | 18,703 | 21,243 | 30,060 | 39,276 |
| 85~89세 | 1,885 | 4,170 | 8,625 | 10,906 | 20,091 | 23,805 |
| 90~94세 | 607 | 1,277 | 2,816 | 3,882 | 9,446 | 11,857 |
| 95세 이상 | 123 | 465 | 1,017 | 933 | 2,615 | 3,982 |
| 최고령 | 6,729 (0.8) | 14,981 (1.6) | 31,161 (3.0) | 36,964 (3.5) | 62,212 (5.5) | 78,920 (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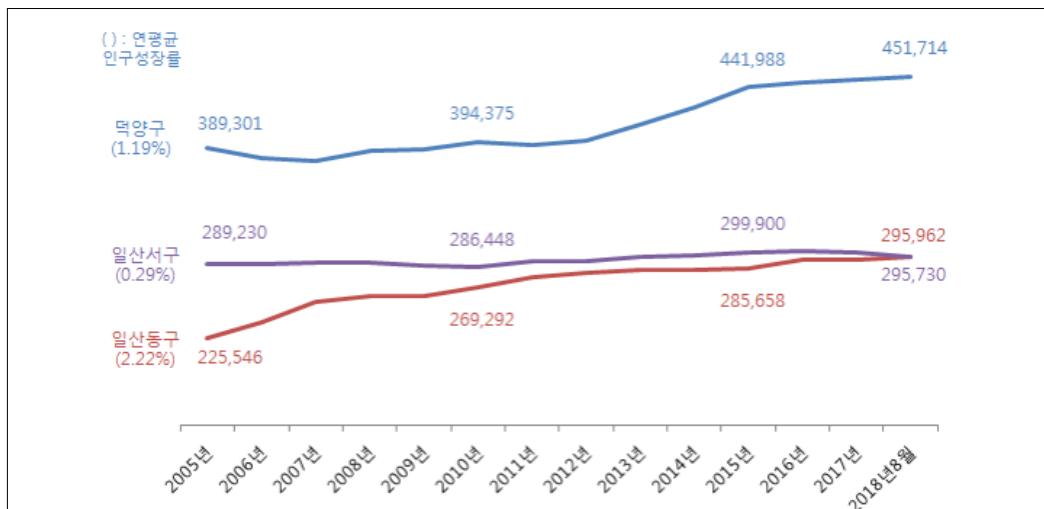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2) 고양시 각 구별 인구 증가 추이 및 인구성장률

- 고양시는 2005년 5월,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체계를 갖춤
 - 1996년 3월 덕양구와 일산구 설치 후, 2005년 5월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리하면서 현재의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체계를 갖춤
- 2005년~2017년 연평균 인구성장률은 일산동구 2.22%, 덕양구 1.19%, 일산서구 0.29% 순으로 타 구에 비해 일산동구의 인구증가폭이 큰 편임
 - 2005년 덕양구 389,301명, 일산동구 225,546명, 일산서구 289,230명이었으나 2018년 8월 현재, 덕양구 451,714명, 일산동구 295,962명, 일산서구 295,730명으로 일산동구의 인구가 일산서구의 인구보다 많아짐
 - 일산동구와 서구가 분리된 200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13년간 인구 증가폭을 보면 덕양구는 62,413명, 일산동구는 70,416명 증가하였으며, 일산서구는 6,500명 증가하는데 그침

[그림 3-7] 고양시 구별 인구 증가 추이(2005~2018.8.)

(단위 :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표 3-20] 고양시 구별 인구 변화 및 인구성장률(2005~2018.8.)

(단위 : 명, %)

| 연도 | 고양시 | | 덕양구 | | 일산동구 | | 일산서구 | |
|---------|-----------|-------|---------|-------|---------|------|---------|-------|
| | 인구수 | 성장률 | 인구수 | 성장률 | 인구수 | 성장률 | 인구수 | 성장률 |
| 2005년 | 904,077 | 2.00 | 389,301 | . | 225,546 | . | 289,230 | . |
| 2006년 | 910,206 | 0.67 | 381,105 | -2.15 | 239,632 | 5.88 | 289,469 | 0.08 |
| 2007년 | 924,839 | 1.58 | 378,260 | -0.75 | 256,493 | 6.57 | 290,086 | 0.21 |
| 2008년 | 938,831 | 1.49 | 386,817 | 2.21 | 261,358 | 1.86 | 290,656 | 0.20 |
| 2009년 | 938,784 | -0.01 | 388,777 | 0.50 | 261,943 | 0.22 | 288,064 | -0.90 |
| 2010년 | 950,115 | 1.19 | 394,375 | 1.42 | 269,292 | 2.73 | 286,448 | -0.56 |
| 2011년 | 961,239 | 1.16 | 391,832 | -0.65 | 278,095 | 3.17 | 291,312 | 1.67 |
| 2012년 | 969,916 | 0.89 | 396,559 | 1.19 | 281,949 | 1.37 | 291,408 | 0.03 |
| 2013년 | 990,571 | 2.09 | 410,491 | 3.39 | 283,976 | 0.71 | 296,104 | 1.59 |
| 2014년 | 1,006,154 | 1.55 | 424,423 | 3.28 | 284,207 | 0.08 | 297,524 | 0.48 |
| 2015년 | 1,027,546 | 2.08 | 441,988 | 3.97 | 285,658 | 0.51 | 299,900 | 0.79 |
| 2016년 | 1,039,684 | 1.17 | 446,233 | 0.95 | 292,612 | 2.38 | 300,839 | 0.31 |
| 2017년 | 1,041,983 | 0.22 | 448,684 | 0.55 | 293,673 | 0.36 | 299,626 | -0.40 |
| 2018.8. | 1,043,406 | 0.14 | 451,714 | 0.67 | 295,962 | 0.77 | 295,730 | -1.32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고양시는 2005년에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체계를 갖춤

(3) 고양시 각 동별 인구 변화

-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체계가 갖추어진 2005년부터 현 시점인 2018년 8월까지의 인구변화를 동별로 살펴봄(2005년 → 2018년8월, 인구변화)

- 덕양구는 삼송원홍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인 원신동, 홍도동, 신도동, 창릉동 등 4개동과 고양동, 관산동, 행신3동의 인구가 많이 증가함
 - 원신동은 20,159명 증가(3,980명 → 24,139명), 홍도동은 35,932명 증가(5,538명 → 41,470명), 신도동은 10,111명 증가(9,528명 → 19,639명), 창릉동은 7,604명 증가(6,916명 → 14,520명)함

-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인 고양동은 8,898명 증가(23,239명 → 32,137명), 관산동은 9,795명 증가(26,559명 → 36,354명)함
- 행신3동은 8,028명 증가(40,506명 → 48,534명), 성사1동은 2,412명 증가(21,652명 → 24,064명)함
- 그 외 덕양구의 나머지 11개 동은 2005년 대비 2018년 인구가 감소함

○ 일산동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식사동, 중산동, 풍산동의 인구증가가 많음

- 위시티단지가 개발된 식사동은 26,189명 증가(7,840명 → 34,029명), 하늘마을단지가 개발된 중산동은 17,905명 증가(29,884명 → 47,789명), 숲속마을단지가 개발된 풍산동은 24,631명 증가(15,148명 → 39,779명)함
- 고봉동은 7,096명 증가, 백석동은 3,853명 증가, 장항2동은 1,672명 증가하였으며, 정발산·마두1·마두2·장항1동은 인구가 감소함

○ 일산서구는 송산동, 탄현동을 제외한 모든 동의 인구가 줄어듦

- 가좌마을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송산동은 24,431명 증가(25,523명 → 49,954명), 두산위브더제니스가 들어선 탄현동은 5,905명 증가(43,130명 → 49,035명)함
- 일산3·주엽1·주엽2동은 약 5천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일산1·일산2·대화동도 인구가 감소함

[표 3-21] 고양시 행정동별 인구 변화

(단위 : 명)

| 구 | 행정동 | 2005년 | 2018년8월 | 인구 증감 | 비고 |
|------|------|--------|---------|----------|---------------------------|
| 덕양구 | 주교동 | 20,118 | 16,628 | (-)3,490 | |
| | 원신동 | 3,980 | 24,139 | 20,159 | 2만명이상 증가 |
| | 홍도동 | 5,538 | 41,470 | 35,932 | 2만명이상 증가 |
| | 성서1동 | 21,652 | 24,064 | 2,412 | |
| | 성서2동 | 14,006 | 12,071 | (-)1,935 | |
| | 효자동 | 7,741 | 2,468 | (-)5,273 | 5천명이상 감소 |
| | 신도동 | 9,528 | 19,639 | 10,111 | |
| | 창릉동 | 6,916 | 14,520 | 7,604 | |
| | 고양동 | 23,239 | 32,137 | 8,898 | |
| | 관산동 | 26,559 | 36,354 | 9,795 | |
| | 능곡동 | 20,221 | 17,813 | (-)2,408 | |
| | 화정1동 | 45,851 | 40,122 | (-)5,729 | 5천명이상 감소 |
| | 화정2동 | 38,928 | 34,623 | (-)4,305 | |
| | 행주동 | 23,665 | 21,098 | (-)2,567 | |
| | 행신1동 | 25,584 | 23,645 | (-)1,939 | |
| | 행신2동 | 41,322 | 34,139 | (-)7,183 | 5천명이상 감소 |
| | 행신3동 | 40,506 | 48,534 | 8,028 | |
| | 화전동 | 9,411 | 5,835 | (-)3,576 | |
| | 대덕동 | 4,536 | 2,415 | (-)2,121 | |
| 일산동구 | 식사동 | 7,840 | 34,029 | 26,189 | 2만명이상 증가 |
| | 중산동 | 29,884 | 47,789 | 17,905 | |
| | 정발산동 | 30,593 | 25,824 | (-)4,769 | |
| | 풍산동 | 15,148 | 39,779 | 24,631 | 2만명이상 증가 |
| | 백석1동 | | 32,556 | | 2005년 백석동이 → 1,2동으로 나뉨 |
| | 백석2동 | 50,400 | 21,697 | 3,853 | |
| | 마두1동 | 29,556 | 25,743 | (-)3,813 | |
| | 마두2동 | 19,158 | 17,111 | (-)2,047 | |
| | 장항1동 | 3,320 | 3,019 | (-)301 | |
| | 장항2동 | 25,119 | 26,791 | 1,672 | |
| 일산서구 | 고봉동 | 14,528 | 21,624 | 7,096 | |
| | 일산1동 | 29,966 | 29,260 | (-)706 | |
| | 일산2동 | 22,993 | 20,157 | (-)2,836 | |
| | 일산3동 | 42,827 | 37,538 | (-)5,289 | 5천명이상 감소 |
| | 탄현동 | 43,130 | 49,035 | 5,905 | |
| | 주엽1동 | 34,445 | 29,292 | (-)5,153 | 5천명이상 감소 |
| | 주엽2동 | 36,041 | 30,971 | (-)5,070 | 5천명이상 감소 |
| | 다화동 | 36,385 | 31,647 | (-)4,738 | |
| | 송포동 | 17,920 | 17,876 | (-)44 | |
| | 송산동 | 25,523 | 49,954 | 24,431 | 2만명이상 증가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8.) / 행정구역(읍면동)별 주민등록인구(2005년)

고양시는 2005년에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체계를 갖춤

3) 세대 구성 변화

(1) 고양시 구별 세대구성 변화 -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 전국적으로 1인가구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고양시 1인가구는 2017년 기준 22.2%임. 일산동구가 25.1%로 가장 높고, 일산서구는 17.2%로 상대적으로 낮음 (통계청, 인구총조사)
 - 전국 1인가구는 2017년 기준 28.5%임. 전국 1인가구의 비중이 2011년(24.5%)을 기점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가장 높아진 가운데, 2020년 30.1%, 2035년 34.6%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경기도 1인가구는 2017년 기준 전국 평균(28.5%)보다 다소 낮은 24.4%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양시는 22.2%로 1인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그러나 최근 10년간 1인가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7년 일산동구의 1인가구가 25.1%, 덕양구는 23.3%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표 3-22] 고양시 구별 1인 가구 증가 추이(2005~2017)

(단위 : 가구, %)

| 구분 | 2005년 | | 2010년 | | 2015년 | | 2017년 | |
|------|---------|------------------|---------|------------------|---------|------------------|---------|------------------|
| | 전체가구 | 1인가구 | 전체가구 | 1인가구 | 전체가구 | 1인가구 | 전체가구 | 1인가구 |
| 고양시 | 276,394 | 44,328 (16.0) | 303,568 | 58,392 (19.2) | 351,477 | 74,782 (21.3) | 364,356 | 80,811 (22.2) |
| 덕양구 | 122,875 | 21,818 (17.8) | 127,333 | 25,308 (19.9) | 153,947 | 34,207 (22.2) | 160,923 | 37,509 (23.3) |
| 일산동구 | 70,324 | 13,403 (19.1) | 89,838 | 21,125 (23.5) | 100,816 | 24,790 (24.6) | 105,242 | 26,450 (25.1) |
| 일산서구 | 83,195 | 9,107 (10.9) | 86,397 | 11,959 (13.8) | 96,714 | 15,785 (16.3) | 98,191 | 16,852 (17.2)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년 이전은 5년 단위로 작성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지역별 세대원수별 세대수와 자료 수치상 차이가 존재함

(2)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 2015년 기준 고양시의 여성가구주 가구는 97,910가구로 전체가구의 27.9% 비중을 차지함. 이는 2010년 24.4%에 비해 3.5% 증가한 수치임
- 구별로 보면 일산동구의 여성가구주가 30.0%로 덕양구(28.1%)나 일산서구(2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2015년 기준)

[표 3-23] 고양시 여성가구주 현황(2010, 2015년)

(단위 : 가구, %)

| 구분 | 2010년 | | 2015년 | |
|------|---------|------------------|---------|------------------|
| | 전체 가구 | 여성가구주 가구 | 전체 가구 | 여성가구주 가구 |
| 고양시 | 303,568 | 74,002 (24.4) | 351,477 | 97,910 (27.9) |
| 덕양구 | 127,333 | 30,515 (24.0) | 153,947 | 43,242 (28.1) |
| 일산동구 | 89,838 | 24,796 (27.6) | 100,816 | 30,268 (30.0) |
| 일산서구 | 86,397 | 18,691 (21.6) | 96,714 | 24,400 (25.2) |

* 자료 : 고양시, '2014 고양통계연보' / '2017 고양통계연보' (원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인구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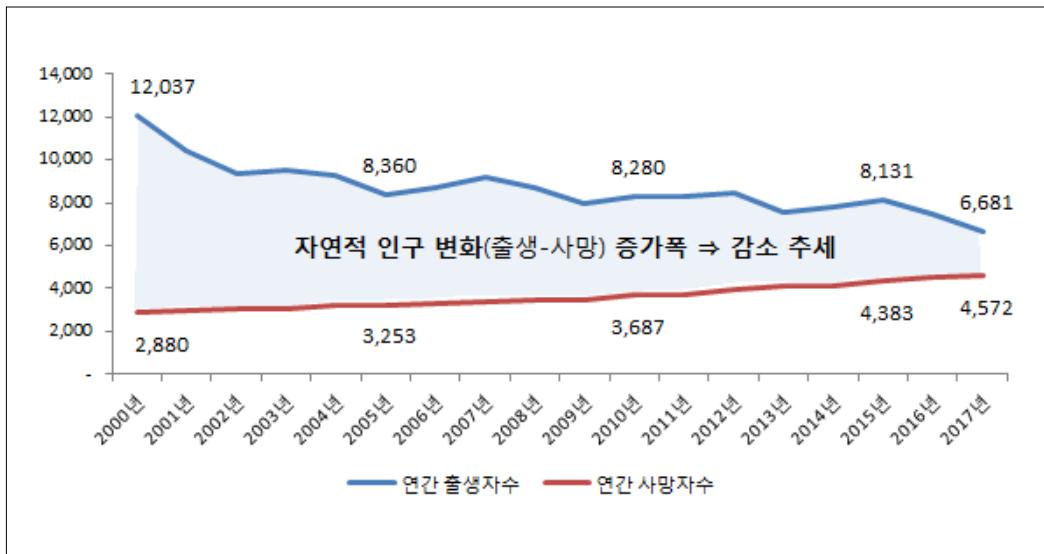
- 인구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자연적 증감(출생, 사망)과 사회적 이동(전입, 전출)을 들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자연적 증감보다 사회적 이동에 의한 인구 증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1) 인구의 자연적 증감(출생, 사망)

- 2000년 이후 고양시 전체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출생자는 감소 추세이고, 사망자는 소폭 증가 추세임. 이에 따라 자연적 변화(출생-사망)에 의한 인구는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그림 3-8] 고양시 자연적 증감 추이(2000~2017년)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출생등록자수 및 사망발생자수와 수치의 차이가 존재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의한 2017년도 고양시의 출생등록자는 총 6,768명, 사망말소자는 총 4,547명으로 1년 간 2,221명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함
 - 덕양구는 출생 3,172명, 사망 2,210명으로 962명 증가, 일산동구는 출생 1,807명, 사망 1,180명으로 627명 증가, 일산서구는 1,789명, 사망 1,157명으로 632명의 인구가 증가함

[표 3-24] 고양시 구별 출생·사망자수(2017년)

(단위 : 명)

| 구분 | 출생등록자 | | | 사망말소자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고양시 | 6,768 | 3,553 | 3,215 | 4,547 | 2,378 | 2,169 |
| 덕양구 | 3,172 | 1,689 | 1,483 | 2,210 | 1,160 | 1,050 |
| 일산동구 | 1,807 | 936 | 871 | 1,180 | 612 | 568 |
| 일산서구 | 1,789 | 928 | 861 | 1,157 | 606 | 551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최근 5년간(2012~2017년) 고양시 전체 자연적 변화(출생-사망)에 의한 인구는 2012년 4,458명에서 2015년 3,748명, 2017년 2,221명으로 줄어듦
 - 출생자 및 사망자 모두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지만, 자연적 변화에 의한 증가(출생자수-사망자수) 인구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함

[표 3-25] 고양시 연도별 출생·사망자수(2012~2017년)

(단위 : 명)

| 연도 | 자연적증감 인구(A-B) | 출생(A) | | | 사망(B)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12년 | 4,458 | 8,446 | 4,348 | 4,098 | 3,988 | 2,165 | 1,823 |
| 2013년 | 3,481 | 7,566 | 3,831 | 3,735 | 4,085 | 2,142 | 1,943 |
| 2014년 | 3,669 | 7,771 | 4,021 | 3,750 | 4,102 | 2,196 | 1,906 |
| 2015년 | 3,748 | 8,131 | 4,102 | 4,029 | 4,383 | 2,364 | 2,019 |
| 2016년 | 3,012 | 7,507 | 3,853 | 3,654 | 4,495 | 2,322 | 2,173 |
| 2017년 | 2,221 | 6,768 | 3,553 | 3,215 | 4,547 | 2,378 | 2,169 |

※ 자료 : 2017년 수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16년 수치는 고양시, '2017 고양통계연보' (원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 인구의 사회적 이동(전입, 전출)

- 2000년 이후 고양시 전체 전입자수와 전출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고양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전출하는 인구보다 많아서 사회적 이동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2015~2017년) 전출입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총전입 인구는 2015년 176,821명, 2016년 158,904명, 2017년 139,002명이며, 총전출 인구는 2015년 160,075명, 2016년 150,716명, 2017년 139,122명임. 따라서 최근 3년간 사회적 이동(총전입-총전출)에 의한 인구 변화는 2015년 16,746명 증가, 2016년 8,188명 증가, 2017년 120명 감소함
 - 성별로 보면 전입 및 전출 인구 모두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더 높으며, 전출입에 의해 남성보다 여성인구가 더 많이 증가함

[표 3-26] 고양시 연도별 전입·전출 인구수(2012~2017년)

(단위 : 명)

| 연도 | 순이동인구 (A-B) | 총전입(A) | | | 총전출(B) | | |
|-------|----------------|---------|--------|--------|---------|--------|--------|
| | | 전체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 2012년 | 4,562 | 157,485 | 77,867 | 79,618 | 152,923 | 75,901 | 77,022 |
| 2013년 | 16,836 | 171,535 | 84,479 | 87,056 | 154,699 | 76,633 | 78,066 |
| 2014년 | 11,820 | 166,111 | 82,373 | 83,738 | 154,291 | 76,659 | 77,632 |
| 2015년 | 16,746 | 176,821 | 87,021 | 89,800 | 160,075 | 79,222 | 80,853 |
| 2016년 | 8,188 | 158,904 | 78,641 | 80,263 | 150,716 | 75,033 | 75,683 |
| 2017년 | -120 | 139,002 | 69,388 | 69,614 | 139,122 | 69,897 | 69,225 |

※ 자료 : 2017년 수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2016년 수치는 고양시, '2017 고양통계연보' (원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인구 변화 요인 중 사회적 이동(전입, 전출)에 의한 인구 변화는 다음 절(고양시 인구이동 분석)에서 자세히 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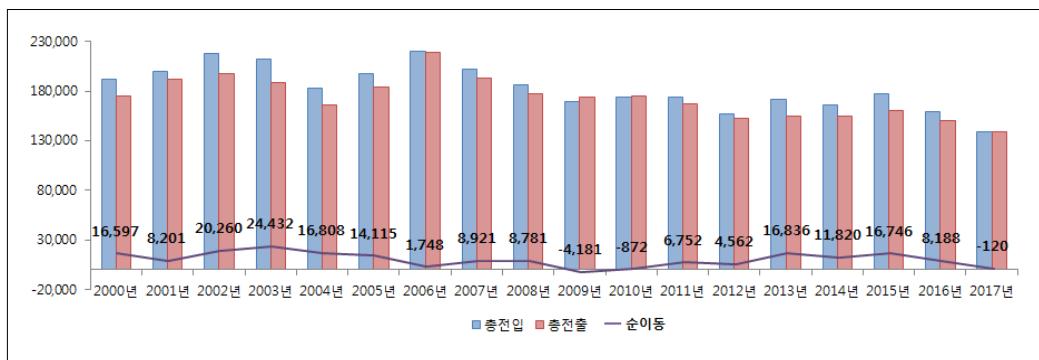
제3절 고양시 인구이동 분석

1. 고양시 인구이동(전입·전출) 변화 추이

- 고양시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경향을 보임에 따라 2000년 이후 순이동(총전입-총전출)인구는 정(+)의 형태를 보임(2009, 2010, 2017년 제외)

[그림 3-9] 고양시 순이동(총전입-총전출) 변동 추이(2000~2017년)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표 3-27] 고양시 총전입·전출 인구수(2000~2017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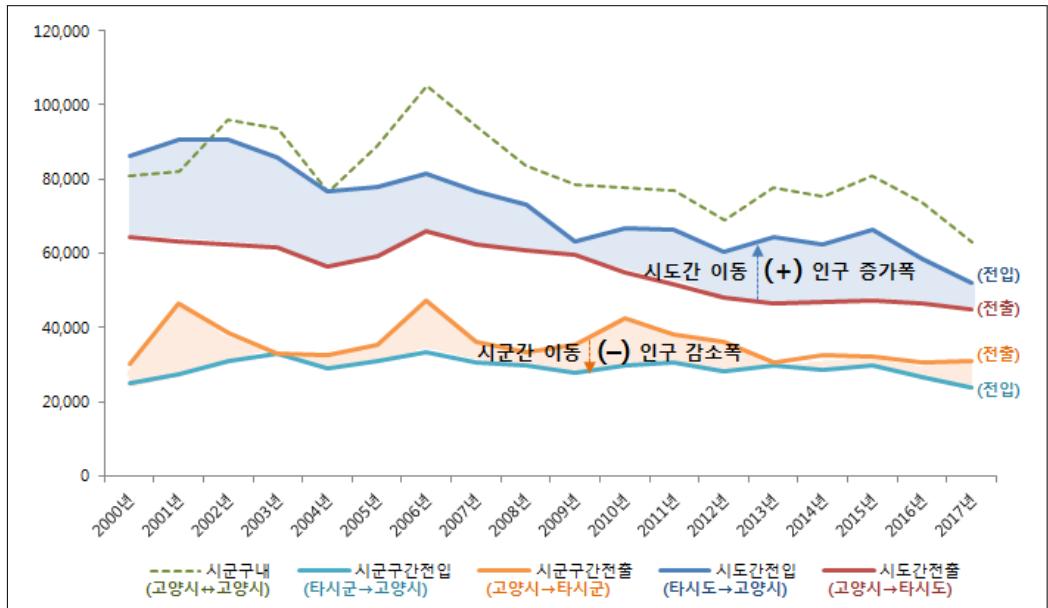
| 연도 | 총전입 | 총전출 | 순이동 | 연도 | 총전입 | 총전출 | 순이동 |
|-------|---------|---------|--------|-------|---------|---------|--------|
| 2000년 | 191,686 | 175,089 | 16,597 | 2009년 | 169,428 | 173,609 | -4,181 |
| 2001년 | 200,079 | 191,878 | 8,201 | 2010년 | 174,090 | 174,962 | -872 |
| 2002년 | 217,321 | 197,061 | 20,260 | 2011년 | 173,745 | 166,993 | 6,752 |
| 2003년 | 212,641 | 188,209 | 24,432 | 2012년 | 157,485 | 152,923 | 4,562 |
| 2004년 | 182,322 | 165,514 | 16,808 | 2013년 | 171,535 | 154,699 | 16,836 |
| 2005년 | 197,638 | 183,523 | 14,115 | 2014년 | 166,111 | 154,291 | 11,820 |
| 2006년 | 220,409 | 218,661 | 1,748 | 2015년 | 176,821 | 160,075 | 16,746 |
| 2007년 | 201,738 | 192,817 | 8,921 | 2016년 | 158,904 | 150,716 | 8,188 |
| 2008년 | 186,480 | 177,699 | 8,781 | 2017년 | 139,002 | 139,122 | -120 |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2000~2017년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 고양시 내(고양시↔고양시)에서 전입·전출하는 인구이동의 비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시도간, 시군구간 이동 순임
 - 서울 등 타 시도에서 고양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 많아서 시도간 이동(고양시↔타 시도)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군구간 이동(고양시↔경기도내 타 시군)에서는 고양시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전출하는 인구가 더 많음

[그림 3-10] 고양시 시도간-시군구간 인구이동 변동 추이(2000~2017년)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2001~2017 각 연도)

- 시도간 인구이동(2000년~2017년) 총계 : 지난 18년간 타 시도에서 고양시로 전입해 온 인구는 총 1,299,519명이며, 고양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해 간 인구는 총 1,002,701명임. 시도간 이동으로 총 296,818명의 인구가 증가함
 - 시도간 인구이동의 약 60~70%는 인근 지역인 서울에서 유출입된 것으로 분석됨
 - 200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서울 등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면서 시도간 전입 인구

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임. 시도간 전출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시군간 인구이동(2000년~2017년) 총계 : 지난 18년간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 고양시로 전입해 온 인구는 총 524,060명이며, 고양시에서 경기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해 간 인구는 총 641,284명임. 시군간 이동으로 총 117,224명의 인구가 감소함
 - 경기도 내 시군간 인구이동 역시 인접지역인 파주시 등과 유출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시군간 인구이동은 연도에 따라 진동폭이 큼. 이는 경기도 내 타 시군의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등의 시기와 유관한 것으로 추정됨

[표 3-28] 고양시 시도간-시군구간 인구이동(2000~2017년)

(단위 : 명)

| 구분 | 시도간이동 | | | 경기도내 시군구간 이동 | | | 시군구내 이동 고양시↔고양시 (전입,전출) |
|-------|---------------------|---------------------|---------|---------------------|---------------------|----------|-------------------------------|
| | 타시도 →고양시 (전입) | 고양시 →타시도 (전출) | 전입·전출 | 타시군 →고양시 (전입) | 고양시 →타시군 (전출) | 전입·전출 | |
| 2000년 | 86,148 | 64,260 | 21,888 | 24,833 | 30,124 | -5,291 | 80,705 |
| 2001년 | 90,439 | 63,167 | 27,272 | 27,412 | 46,483 | -19,071 | 82,228 |
| 2002년 | 90,512 | 62,387 | 28,125 | 30,790 | 38,655 | -7,865 | 96,019 |
| 2003년 | 85,983 | 61,716 | 24,267 | 32,969 | 32,804 | 165 | 93,689 |
| 2004년 | 76,833 | 56,433 | 20,400 | 28,947 | 32,539 | -3592 | 76,542 |
| 2005년 | 77,964 | 59,341 | 18,623 | 30,916 | 35,424 | -4,508 | 88,758 |
| 2006년 | 81,664 | 66,142 | 15,522 | 33,456 | 47,230 | -13,774 | 105,289 |
| 2007년 | 76,700 | 62,334 | 14,366 | 30,611 | 36,056 | -5,445 | 94,427 |
| 2008년 | 73,313 | 60,767 | 12,546 | 29,566 | 33,331 | -3,765 | 83,601 |
| 2009년 | 63,020 | 59,644 | 3,376 | 27,910 | 35,467 | -7,557 | 78,498 |
| 2010년 | 66,790 | 54,669 | 12,121 | 29,657 | 42,650 | -12,993 | 77,643 |
| 2011년 | 66,304 | 51,803 | 14,501 | 30,392 | 38,141 | -7,749 | 77,049 |
| 2012년 | 60,553 | 48,016 | 12,537 | 28,076 | 36,051 | -7,975 | 68,856 |
| 2013년 | 64,203 | 46,641 | 17,562 | 29,746 | 30,472 | -726 | 77,586 |
| 2014년 | 62,231 | 46,663 | 15,568 | 28,659 | 32,407 | -3,748 | 75,221 |
| 2015년 | 66,375 | 47,364 | 19,011 | 29,708 | 31,973 | -2,265 | 80,738 |
| 2016년 | 58,535 | 46,344 | 12,191 | 26,504 | 30,507 | -4,003 | 73,865 |
| 2017년 | 51,952 | 45,010 | 6,942 | 23,908 | 30,970 | -7,062 | 63,142 |
| 합계 | 1,299,519 | 1,002,701 | 296,818 | 524,060 | 641,284 | -117,224 | 1,473,856 |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2001~2017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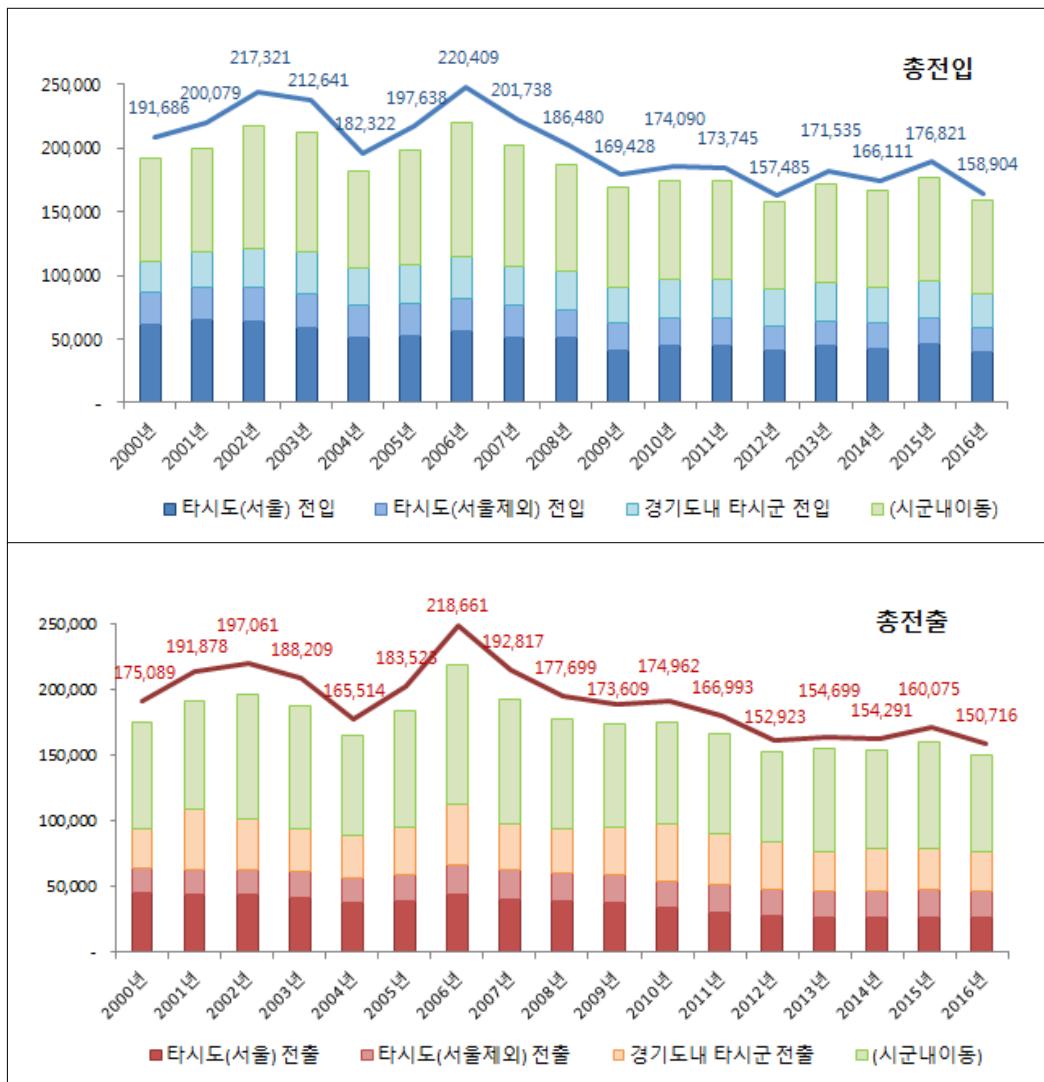
- 특히 전입 인구 중 서울 인구의 비중은 고양시 전체 전입 인구의 27.2%의 비중을 차지함(2000~2016년 계). 이는 고양시내 전입(44.7%)을 제외하고, 경기도내 타 시군 전입(15.8%)과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 전입(12.3%)보다 훨씬 큰 수치임
 - 2000년대 초반 연간 6만명 이상 고양시로 전입해 오던 서울시 인구는 2000년대 중후반 5만명 대에서 2010년대 들어 4만명 대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임
 - 서울시 전입인구(27.2%) : 2000년 62,002명이었던 서울시 전입인구는 2005년 52,509명, 2010년 45,092명, 2016년 39,625명으로 감소함
 -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 전입인구(12.3%) : 이 역시 2000년 24,146명, 2005년 25,455명, 2010년 21,698명, 2016년 18,91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경기도 내 타 시군 전입인구(15.8%) :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인구는 2000년 24,833명, 2005년 30,916명, 2010년 29,657명, 2016년 26,504명으로 약 2만5천~3만명 선을 유지하며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함

- 전출 인구 중 서울 인구의 비중은 고양시 전체 전출 인구의 20.6%의 비중을 차지 함(2000~2016년 계). 이는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 전출(11.6%)보다 훨씬 큰 수 치임. 단 전출 인구는 고양시내 전출(47.4%)을 제외하고, 경기도내 타 시군 전출(20.5%)과 서울시 전출(20.6%)의 비중이 거의 비슷함
 - 고양시에서 서울로 전출하는 인구는 2000년대 초반 연간 4만명 이상에서 2000년 대 후반 3만명 대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연간 2만6천명 대를 유지함
 - 서울시 전출인구(20.6%) :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전출한 인구는 2000년 44,977명, 2005년 39,600명, 2010년 34,052명, 2016년 26,439명으로 감소함
 -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 전출인구(11.6%) : 2000년 19,283명, 2005년 19,741명, 2010년 20,617명, 2016년 19,905명으로 연간 약 2만명 전후의 인구가 고양시에 서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로 꾸준히 전출함
 - 경기도 내 타 시군 전출인구(20.5%) : 고양시에서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인구는 연간 약 3만~3만5천명 선을 유지하며 연도별로 등락을 거듭함. 2000년 30,124명, 2005년 35,424명, 2010년 42,650명, 2016년 30,507명임.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 전출 인구가 특히 많았던 시점(2001년 46,483명, 2006년 47,230명, 2010년 42,650명)이 있음

[그림 3-11] 고양시 시도간-시군구간 전입·전출 비중(2000~2016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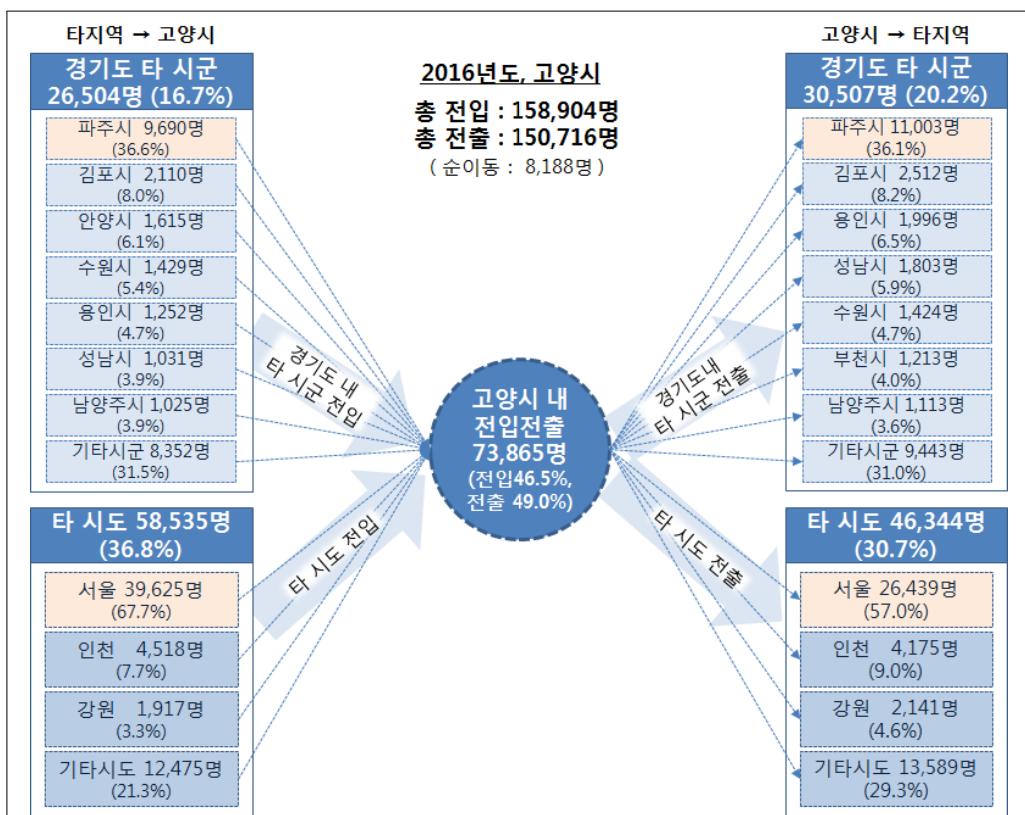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2001~2017) 각 연도

2. 고양시 전입·전출지별 인구이동

- 2016년 고양시 총 전입 인구는 158,904명, 총 전출 인구는 150,716명임(고양시 내 전입·전출 포함). 따라서 인구이동(순이동)으로 8,188명의 인구가 증가함
 - 경기도 외 타 시도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인구는 58,535명이며, 고양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46,344명임. 시도간 이동으로 12,191명의 인구가 증가함
 - 경기도 내 타 시군구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인구는 26,504명이며, 고양시에서 경기도 내 타 시군구로 전출한 인구는 30,507명임. 경기도 내 시군구간 이동으로 4,003명의 인구가 감소함. 고양시 내에서만 73,865명의 인구이동(전입·전출)이 일어남

[그림 3-12] 고양시 전입·전출지별 인구이동 분포(2016년)

(단위 : 명, %)



※ 자료 : 고양시, 2017 고양통계연보 (자료 재구성)

- 시도간 인구이동(고양시↔타 시도) : 시도간 인구이동을 보면 서울, 인천 지역과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하며, 서울 지역의 많은 인구가 고양시로 유입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2~2016년) 서울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인구는 214,207명이며, 인천 22,530명, 강원 9,596명, 충남 8,018명 등의 인구가 고양시로 전입해 옴. 5년간 타 시도에서 고양시로 전입해 온 인구는 총 311,897명임
 - 반대로 같은 기간 고양시에서 서울로 전출한 인구는 133,225명이며, 인천 22,511명, 강원 10,250명, 충남 9,248명 등으로 전출함. 5년간 고양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총 235,028명임
 - 5년간 서울, 부산, 경북, 대구 등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았으며, 고양시에서 강원, 충남, 제주, 세종 등으로 전출한 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음

- 경기도내 시군구간 인구이동(고양시↔타 시군) : 시군구간 이동을 보면 인접 지역인 파주, 김포시와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함. 고양시의 많은 인구가 파주, 김포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2~2016년)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인구는 51,236명이며, 김포 9,646명, 부천 8,522명, 용인 7,367명, 성남 7,211명, 수원 6,112명 등의 인구가 고양시로 전입해 옴. 5년간 타 시군구에서 고양시로 전입해 온 인구는 총 142,693명임
 - 반대로 같은 기간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전출한 인구는 67,733명이며, 김포 15,271명, 용인 9,357명, 성남 7,816명, 수원 7,284명, 부천 6,086명 등으로 전출함
 - 5년간 부천, 안양, 광명, 의정부, 안산 등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았으며, 고양시에서 파주, 김포, 용인, 수원, 성남, 화성 등으로 전출한 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음

- 시군구내 인구이동(고양시↔고양시) : 시도간 이동이나 시군구간 이동보다 고양시 내에서의 이동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최근 5년간(2012~2016년) 총 376,266명이 고양시 내에서 이동함(전입의 45.3%, 전출의 48.7% 비중)

[표 3-29] 고양시 전입·전출지별 인구이동(2012~2016년, 5개년 합계)

(단위 : 명, %)

| 구분 (2012~2016년) | 타 지역 → 고양시(전입) | | 고양시 → 타 지역(전출) | | 전입-전출 | |
|--------------------|----------------|---------|----------------|---------|---------|-----------|
| | 인구수 | 비율 | 인구수 | 비율 | 차이(순이동) | |
| 총이동 계 | 830,856 | 100.0 | 772,704 | 100.0 | 58,152 | |
| 고양시 내 이동 계 | 376,266 | 45.3 | 376,266 | 48.7 | - | |
| 타 시도간 이동 | 서울 | 214,207 | 25.8 | 133,225 | 17.2 | 80,982 |
| | 인천 | 22,530 | 2.7 | 22,511 | 2.9 | 19 |
| | 강원 | 9,596 | 1.2 | 10,250 | 1.3 | (-)654 |
| | 충남 | 8,018 | 1.0 | 9,248 | 1.2 | (-)1,230 |
| | 부산 | 7,268 | 0.9 | 6,570 | 0.9 | 698 |
| | 경북 | 6,636 | 0.8 | 6,222 | 0.8 | 414 |
| | 전북 | 6,115 | 0.7 | 6,157 | 0.8 | (-)42 |
| | 경남 | 5,990 | 0.7 | 6,010 | 0.8 | (-)20 |
| | 대전 | 5,534 | 0.7 | 5,846 | 0.8 | (-)312 |
| | 전남 | 5,513 | 0.7 | 5,709 | 0.7 | (-)196 |
| | 충북 | 5,338 | 0.6 | 6,029 | 0.8 | (-)691 |
| | 대구 | 5,080 | 0.6 | 3,866 | 0.5 | 1,214 |
| | 광주 | 4,078 | 0.5 | 3,741 | 0.5 | 337 |
| | 제주 | 2,860 | 0.3 | 4,592 | 0.6 | (-)1,732 |
| | 울산 | 2,406 | 0.3 | 2,178 | 0.3 | 228 |
| | 세종 | 728 | 0.1 | 2,874 | 0.4 | (-)2,146 |
| 타 시도간 이동 계 | | 311,897 | 37.5 | 235,028 | 30.4 | 76,869 |
| 경기도내 타시군간 이동 | 파주 | 51,236 | 6.2 | 67,733 | 8.8 | (-)16,497 |
| | 김포 | 9,646 | 1.2 | 15,271 | 2.0 | (-)5,625 |
| | 부천 | 6,522 | 1.0 | 6,086 | 0.8 | 2,436 |
| | 용인 | 7,367 | 0.9 | 9,357 | 1.2 | (-)1,990 |
| | 성남 | 7,211 | 0.9 | 7,816 | 1.0 | (-)605 |
| | 수원 | 6,112 | 0.7 | 7,284 | 0.9 | (-)1,172 |
| | 남양주 | 5,929 | 0.7 | 5,455 | 0.7 | 474 |
| | 의정부 | 5,548 | 0.7 | 4,094 | 0.5 | 1,454 |
| | 안양 | 5,219 | 0.6 | 3,422 | 0.4 | 1,797 |
| | 기타 시군(21개지역) | 35,903 | 4.3 | 34,892 | 4.5 | 1,011 |
| 타 시군간 이동 계 | | 142,693 | 17.2 | 161,410 | 20.9 | (-)18,717 |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2001~2017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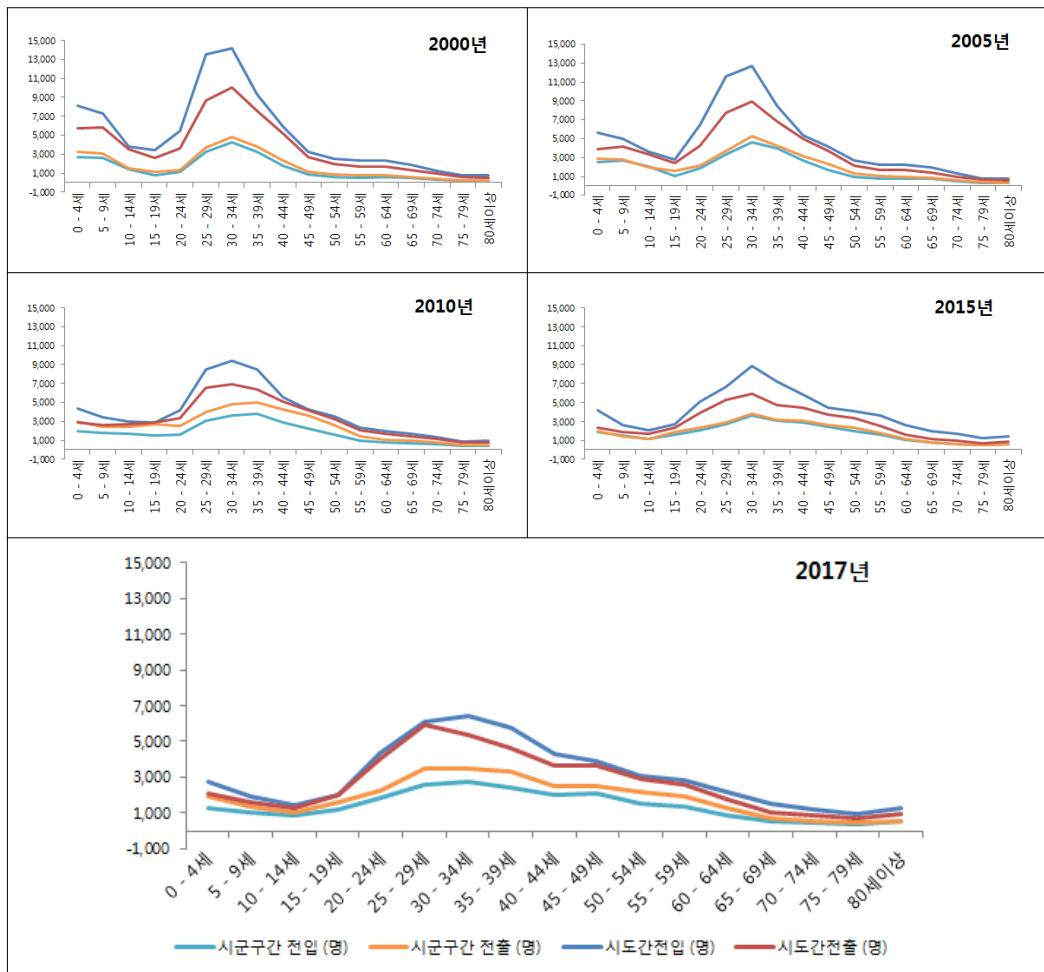
시군간 이동 수치(2012~2016)는 고양시 통계연보 DB(<http://www.goyang.go.kr/stats>)를 분석함

3. 고양시 성별·연령대별 인구이동

- 고양시의 인구 유출입과 관련이 있는 시도간이동(전입·전출)과 시군구간이동(전입·전출)을 살펴보면 젊은층의 인구 유출입이 꾸준히 이루어짐
 - 2000년대 20~30대 연령층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연령대별 인구이동곡선이 점차 완만해지면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고르게 유출입이 일어남

[그림 3-13] 고양시 연령대별 인구이동(2016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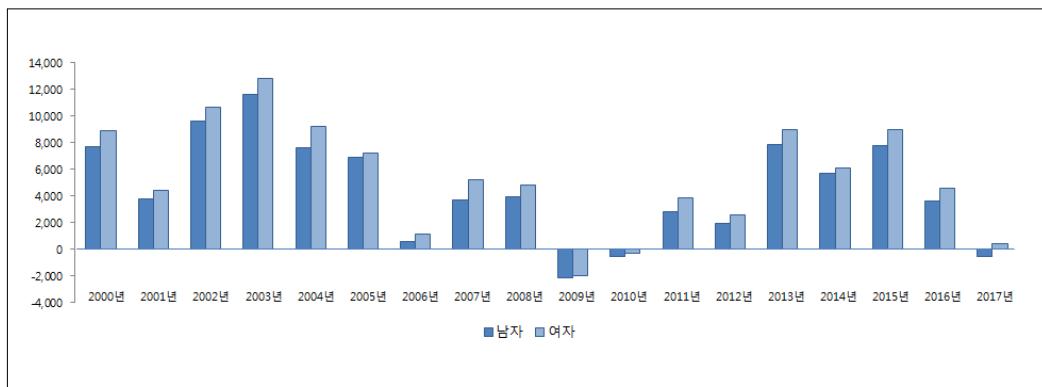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성별 순이동 인구 변화를 보면 고양시 인구이동으로 증가한 여성의 비율(54.3%)
 이) 남성의 비율(45.7%)보다 높음
 – 2000년~2017년 까지 18년 동안 인구이동(순이동)으로 여성은 97,579명 증가한
 데 비해 남성은 82,015명 증가함

[그림 3-14] 고양시 성별 순이동 인구 변화(2000~2017년)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연령대별 순이동 인구수를 볼 때 고양시는 20대와 30대 젊은층의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00년대 초반 인구이동으로 연간 1만명 이상의 20~30대 인구가 증가함.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와 동반 전입해 오면서 10세 미만 인구도 연간 2천명 이상 증가함
 – 2010년대 들어서도 30대 인구는 꾸준히 전입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 세대인 10세 미만 인구도 인구이동으로 동반 증가함
 – 2013년~2015년 인구이동으로 연평균 5천명 이상의 30대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10세 미만 인구도 연간 2천명 이상 증가함
- 반면 10대와 40대는 전출인구가 많은 편임(2001년, 2005~2006년, 2008~2012년 인구이동으로 40대 인구 감소)

- 2010년 전후로 40~50대 중장년 인구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지면서 자녀 세대인 10대 인구도 동반 감소함.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도에 40~50대와 10대 인구가 각각 연간 1천명 이상씩 감소함에 따라 해당 연도 고양시 전체 순이동이 음(−)의 수치를 보임
- 2013년 이후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증가함
 - 2013년~2016년 30대와 자녀세대인 10세 미만 인구의 증가폭이 가장 크며, 은퇴 이후 연령층인 60대와 70세 이상 인구도 각각 연간 1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표 3-30] 고양시 연령대별 순이동 인구수(2000~2017년)

(단위 : 명)

| 구분 | 10세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세 이상 | 연간 순이동 |
|-------|-----------|--------|-------|-------|--------|-------|-------|-----------|-----------|
| 2000년 | 2,796 | 581 | 6,080 | 4,715 | 479 | 614 | 838 | 494 | 16,597 |
| 2001년 | 873 | -263 | 5,915 | 2,577 | -1,497 | -193 | 456 | 333 | 8,201 |
| 2002년 | 2,473 | 1,065 | 7,578 | 4,755 | 1,225 | 996 | 1,397 | 771 | 20,260 |
| 2003년 | 3,971 | 1,110 | 7,264 | 7,507 | 1,316 | 1,027 | 1,467 | 770 | 24,432 |
| 2004년 | 2,231 | 624 | 6,616 | 4,950 | 587 | 579 | 735 | 486 | 16,808 |
| 2005년 | 2,023 | 98 | 5,533 | 4,664 | -148 | 548 | 908 | 489 | 14,115 |
| 2006년 | -232 | -1,179 | 3,298 | 833 | -1,930 | 178 | 502 | 278 | 1,748 |
| 2007년 | 1,225 | -136 | 2,997 | 2,755 | 127 | 598 | 1,004 | 351 | 8,921 |
| 2008년 | 714 | 41 | 2,679 | 3,002 | -49 | 657 | 1,051 | 686 | 8,781 |
| 2009년 | -350 | -1,299 | 135 | 504 | -1,555 | -988 | -303 | 325 | -4,181 |
| 2010년 | 577 | -1,584 | 946 | 2,278 | -2,203 | -932 | -2 | 48 | -872 |
| 2011년 | 1,769 | -511 | 1,531 | 3,525 | -218 | -211 | 457 | 410 | 6,752 |
| 2012년 | 736 | -377 | 1,184 | 2,235 | -172 | -169 | 482 | 643 | 4,562 |
| 2013년 | 3,015 | 779 | 2,246 | 5,636 | 1,634 | 1,116 | 1,264 | 1,146 | 16,836 |
| 2014년 | 2,437 | 195 | 900 | 4,411 | 1,120 | 551 | 1,029 | 1,177 | 11,820 |
| 2015년 | 2,525 | 468 | 2,054 | 5,246 | 1,612 | 1,241 | 1,674 | 1,926 | 16,746 |
| 2016년 | 1,131 | -169 | 1,140 | 2,850 | 621 | 332 | 1,008 | 1,275 | 8,188 |
| 2017년 | 12 | -375 | -771 | 618 | 1 | -747 | 349 | 793 | -120 |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2001~2017 각 연도)

순이동 인구(총전입 인구 - 총전출 인구)는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고양시 순 증감 인구를 의미함

4. 고양시 인구이동 특성

1) 고양시 인구이동의 특징¹⁾

- 고양시는 인구이동 유형 중 ‘전반적 증가형’의 유형을 보임(경기연구원, 2016)
 -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이 ‘전반적 증가형’에 속하며, 이 유형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순이동률이 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임
 - 성남시는 ‘청년인구 증가형’으로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인구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20대 인구만 대폭 증가함. 최근 판교와 같은 새로운 업무단지가 개발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보임
- 고양시의 연령대별 인구이동(전입·전출) 변화를 살펴보면 해마다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짐
- 고양시는 서울특별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등과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함
 - 2010년 이후 서울의 인구가 대단위 주택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남양주, 파주, 고양, 성남, 김포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에서 다시 경기도 인접과 인천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경기연구원, 2016)
 - 고양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2011년 식사지구, 덕이지구, 2013년 삼송지구 및 탄현 주상복합 공동주택 준공, 2017년 백석동 요진 Y시티 등 신규 주택 건설의 영향으로 서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문정화 외, 2017)
 - 고양시 주변 시군구 특히 파주시와 서울 북서부측과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파주, 김포시로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임(양승호, 2017)
- 고양시는 서울 및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통근 유출·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임

1) 경기연구원,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2016.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양승호, 고양시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특성 분석, 2017.8.

-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는 서울로 통근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지만 서울과 경기도내 타 시군으로부터 유입되는 통근인구도 많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서울인구 → 경기도 통근 : 경기도 시군 중 성남시가 가장 많은 서울인구의 통근지 비중(7.6%)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6.2%, 수원시는 3.7%의 비중을 차지함
 - 경기도인구 → 서울 통근 : 경기도 시군 중 성남시 거주자(11.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양시 거주자는 10.6%, 용인시 거주자는 6.5%의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기준 고양시 1일 목적통행량은 2,662,595통행이며, 이 중 출근을 위한 1일 목적통행량은 609,689통행임(수도권교통본부, 전수화보고서 3편, 2017. p369)
- 목적통행이라 함은 출근, 등교, 업무, 쇼핑, 여가 등의 목적으로 도보, 자가용, 대중 교통 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함. 1일 고양시 내 이동 1,430,764통행(53.7%), 고양시↔경기 간 이동 416,218통행(15.6%), 고양시↔서울 간 이동 685,898통행(25.8%), 고양시↔인천 간 이동 84,115통행(3.2%), 고양시↔외곽 지역 간 이동 45,600통행(1.7%)이 일어남
 - 출근을 위한 1일 목적통행량 609,689통행 중 고양시 내 이동 219,320통행(36.0%), 고양시↔경기 간 이동 147,178통행(24.1%), 고양시↔서울 간 이동 216,068통행(35.4%), 고양시↔인천 간 이동 23,869통행(3.9%), 고양시↔외곽 지역 간 이동 3,254통행(0.5%)으로 고양시와 서울간 출퇴근 이동이 많음을 알 수 있음

2) 고양시 각 구별 인구변화 특징²⁾

- 2005년 5월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리하면서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체계를 갖춤

2) 각 구별 주요 인구변화 특징은 고양신문에 게재된 '고양시 최근 10년간 구·동별 인구변화'(2017.1.23.)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 인구 변화 수치는 본 보고서 '고양시 행정동별 인구 변화(표)' 참조

- 덕양구는 최근 13년간 많은 인구가 증가(2005년 → 2018년 8월, 62,413명 증가) 하였으며, 2010년 이후 삼송원홍신도시 택지개발지구(원신동, 홍도동, 신도동, 창릉동)로 유입된 인구가 약 6만 명으로 추정됨
 - 2005년 인구 대비 원신동은 20,159명, 홍도동은 38,932명의 인구가 증가함
 - 삼송원홍신도시 4개 동과 고양동, 관산동, 행신3동, 성사1동을 제외한 덕양구의 나머지 11개 동은 인구가 대부분 줄어듦
 - 덕양구는 2018년 8월 기준 451,714명이며, 지축·향동·덕은지구의 택지개발을 앞두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인구증가가 꾸준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일 때 분구가 가능하므로 덕양구의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 될 경우 분구가 될 가능성 큼(고양신문, 2017.1.23.)
- 일산동구는 고양시 3개 구 중 최근 13년간 가장 많은 인구증가(2005년 → 2018년 8월, 70,416명 증가)를 보인 곳으로 식사동, 중산동, 풍산동의 인구증가 폭이 큼
 - 식사동은 위시티단지(총 7,000가구)가 개발된 곳으로 2010년 8월부터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함
 - 풍산동은 풍산초등학교와 풍동중학교를 중심으로 숲속마을단지가 대규모로 개발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2006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짐
 - 중산동은 하늘마을단지 개발로 2007~2010년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증가함
 - 이상 3개 동을 제외하고는 인구변화가 크게 없음. 백석동과 고봉동의 인구가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정발산·마두1·마두2·장항1동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함
 - 앞으로 장항1동과 중산동의 인구증가가 예상됨. 장항1동은 청년스마트타운, 한류 월드 부지의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중산동은 2018년 일산센트럴 아이파크(1,800여 세대) 입주로 인구증가가 예상됨
 - 장항공공주택지구는 2021년까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5,500 가구를 포함한 12,340가구의 공동주택과 230가구의 단독주택을 건립할 예정임
- 일산서구는 최근 13년간 인구증가가 가장 적은 곳(2005년 → 2018년 8월, 6,500

- 명 증가)으로 송산동과 탄현동만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7개 동은 감소함
- 송산동은 가좌마을 아파트단지(2002~2010년 입주, 4,936가구)와 덕이동 택지개발(2011년 본격 입주 시작, 4,872가구)로 많은 인구가 증가함
 - 탄현동은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증가함
 - 일산1동과 송포동의 인구변화는 거의 없었으며(소폭 감소), 일산3동, 주엽1·2동, 대화동은 지난 13년간 약 5천명 정도 감소했고, 일산2동은 약 3천명의 인구가 감소함
 - 앞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곳은 대화동으로 킨텍스 옆에 택지개발이 진행중이며, 제2자유로 쪽으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두고 있음

3) 인구이동 영향 요인

-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은 고용기회와 같은 경제적 요인, 조세부담, 행정서비스, 교육기회, 주택건설 등의 정책적 요인, 거리와 같은 중력적 요인, 쾌적도 요인 등으로 구분됨(이외희, 1999 ; 경기개발연구원, 2008 재인용. p19)
- 2016년 고양시 전입이유는 주택(45%), 가족(25%), 직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출이유는 주택(44%), 가족(24%), 직업(19%) 순으로 나타남(양승호, 2017)
- 기타 교육(2%), 주거환경(2%), 자연(1%) 등의 이유로 전입·전출을 함
- 전국적으로도 인구이동(전입, 전출)의 주된 이유는 주택(40%), 가족(26%), 직업(21%)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내 이동에서는 주택관련 요인이, 지역간 이동에서는 직업관련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이외희 외, 2001 ; 경기개발연구원, 2008 재인용. p27)

- 수도권 내 인구이동 추세는 대체로 직업이동과는 관련성이 적은 주거이동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함(전성제 외, 2016 ; 경기연구원, 2016 재인용)
- 특히 최근 수도권내 거주지 이동은 주거비 부담 증가와 신규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외의 요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최근의 수도권 내 인구이동이 직장과 주거지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어 근로자의 출퇴근 통근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과거 인구이동 특성을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인구이동에 많은 영향을 줌. 향후에도 택지개발, 산업단지, 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은 인구이동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경기도 지역은 광교 신도시(2005~2019년), 동탄2신도시(2008~2021), 고덕 국제신도시(2008~2020), 고양 관광문화단지(2004~2018), 남양주 공공주택지구(2009~2019), 판교 제2테크노밸리(2015~2019) 등의 택지개발, 공공주택,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고양, 남양주, 성남 등 관련 지역 및 인접지역의 인구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3-31] 고양시 주요 개발사업 현황

| 구분 | 지구명 | 면적(천m ²) | 세대수 | 수용인구 | 지구지정일 |
|--------------|-----------|----------------------|--------|--------|------------|
| 공공주택 | 원흥지구 | 1,287 | 8,601 | 22,879 | 2009.6.3 |
| | 지축지구 | 1,191 | 8,600 | 22,877 | 2006.6.29 |
| | 향동지구 | 1,213 | 7,994 | 21,265 | 2006.6.29 |
| 택지개발 | 삼송지구 | 5,069 | 21,840 | 58,298 | 2004.12.31 |
| | 일산2지구 | 827 | 5,804 | 17,412 | 1999.12.15 |
| 도시개발 | 국제전시장1단계 | 755 | 1,100 | 2,937 | 2001.7.26 |
| | 국제전시장2단계 | 743 | - | - | 2006.8.22 |
| | 고양관광문화단지 | 995 | 1,849 | 4,964 | 2004.1.5 |
| | 식사지구 | 998 | 8,073 | 21,555 | 2004.8.28 |
| | 식사2지구 | 227 | 3,100 | 8,277 | 2009.3.6 |
| | 덕이지구 | 658 | 5,151 | 15,453 | 2006.2.6 |
| | 덕은동 미디어밸리 | 641 | 3,982 | 10,512 | 2012.5.18 |
| | 벽제1지구 | 69 | 557 | 1,671 | 2005.12.7 |
| | 벽제2지구 | 175 | 1,974 | 5,271 | 2013.2.27 |
| | 일산3지구 | 167 | 2,032 | 5,405 | 2013.7.12 |
| 재정비 촉진 | 원당뉴타운 | 1,306 | 20,813 | 54,946 | 2007.9.10 |
| | 능곡뉴타운 | 844 | 14,443 | 38,132 | 2007.9.10 |
| | 일산뉴타운 | 613 | 10,761 | 28,410 | 2007.9.10 |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일산동 | 248 | 2,791 | 8,373 | 1999.2.27 |
| | 관산동 | 87 | 1,192 | 3,576 | 1999.2.27 |
| | 고양동 | 298 | 3,296 | 8,802 | 1999.2.27 |
| | 탄현동 | 199 | 2,316 | 6,183 | 1999.2.27 |

* 자료 : 고양시,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2016. p60. (원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는 2020년까지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
 - 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 GTX 노선이 개통 예정임(서울경제, 2016.4.6.)
 - 고양시내 주요 개발 사업으로 공공주택 3개지구, 택지개발 2개지구, 도시개발 10개지구, 재정비촉진 3개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4개 지구 등 총 22개지구의 사업이 진행 또는 완료됨
 - 정책 사업과 추진 예정 사업,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회적 증가인구는 159,781명으로 추정함(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p119, 기준년도 2010년)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에 의하면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만 2023년까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등 고양시의 개발은 계속될 예정이어서 사회적 이동에 의한 인구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3-32]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주요 추진 사업(2018년 현재)

| 주요 사업 | 위치 | 주요 기능 | 사업기간 |
|------------------------|--|---|------------|
|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규모 994,756m ²) | K-컬처밸리 조성 등 | 2004~2018년 |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규모 : 약 80만m ²) | VR 콘텐츠 등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업무상업지원복합시설 | 2016~2023년 |
|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 덕양구 대장동 일원 (규모 : 약 179만m ²) |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지식산업, 주거, 상업, 물류, 의료 등 | 2016~2023년 |
|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 덕양구 강매동 일원 (규모 : 400,104m ²) | 자동차 전시, 튜닝, 정비, 부품, 연구, 교육, 체험, 지원시설 등 | 2014~2021년 |

※ 자료 : 고양도시관리공사, '2018 업무계획', 2018. /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사업정보, 2018.10.1.

제 4 장

고양시 인구변화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사점 제1절

인구이동에 따른 시사점 제2절

제1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사점

1. 고양시 전체 인구구조의 변화

- 인구 증가 전망 : 797,597명(2000년) → 1,043,406명 → 1,145,093명(2035년)
 - 2000년 797,597명이었던 고양시 인구는 2018년 8월 현재 1,043,406명이며, 2035년 1,145,093명까지 1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1992년 시로 승격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2014년도에 1,006,154명으로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함
 - 인구증가에 따라 인구밀도 역시 2000년 2,984(명/km²)에서 2018년 8월 현재 3,893(명/km²)으로 높아짐
- 인구성장률의 감소 : 1.58%(2000~2017년) → 0.59%(2019~2035년)
 - 2000년~2017년 연평균인구성장률은 1.58%이었으며, 2019~2035년 추계인구의 연평균인구성장률은 0.59%임
 - 인구성장률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플러스 성장이므로 2035년까지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소년 인구의 감소 : 25.9%(2000년) → 13.1%(현재) → 11.7%(2035년)
 - 유소년인구(0~14세) 비율은 2000년 25.9%에서 2018년 8월 현재 13.1%로 줄었으며, 2035년 11.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연간 출생아수가 2000년 12,037명에서 2017년 6,768명으로 절반정도 줄어듦
 -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2000년 1.541명에서 2017년 0.960명으로 1명 미만으로 줄어듦

-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 68.4%(2000년) → 74.9%(현재) → 61.6%(2035년)
 - 2000년 68.4%였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2000년대 인구이동에 의한 젊은층의 대거 유입으로 2018년 8월 현재 74.9%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35년 61.6%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61.7%에서 2018년 58.7%로 줄어들었으며, 고용률은 59.3%에서 56.5%로 줄어듦. 실업률은 2000년, 2018년 각 3.7%임
- 고령 인구의 증가 : 5.7%(2000년) → 11.9%(현재) → 26.7%(2035년)
 -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은 2000년 5.7%에서 2018년 8월 현재 11.9%로 증가함. 이는 전국 평균 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2018년 8월 현재 가장 인구 비중이 높은 40~59세 연령층(35.7%)이 향후 노인 세대로 들어감에 따라 2035년 26.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년부양비 부담도 증가함. 2000년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데 비해 2018년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6.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35년은 2.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
- 1인가구의 증가 : 전체 가구의 10.0%(2000년) → 22.2%(2017년)
 - 1인가구의 증가율이 높음. 전체 가구수는 2000년 223,604가구에서 2017년 364,356가구로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는 2000년 22,310가구에서 2017년 80,811가구로 증가함
- 외국인 등록인구의 증가 : 2,700명(2000년) → 12,286명(2017년)
 - 고양시 외국인 등록인구 비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인구의 1.18%로 전국 평균 2.26%보다 적지만 2000년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함

- 인구 밀도의 상승 : 2,984명/km²(2000년) → 3,893명/km²(2017년)

- 고양시 면적은 변화가 거의 없으나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공급 및 고양시 내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짐

[표 4-1]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주요 지표)

| 구분 | 2000년 | 현재 | 2035년 | 현재시점 |
|--------------------------|---------|-----------|-----------|---------|
| 전체 인구(명) | 797,597 | 1,043,406 | 1,145,093 | 2018.8. |
| 유소년인구(0~14세)비율(%) | 25.9 | 13.1 | 11.7 | 2018.8. |
| 생산가능인구(15~64세)비율(%) | 68.4 | 74.9 | 61.6 | 2018.8. |
| 고령인구(65세이상)비율(%) | 5.7 | 11.9 | 26.7 | 2018.8. |
|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37.8 | 17.5 | 19.0 | 2018.8. |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8.4 | 15.9 | 43.3 | 2018.8. |
| 중위연령(세) | 32.1 | 42.2 | 49.8 | 2017 |
| 합계출산율(명) | 1.541 | 0.960 | . | 2017 |
| 출생아수(명) | 12,037 | 6,768 | . | 2017 |
| 사망자수(명) | 2,880 | 4,547 | . | 2017 |
| 외국인등록인구(명) | 2,700 | 12,286 | . | 2016 |
| 전체 가구수(가구) | 223,604 | 364,356 | . | 2017 |
| 1인가구비율(%) | 10.0 | 22.2 | . | 2017 |
| 경제활동참가율(%) | 61.7 | 58.7 | . | 2018 |
| 고용률(%) | 59.3 | 56.5 | . | 2018 |
| 실업률(%) | 3.7 | 3.7 | . | 2018 |
| 면적(km ²) | 267.33 | 268.05 | . | 2018 |
| 인구밀도(명/km ²) | 2,984 | 3,893 | . | 2018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KOSIS(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 인구구조 변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관련 행정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서

비스 욕구의 다양성으로 인해 비용 상승의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기존에 공급했던 공공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소요, 각종 유휴시설 증가에 따른 매물 비용 등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됨
- 고령인구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 주거, 보건, 복지, 의료, 평생교육, 일자리 등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함³⁾

○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노인부양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인구구조 특성에 맞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⁴⁾

- 고령화 지역(65세 이상 인구 7~14% 미만)은 출산율 저하, 노인복지 인프라 부족, 샌드위치 세대의 돌봄 부담 증가, 고령자 소득보장 인프라 취약(퇴직자 증가), 노인건강 관련 지출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출산지원 정책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노후 대비 사회보장 제도 확충, 노인보건 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령사회 지역(65세 이상 인구 14~20% 미만)은 저출산, 노인빈곤문제, 장기요양 인프라 미흡,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족 등이 발생함에 따라 출산지원 정책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구축, 고령인구 밀집 지역의 위기노인 지원 대책 마련, 노인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등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고령 지역(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급증, 급만성 질환 노인 증가 등에 따라 독거노인세대 지원 확대, 노인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등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 2016. (p70)

4)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외, '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2008. (p66)

- 인구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총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전망됨. 2015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총부가가치(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고용 측면에서도 서비스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증대시키며,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비중은 중기적으로 소폭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 기준 분석결과와 유사함
 - 단, 세부 업종별로 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제조업 내에서 특히 섬유·가죽업과 저기술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전기·전자업도 중기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반면, 음식료업과 기계·장비업, 화학제품업 등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서비스업 내에서 보면 사업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이 대폭 상승하나 도·소매업, 교육업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⁵⁾

3. 고양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사점

- 고양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35년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2017년 기준 고양시의 합계출산율은 0.960명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함.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소년 인구 감소 및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점점 고령 인구는 증가하여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출산지원 정책의 지속적 추진

- 저출산·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친출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함

5) 강종구(한국은행 국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2017. (p30)

○ 중장년 지원 정책 마련 및 확대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중장년(40~50대) 비율이 35.7%로 타 도시에 비해 높고, 점점 증가 추세인 1인 가구도 40~50대 비중이 39.4%(2017년)를 차지함
-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함. 특히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은 가정 및 사회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중장년 유류 인력은 사회에 곧바로 흡수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직 경험을 살린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제공해야 함

○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확보 및 지원체계 마련

- 고양시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현재의 중장년층이 향후 고령층으로 들어감에 따라 2035년 65세 이상 인구가 26.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 부담도 증가하게 되는데, 2018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6.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비해 203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므로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및 지원체계의 확고한 마련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시스템 마련

- 2000년도 10%였던 1인가구 비율이 2017년 22.2%로 급격하게 증가함. 1인가구의 증가로 중노년층의 고독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 1인가구 고립문제 대처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표용 정책 마련

- 2000년도 2,700명이었던 외국인 등록인구가 현재 12,286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도 증가하고 있음. 다문화 가정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및 사회통합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제2절 인구이동에 따른 시사점

1. 고양시 인구이동 특성

- 인구이동으로 순이동 인구 증가 :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음
 - 2000년 이후 순이동(총전입-총전출) 인구를 살펴보면 정(+)의 형태를 보임
 - 연간 약 15~20만명 정도의 인구가 전입 또는 전출하는 인구이동이 활발한 도시임
- 고양시내 이동의 비중이 가장 큼 : 총전입의 46.5%, 총전출의 49.0%(2016년)
 - 2016년 한 해 동안 총전입 인구 158,904명, 총전출인구 150,716명이며, 이 중 73,865명(총전입의 46.5%, 총전출의 49.0%)이 고양시 내에서 이동함
 - 2000년~2017년 총전입의 44.7%와 총전출의 47.3%가 고양시 내 이동임
- 서울 등 타 시도 전입으로 인구 증가 : 총전입의 36.8%, 총전출의 30.7%(2016년)
 - 2016년 한 해 동안 시도간 이동으로 58,535명이 전입, 46,344명이 전출함
 - 특히 서울에서 전입한 인구는 39,625명으로 시도간 전입의 67.7%의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인천, 강원, 충남 순으로 비중이 높음. 전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2000~2017년 시도간 이동으로 296,818명의 인구가 증가함
- 파주 등 타 시군 전출로 인구 감소 : 총전입의 16.7%, 총전출의 20.2%(2016년)
 - 2016년 한 해 동안 시군간 이동으로 26,504명이 전입, 30,507명이 전출함
 - 특히 파주로 전출한 인구는 11,003명으로 시군간 전출의 36.3%의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김포, 용인, 성남, 수원 순으로 비중이 높음
 - 2000~2017년 시군간 이동으로 117,224명의 인구가 감소함

- 2000년대 : 젊은층(20~30대)의 인구 유입 비중 높음
 - 2000년대 초반 인구이동으로 연간 1만명 이상의 20~30대 인구가 증가함. 10세 미만의 어린 자녀와 동반 전입해 오면서 10세 미만 인구도 연간 2천명 이상 증가함
 - 2010년대 들어서도 2013년~2015년 인구이동으로 연평균 5천명 이상의 30대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10세 미만 인구도 연간 2천명 이상 증가함
- 2010년 전후 : 40대와 자녀 세대인 10대의 전출 인구가 많음
 - 2010년 전후로 40~50대 중장년 인구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지면서 자녀 세대인 10대 인구도 동반 감소함.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2010년도에 40~50대와 10대 인구가 각각 연간 1천명 이상씩 감소함
- 2010년대 :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인구 유입
 - 2013년 이후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증가함
 - 2013년~2016년 30대와 자녀세대인 10세 미만 인구의 증가폭이 가장 크며, 최근 들어 은퇴 이후 연령층인 60대와 70세 이상 인구도 각각 연간 1천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음
- 남성보다 여성 인구의 유입 비중 높음 : 여성(54.3%), 남성(45.7%)
 - 2000년~2017년 까지 18년 동안 인구이동(순이동)으로 여성은 97,579명 (54.3%) 증가한데 비해 남성은 82,015명(45.7%) 증가함
- 서울과의 통근 유출입 인구가 많음 : 고양시 내(36.0%). 고양시↔서울(35.4%)
 - 2016년 기준 고양시 1일 목적통행량은 2,662,595통행이며, 이 중 출근 목적통행량은 609,689통행(22.9%)임(수도권교통본부, 전수화보고서 3편, 2017. p369)
 - 출근을 위한 1일 목적통행량 609,689통행 중 고양시 내 이동 219,320통행 (36.0%), 고양시↔경기 간 이동 147,178통행(24.1%), 고양시↔서울 간 이동 216,068통행(35.4%)으로 고양시와 서울간 출퇴근 이동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고양시는 2005년 5월, 3개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체계 갖춤
- 덕양구 : 지난 13년간 (2005년 → 2018년 8월) 62,413명 증가
 - 2010년 이후 삼송원흥신도시 택지개발지구(원신동, 흥도동, 신도동, 창릉동)로 유입된 인구가 약 6만 명으로 추정됨
 - 덕양구는 2018년 8월 기준 451,714명이며, 지축·향동·덕은지구의 택지개발을 앞두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인구증가가 꾸준할 것으로 보임
- 일산동구 : 지난 13년간 (2005년 → 2018년 8월) 70,416명 증가
 - 식사동, 중산동, 풍산동의 인구증가 폭이 큼
 - 앞으로 장항1동과 중산동의 인구증가가 예상됨. 장항1동은 청년스마트타운, 한류월드 부지의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중산동은 2018년 일산센트럴아이파크(1,800여 세대) 입주로 인구증가가 예상됨
- 일산서구 : 지난 13년간 (2005년 → 2018년 8월) 6,500명 증가
 - 송산동과 탄현동만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7개 동은 감소함
 - 앞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곳은 대화동으로 킨텍스 옆에 택지개발이 진행중이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앞두고 있음
- 고양시 전입이유는 주택(45%), 가족(25%), 직업(17%) 순 : 2016년
 - 전출이유는 주택(44%), 가족(24%), 직업(19%) 순으로 나타남(양승호, 2017)
 - 기타 교육(2%), 주거환경(2%), 자연(1%) 등의 이유로 전입·전출을 함

2.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분석

- 현재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신도시개발, 공공기관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의 인구규모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며 교육, 문화, 교통, 주거, 정책 홍보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⁶⁾
 -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구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5점 만점)는 ‘일·가정 양립(4.57점)’, ‘교육환경(4.55점)’과 ‘경제적 안정(4.55점)’, ‘삶의 질 향상(4.41점)’인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의 대도시 지역은 전연령대에 걸쳐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서울에서의 인구이동은 2010년 이후, 최근 대단위 주택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남양주, 파주, 고양, 성남, 김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다시 경기도 인접과 인천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임⁷⁾
 - 반면, 수원 이남과 남양주 이북으로의 인구이동 규모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 순환도로 안에서 인구이동이 주로 이뤄지는 반면, 순환도로 외곽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구의 이동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 확인됨
- 최근 수도권내 거주지 이동은 주거비 부담 증가와 신규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과 같은 노동시장 이외의 요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련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 인구 가운데, 주로 경기도와 인천지역으로 이주하는 주요

6) 경기연구원, ‘인구정책, ‘인구 양적증가’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 전환해야’, 보도자료(2018.5.20.)

7) 경기연구원,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2016. p3~4, p32.

집단은 주로 30, 40대 가구로 이들은 자녀 출산과 양육단계에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이주를 결정한다고 분석함(전성재 외, 2016; 경기연구원, 2016 재인용)

- 따라서 최근의 수도권 내 인구이동이 직장과 주거지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어 근로자의 출퇴근 통근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조사를 분석했을 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의 전체적인 타 시도 통근 규모는 약 200만여명 정도에 이른다. 이중에서 서울에서 타시도로 통근을 하는 인구는 약 53만여명이며,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통근을 하는 인구는 126만여명으로 추산됨(경기연구원, 2016. p39)
-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는 서울로 통근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지만 서울과 경기도내 타 시군으로부터 유입되는 통근인구도 많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노동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전입지의 노동시장 상황이 전출지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될 때, 노동자들의 이동경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노동인구의 거주지 이동은 단순한 지역적 상황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둘러싼 개인 및 가구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성, 연령, 학력수준, 경제활동 상태, 혼인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과 가구의 규모, 지역 내 거주기간, 거주형태 등의 가구 특성 또한 노동자들의 지역 간 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에 있는 근로자들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출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경기연구원, 2016. p14, p69)

3. 고양시 인구이동에 따른 시사점

- 시민의 일체감 형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필요
 -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시기에 따라 연도별 격차는 있지만 고양시는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인구가 연간 1만명 이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의 경우 시민의 일체감 형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함. 인구이동을 통해 고양시민이 된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기존 주민과의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성을 확보할 때 공동체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유아동·청소년이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필요
- 고양시는 20~30대 젊은층이 10세 미만의 유아동을 데리고 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관련 인프라 확보가 필요함
 - 반면 10대 인구는 인구이동으로 감소함. 맹두열·홍정모(2015) 연구에 따르면 고양시의 경우 청소년인구 대비 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고양시는 아동·청소년이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문정화 외, 2017. p36)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편의성을 고려한 인프라 확대
- 고양시는 남북협력의 지정학적 위치, 전시 컨벤션 산업의 중심도시, 방송·영상 관련 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인구이동과 일자리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으나 인과성에 있어서 일자리가 인구이동을 촉발하는 이론과 안정성, 학교, 의료시설 등과 같은 편의성이 인구유입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시장이 커지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경기개발연구원, 2008. p21)
 - 현재 K-컬쳐밸리 조성사업,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이며, 새로운 업무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여타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고양시로 유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GTX 개발 등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인구이동이 아닌 고양시↔서울 간 출퇴근 인구의 증가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유입된 인구가 고양시에 정착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편의시설 및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함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연구요약 제1절

결론 제2절

제1절 연구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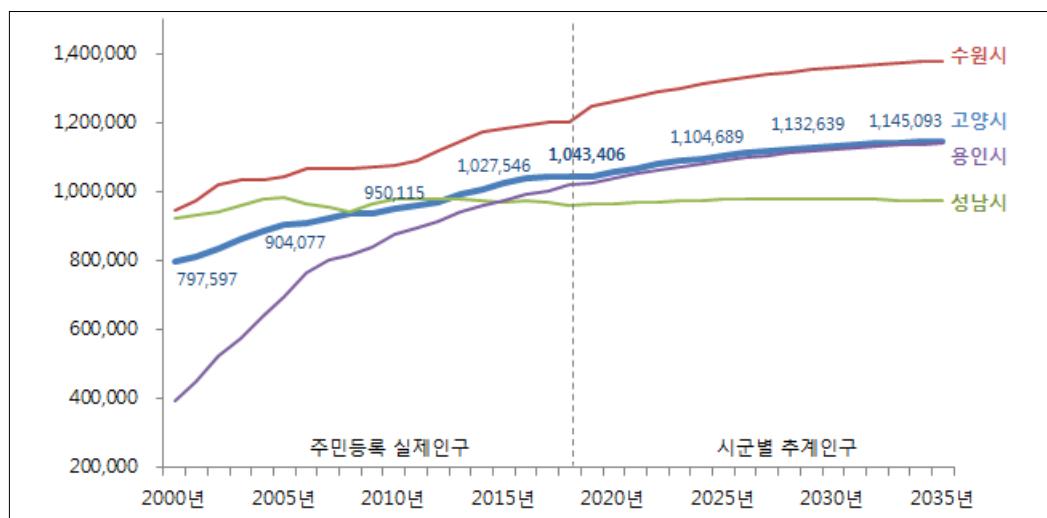
- ‘고양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고양시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분석을 실시함

1. 고양시 인구 증가 전망

- 고양시 인구는 2000년 797,597명에서 2018년 8월 현재 1,043,406명으로 245,809명 증가함(연평균인구성장률 1.58%, 2000~2017년)
 - 인구성장률은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플러스 성장(연평균인구성장률 0.59%, 2019~2035년)이 예상되므로 2035년 1,145,093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1] 고양시 인구 증가 추이(2000~203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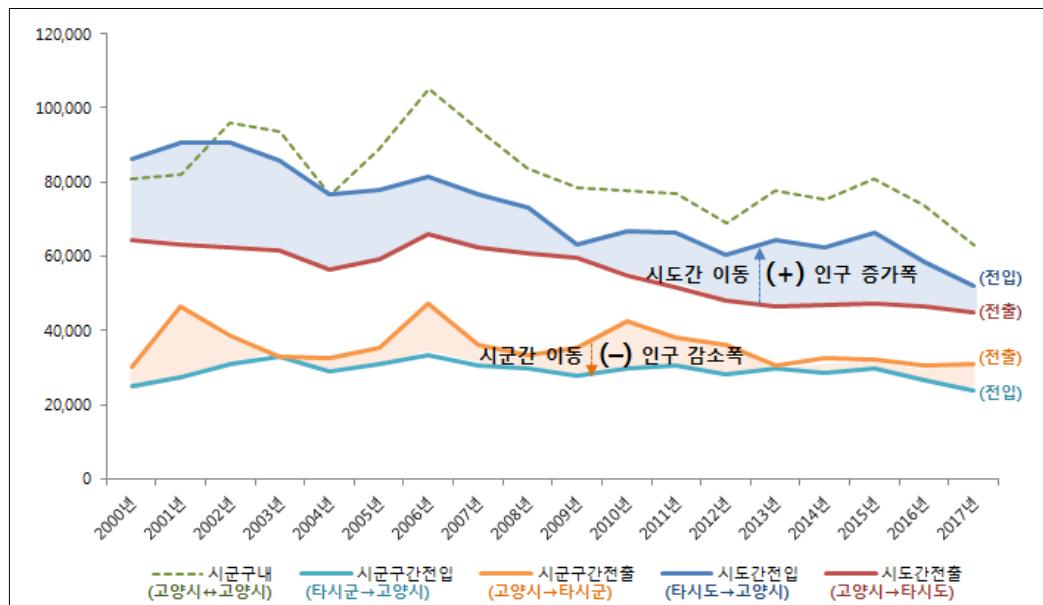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 출산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타 지역으로부터 고양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전출하는 인구보다 많은 순이동인구 증가에 의함
 - 2000~2017년 인구이동 추세를 보면 서울 등 타 시도에서 고양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보다 많아서 시도간 이동(고양시↔타 시도)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군구간 이동(고양시↔경기도내 타 시군)에서는 전입하는 인구보다 파주시 등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더 많음
 - 연령대별 순이동 인구를 보면 2000년대 초반 20~30대 젊은층이 연간 1만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0년 전후로 40대와 자녀세대인 10대 인구가 연간 1천명 이상 감소함. 2013년 이후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인구이동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은퇴 이후 연령층인 60대와 70세 이상 인구가 각각 연간 1천명 이상 증가하고 있음

[그림 5-2] 고양시 시도간-시군구간 인구이동 변동 추이(2000~2017년)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 고양시, 고양통계연보(2001~2017) 각 연도

2. 전반적 인구 구조 변화 - 고령화

- 2000년 고양시는 39세 이하 인구가 68.6%인 매우 젊은 도시였으나 2018년 8월 현재 46.6%로 줄었으며, 2035년 36.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고양시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0~14세) 25.9%, 생산가능인구(15~64세) 68.4%, 고령인구(65세 이상) 5.7%의 젊은 도시였음
 - 2018년 8월 현재 고양시는 유소년인구 13.1%, 생산가능인구 74.9%, 고령인구 11.9%의 고령화사회임.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2035년 고양시는 유소년인구 11.7%, 생산가능인구 61.6%, 고령인구 26.7%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5-2]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2000~2035)

(단위 : 명, %)

| 구분 | | 2000 | 2010 | 2018.8. | 2020 | 2030 | 2035 |
|------|--------------------|------|---------|---------|-----------|-----------|-----------|
| 인구구조 | 총인구 | 인구수 | 797,597 | 950,115 | 1,043,406 | 1,056,987 | 1,132,639 |
| | 유소년인구 (0~14세) | 인구수 | 206,320 | 166,752 | 137,153 | 136,612 | 133,909 |
| | | 비율 | 25.9 | 17.6 | 13.1 | 12.9 | 11.8 |
| | 생산가능인구 (15~64세) | 인구수 | 545,652 | 697,897 | 781,692 | 779,023 | 746,128 |
| | | 비율 | 68.4 | 73.5 | 74.9 | 73.7 | 65.9 |
| | 고령인구 (65세 이상) | 인구수 | 45,625 | 85,466 | 124,561 | 141,352 | 252,602 |
| | | 비율 | 5.7 | 9.0 | 11.9 | 13.4 | 26.7 |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보고서(2015~2035)

제2절 결론

- 2014년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한 고양시는 2035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현재 11.9%에서 2035년 2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양시는 연간 인구이동 규모가 15만명 이상인 인구이동이 활발한 도시임.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 등 타 시도에서 58,535명이 전입해 왔으며, 46,344명이 전출해 감. 경기도 내 괴주시 등 타 시군에서 26,504명이 전입해 왔으며, 30,507명이 전출해 감. 연도별 격차는 있으나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
- 인구 증가는 도시의 영향력을 키우는 반면, 인구 고령화는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고양시는 전시 컨벤션 산업의 중심도시, 방송·영상 관련 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도 진행중임. 고양시로 전입해 온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감과 동시에 고령 인구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함
- 종합적으로 제언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사점으로 (1) 출산지원 정책의 지속적 추진, (2) 중장년 지원 정책 마련 및 확대, (3)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확보 및 지원체계 마련, (4)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 (5)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포용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인구이동에 따른 시사점으로 (1) 고양시민의 일체감 형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 (2)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대 등이 필요함

참고문헌

강종구(한국은행 국장) (2017)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경기개발연구원(2008)
‘인구추계시나리오에 따른 복지정책 대응방안 연구’.

경기연구원(2018)
‘고양시 지역발전 전략 수립 연구’.

경기연구원, 최석현·이별호·박정훈(2016)
‘수도권 인구이동 요인과 고용구조 변화’.

고양도시관리공사(2018)
‘2018 업무계획’.

고양시(2016)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고양시정연구원, 문정화·이현정·KANG CHAE RYUN(2017)
‘고양시 사회복지 예산 분석 –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2018)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비교연구’.

수도권교통분부(2017.12)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3편’.

양승호(2017.8.)
고양시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특성 분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2016)
‘자치단체별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

한국지방세연구원(201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효과 분석’.

경기연구원(2018.5.20.)
‘인구정책, ‘인구 양적증가’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방향 전환해야’, 보도자료.

고양신문(2017.1.23.)
‘고양시 최근 10년간 구·동별 인구변화’.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population structure and interregional migration to obtain basic database for vision in Goyang-si.

This research analyse 1) total population structure and demographic change, 2) population structure and demographic change of city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000,000 in Gyeonggi-do, 3) population structure in Goyang-si, 4) demographic change in Goyang-si, 5) interregional migration in Goyang-si using statics, administrative data, and research report.

According to the analysis, Goyang-si, which entered one million cities in 2014, is expected to increase its population by 2035, and the proportion of people aged 65 years and over will increase from 11.9 percent to 26.7 percent in 2035. The reason for the population growth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net migration population. The number of people moving from other cities to Goyang-si is increasing because the number of people entering Goyang-si is more than other cities. Goyang-si was a very young city with the population of 68.6 percent under the age of 39 in 2000, but it decreased to 46.6 percent in August 2018, and is expected to decrease to 36.3 percent by 2035. With the continued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Goyang-si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with 11.7 percent of youth population, 61.6 percent of working age population, and 26.7 percent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is following. 1)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the birth policy, 2)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policies for middle-aged people, 3) need for social safeguard and support system for the old people. 4) Need for care system by the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 5) Need for engagement policy by the increasing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migration population are 1) propulsi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the conclusion and identification of Goyang residents, 2)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3) creating decent jobs and expanding infrastructure to secure convenient facilities.